

星武



Vol.47 2018. July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성무 논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공군의 새로운 모습

> 기념 소회

임관 50주년을 회고하며
성무대를 떠나며

> 역사·인물 탐방

징비록을 말한다

INNOVATION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함께합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상 안보와 국방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한반도,

노스롭 그루먼은 최첨단 기술로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는 물론 최첨단 C4ISR 기능과 미사일 방어까지,

노스롭 그루먼은 혁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계속 자리할 것입니다.

21세기 방위산업의 가장 앞서가는 리더-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THE VALUE OF PERFORMANCE.

NORTHROP GRUMMAN



최고의 성능과 최저의 운용비용

KF-X에 탑재 될 GE F414엔진은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되어 전 세계 전장에서의 운용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F-15K, FA-50 등 대한민국공군의 핵심전력에 장착되는 GE의 엔진들은 대한민국공군의 성공적인 미래 임무 수행에 핵심인 한-미 연합작전의 시너지, 최저의 정비비용 및 성능향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Imagination at work.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레일형 (4000A trailer, rail type / 1730-37-526-7798)

▶ 지난 30여년 간,
한국치공구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est Fixtures



T/FA-50 전기체 지상시험장비 개발

Major Structures



천공(M-SAM) 다기능레이더 셸터 및 플랫폼 개발

Conventional Assembly Jigs



항공기 날개, 동체 등 조립을 위한 조립치공구 개발

Sky high, Fly KAI

KAI가 띄우는
대한민국
하늘의 가치

KAI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희망을 띄웁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날려보았을 종이비행기.
우리는 작은 종이비행기에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실어
하늘 높이 날려 보냈습니다.
종이비행기의 기억, KAI가 그 초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의 길은
에어부산으로
통합니다

AIR BUSAN
예약 및 문의 1666-3060

● 국내선 노선 Domestic Routes ● 국제선 노선 International Routes

대한민국

F-35의 역사적인 출고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록히드 마틴은 더 나은 미래를 연구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십 년간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maero.c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18 LOCKHEED MARTIN CORPORATION

F-35 LIGHTNING II

NORTHROP GRUMMAN | BAE SYSTEMS | PRATT & WHITNEY
LOCKHEED MARTIN



CONTENTS

July

소식

- 10 총동창회 소식
- 20 공군 소식
- 24 모교 소식
- 30 이임사
- 32 취임사
- 34 축사

성무 논단

- 38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공군의 새로운 모습 _ 윤용현

星武

발행일 : 2018년 7월 (통권 47호) | 발행인 : 윤학수 | 발행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 : 02-823-1091, 군 : 923-7570) | 편집디자인인쇄 : 지식산책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 기고

기념 소회

- 56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_ 주창성
- 59 임관 50주년을 회고하며 _ 임정빈
- 64 성무대를 떠나며 _ 박세은
- 66 가입교 메추리 유정 _ 송기준
- 76 성무인 가을축제 축사 _ 윤학수

자랑스러운 공군 · 성무인

- 82 F-35A 태극마크 달았다 _ 이문호
- 86 힘이 닿는 그날까지 _ 류홍규

역사 · 인물 탐방

- 91 연암 박지원을 기리며 _ 이희용
- 95 징비록을 말한다 _ 김동기

여행기

- 100 희망을 두고 온 나의 겨울여행 _ 박기호
- 106 제주도 여행의 여운 _ 백승용

현역 코너

- 112 부부 비행대장 _ 김동우
- 115 방공통제인이 가야할 길 _ 유명미

성무인 단상

- 121 서라벌에서 온 편지 _ 이종학
- 126 내 삶의 보람과 자부심인 강식품 _ 정용진
- 129 백령도 공군부대장 시절 _ 김국창
- 132 죽음의 미래, 현충원을 생각한다 _ 이은봉



창작(시)

- 139 달마중 _ 구춘수
- 140 보라매 기상 _ 백문현
- 141 하늘을 날며 _ 강임규
- 142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_ 이규석

우정기고

- 146 잃어버린 별 헤는 밤 _ 신향민
- 147 근대기 남성복에 나타난 군복의 영향요인 _ 한순자

동정

- 160 동문 소식
- 166 화제의 인물
- 168 신간 소개

공군 정보

- 170 2018년 달라지는 공군 업무



총동창회 알림

- 177 정기총회
- 181 회비 납부 안내
- 182 평생회비 납부 현황
- 185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 190 전역자 현황
- 194 각 기생별 임원 현황
- 195 편집후기/기고안내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사심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2017.7.26
제25차년도 이사회



17~45기 총동창회 이사들이 참석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를 25차년도 운영중점으로 정하고, 한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2017.9.15
자문위원 간담회



5~24기 역대 회장 및 사무총장을 모시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7.11.3
성무인 가을축제



본회는 생도들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건조기를 전달하고, 행사에 참가한 회원 및 가족들은 생도들과 함께 오찬과 축제를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내년부터 성무인 가을축제는 성무제 개최 시기가 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관기념행사와 통합 개최될 예정이다.

2017.11.17
친선 바둑대회



본회는 공군회관에서 제15회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4기 박재윤 회원이 기우회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기우회원 및 진행요원 60여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하면서도 열띤 대회를 진행하였다. 시상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전 우승 - A조: 정지수(11기), B조: 김길상(14기), C조: 서철수(9기)
D조: 배중수(17기), E조: 이한호(17기)
- 단체전 우승 - A조: 김성규(8기), 송문호(11기), B조: 김종남(5기), 이규형(11기)
C조: 이장우(8기), 조희열(9기), D조: 박창용(19기), 홍성룡(27기)
E조: 박진재(14기), 김영호(17기)

2017.12.7
순조회 초청행사



본회와 공군전우회는 공군회관에서 연말을 맞아 공군 순직조종사부인회 회원 40명을 초청하여 오찬 및 기념 선물을 전달하는 등 위로행사를 실시하였다.

2018.2.7
66기 졸업생도 격려 및 특강



윤학수 회장은 66기 졸업생도를 대상으로 'Be the best! 내게 멋진 삶을 살아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졸업선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전달하며 격려 및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2018.3.5
성무보라매상 시상



66기 졸업 축하연에서 총동창회장상인 성무보라매상을 김하현 생도에게 수여하고, 부상으로 태블릿 PC를 전달하였다.

2018.4.25
총동창회 등산대회



서울대공원에서 4~30기 200여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등산과 오찬을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다참가상은 20명이 참석한 19기가 차지하였고, 특별상으로는 고령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한 7기가 수상하였다.

2018.5.18,25
공군 전방부대 격려 방문



본회 회장단은 공군 전방부대인 제8785방공관제대대와 제536방공포대를 방문하여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일선에서 영공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2018.5.26
졸업·임관 기념행사



모교 성무연병장에서 동문 및 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임관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각 동기회 및 개인회원이 총 1억 6천만원, 본회에서도 1천만원의 모교 발전기금을 기탁하였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6기 동문 - 50주년



○ 26기 동문 - 40주년



○ 36기 동문 - 30주년



○ 46기 동문 - 20주년



56기 동문 - 10주년



2018.6.5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부



제25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임원진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2018.6.21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본회는 공군회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업무 및 결산 보고 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6차년도 회장으로는 성일환 전 참모총장이 선임되었고, 26기 사관이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앞으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6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 회장 성일환
- 부회장 김용홍(선임), 강중순, 강희규, 김세창, 김유상, 김정식, 김종철, 김진성, 김현영, 박기순, 박성보, 배충영, 변종돈, 오중기, 은영기, 은진기, 이대열, 이상길, 장윤화, 정진기, 조희연, 하대용
- 감사 전성관, 장영출
- 사무총장 이태인
- 후원 공사 26기 사관 일동

제35, 36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2017.8.11) 제35대 정경두(30기) 대장과 제36대 이왕근(31기) 대장의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국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공군 역사 모바일 앱 제작



(2017.8.16) 공군은 국민에게 공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자 공군 역사 앱 「자랑스러운 공군, 공군인」을 개발하였다. 항공선각자, 항공독립운동가, 공군창군 7인, 6.25전쟁 영웅, 공군 역사 영상, 공군 연표 등으로 구성된 이 앱은 스마트폰 Google Play 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미 항공구조사, 최초 전투탐색 및 산악구조 연합 훈련



(2017.10.23-27) 최초로 한·미 항공구조사가 함께한 이번 훈련은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서 한 반도로 전개한 미 31구조대대 항공구조사를 포함해 한·미 공군 항공구조사 30여명과 HH-60 탐색구조헬기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 조난 조종사 탐색구조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2017.11.1) 이번 학술회의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및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 등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다변하는 21세기 안보환경 속효과적인 항공우주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타우러스 최초 실사격 성공



(2017.9.12)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400km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후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함으로써 적의 핵심시설과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서울 ADEX 2017 성황리 개최



(2017.10.17-22)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2017’에 총 28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웠다. 또한 33개국 405개 업체가 참가해 175억5100만 달러의 상담 규모와 8억9300만 달러의 행사장 계약 및 MOU 체결 실적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공군 항공정보단 창설



(2017.12.1) 항공정보단은 제37전술정보전대를 단급으로 전환 창설한 것으로, 앞으로 24시간 정보감시태세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 정찰자산을 효율적으로 통제·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군의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전구작전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할 계획이다.

공군 항공소프트웨어 직접 개발로 예산 절감



(2018.1.3) 공군은 2017년 한 해 동안 46건의 항공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약 600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항공소프트웨어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항공기 운영체제와 전자전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공군은 총 75종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였다.

2017년 공군을 빛낸 인물



(2018.1.29) '공군을 빛낸 인물'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공군의 핵심 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적극 구현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군은 올해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등 5개 부문에 총 개인 1명과 7개 단체를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공군 사이버전사 경연대회 개최



(2018.3.6) 확고한 사이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가상의 시스템에 대한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시간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대회에서 수상한 사이버전사 3명은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8 국방해킹대회'에 공군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2018 실버플래그 훈련 참가



(2018.4.18~25)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 시설공병 분야 다국적 연합훈련 '실버플래그'에 참가하였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최신 시설공병 전술 및 기법을 공유하는 등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

미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국산 항공기 시험비행



(2018.4.22~27)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는 제52 시험평가전대를 방문해 국산항공기 T-50, TA-50 및 KT-1의 국산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성 및 항공전자장비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양국 시험비행 요원들은 '한·미 시험비행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험비행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F-35A 1호기 출고행사



(2018.3.28)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을 비롯 한·미 공군, 업체 관계자 등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첨단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F-35A 1호기 출고행사가 미국 텍사스주 록히드마틴 최종 조립공장에서 거행되었다. F-35A 40대는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되어 '21년까지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다자녀 공군인 격려행사



(2018.4.16)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에는 다자녀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부부 20쌍이 초청되어 기념촬영, 축하공연, 동영상 앨범 상영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녀들이 주는 큰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2018.5.10)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와 국방정책을 뒷받침하고 ICT 신기술의 군내 적용을 선도하기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추진동력 확보, 지능정보기술 공군 적용을 위한 신규 필요창출 등 5대 추진 중점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2018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



(2018.6.8) 항공안전 분야 민·관·군 관계자 400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현장위험관리'를 주제로 조태환 경상대 석좌교수의 기조연설,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의 특별강연에 이어 발표 및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물관 기획전 건국기 T-6의 기억



(2017.6.19) 박물관 기획전 <건국기 T-6의 기억>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학교장 및 지휘관 참모는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하고,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건국기 T-6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기획전을 관람하였다.

대학생 공사 체험



(2017.7.17-21) 사관생도-대학생간 교류활성화와 일반 대학생들의 국가관, 안보현실, 공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해 전투비행단 견학, 비행시뮬레이터 탑승,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공사체험을 실시하였다.

한민족 역사탐방



(2017.7.25-27)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2학년 사관생도 한민족 역사탐방이 진행되었다. 생도들은 신한촌, 태평양함대사령부, 항일유적지 및 발해 성터 등을 견학하며 국가관, 역사익식 및 군인정신을 함양하였다.

곰두리 축구단 친선축구경기



(2017.8.7-10) 곰두리 축구단이 합숙훈련 및 친선축구경기를 위해 공사를 방문했다. 선수들은 박물관, 모의비행훈련실, 212대대, 천문대를 견학하고, 지휘관·참모들과 친선축구경기를 마친 후 만찬을 즐기며 공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제39회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2017.9.9) 국내 최대 항공우주과학축제 스페이스 챌린지 2017 본선대회가 열렸다. 올해 본선에선 항공과학 최신 트렌드로 부상 중인 드론분야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전투기,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 VR체험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마련되었다.

3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2017.9.13)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청조회관에서 212비행대대 3만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에 따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미래 항공우주무기체계 학술대회



(2016.10.13) 단재관에서 약 7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이 항공우주무기체계와 미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거행되었다. 학술대회 후 안중근 홀에서 특별강연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슈퍼 블루문 개기월식 관측행사



(2018.1.31) 전군 유일의 천문대인 공사 천문대는 35년만의 '슈퍼 블루문 개기월식'을 맞아 장병과 시민의 천문우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병 및 시민들 150여명을 대상으로 개기월식 관측행사를 지원했다.

70기 사관생도 입학식



(2018.2.13)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제70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보라매 결의를 시작으로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199명의 70기 입학생도들은 학교장과 학무모 친지 앞에서 능름한 모습으로 입학선서를 함으로써 사관학교 정식 입학 을 알렸다.

66기 졸업·임관식 거행



(2018.3.8)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66기 졸업·임관식이 안중근홀에서 거행되었다. 136명의 생도들은 졸업·임관식을 통해 국가와 국민 수호를 위해 헌신할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공사 66기 소위들의 비상에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T-103 항공기 퇴역 행사



(18.4.17) 지난 '05년 6월부터 공군의 입문 비행 교육 과정용으로 운용되던 T-103 항공기가 고별 비행을 끝으로 퇴역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관, 교수, 정비사들이 모여 지난 13년동안 총 41개 차수에 2,200여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한 T-103 항공기의 명예로운 퇴역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8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 개최



(2018.4.30.) '명장의 리더십 고찰을 통한 사관생도 인성 함양'을 주제로 '독립군·광복군의 리더십과 애국심'을 연구하고 계승하기 위한 공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사 생도와 육군·해군·육군3사관학교 생도 8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와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중·고생 대상 항공우주캠프 실시



(2018.3.20) 공사는 학생들의 항공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항공우주캠프'를 연 6회에 걸쳐 실시한다.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캠프에서는 천문대 견학, 생도와의 만남, 오보트론 체험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하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향후 진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태국 공사 대표단 방문



(2018.4.2) 한·태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태국 공사 대표단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인솔단장 등 21명의 지휘부는 환영인사 및 공사 현황소개 시간을 가졌고, 태국 생도 84명은 교내를 견학하고, 태국 수탁생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리모델링 개관



(2018.5.2) 공사 도서관이 15개월에 걸친 개보수작업을 마치고 21만여 권의 장서와 각종 최신식 설비를 갖춘 '자기 주도적 창의력 학습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 규모로 총 면적 4,105㎡에 달하며 보유 장서, 건물 규모 등 공군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공군사관학교 인터내셔널 워크



(2018.5.23-27) 미국·태국·영국·호주·네덜란드·프랑스·그리스 등 세계 17개국 공사 생도를 초청해 국제교류 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대로 많은 나라가 참석한 17개국 생도들은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와 공군 작전현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견문을 넓혔다.



기술

이 모든 요구에 신뢰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랫&휘트니의 힘.



준비태세



믿음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누가 지켜갈까?

P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풍산,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34 개국의 군이 6,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P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GO BEYOND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친애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지난 일 년 간 총동창회의 한 목표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동기생 여러분!
저희 25기 회장단이 총동창회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내실 있는 변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나름대로의 포부를 안고 출범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 이제 26기에게 인계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그 동안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 조언과 참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발전을 도모했다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자책해 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영예산 확충 문제와 총동창회의 위상 제고 등에 대해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지난 일년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인이라는 금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낀 정말 보람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여 발전시킨 점도 없지는 않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은 꼭 회원님들께 직접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전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25기는 거의 10년 가까이 총동창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동기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일 년 간 재정적 어려움이 전혀 없이 순조로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총동창회 운영기수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법은 없을가에 대해 많이 고심했고,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외부 후원을 확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ADEX를 통해 국내외 많은 방산업체 임원들을 짧은 시간에 모두 만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



윤학수
이임 총동창회장



리 회장단은 시간이 나는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항공 관련 업체 지사장들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욕심을 부린 만큼의 성과를 올 한 해에 다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일 년 간 운영을 맡을 26기는 물론, 그 이후 기수의 회장단이 연계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적인 여력 확보는 물론이고, 공사총동창회에 대한 외부의 인식 제고에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과거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회장단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지혜롭게 총동창회 운영의 핵심이 되어 준 김영근 사무총장과 각 분과별 25명의 부회장들께, 그리고 재정지원과 운영 전반에 걸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25기 현 기생회장 최미락 장군께도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총동창회 운영을 26기에게 넘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일환 신임회장과 이태인 사무총장께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5기는 이제 짐을 벗었다고 앞으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일 년 간 터득한 여러 가지 Know-How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총동창회와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제가 총동창회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총동창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 본인이 직접 참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원들을 한 분씩 손잡고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새 시대에 걸맞는 공군의 새로운 도약,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이임 총동창회장 윤학수



안녕하십니까? 공사 26기 성일환입니다.

오늘 저는 공군사관학교 26차 총동창회장이라는 영예스러운 직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직위를 맡겨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44년간의 긴 세월을 함께한 공사26기 동기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공사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운영해 주신 25기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모교인 공군은 어려운 여건에서 6.25전쟁을 치루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여 지금은 4,000NM 밖 알래스카까지 non-stop으로 비행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블랙이글팀은 2012년 영국 에어쇼 참가를 계기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2년 주기로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등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비역은 나날이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청춘을 다 바쳤던 옛 공군생활의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또한, 누구나 우리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출신임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슴 활짝 펴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환
신임 총동창회장

따라서 우리 동문은 앞으로도, 현역은 항상 제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예비역은 공군사관학교 출신답게 주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때 공군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님으로서 무한한 배려와 절제된 언행으로 후배들에게 보다 존경받으면서 선·후배간의 동문 화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기는 앞으로 1년간 동문 화합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등산을 포함하여 바둑, 테니스, 자전거, 당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포함한, 특히 30대 기수 이후 동문들의 발전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모교로 항상 우리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생활해 왔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문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소중한 만큼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젊고 유능한 후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후배기수가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발전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신임 총동창회장 성일환



존경하는 김상태 총장님, 한주석 총장님을 비롯한 원로 선배님!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해서 2018년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총동창회의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참여 방안 확대 등 공사 총동창회와 공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이임하시는 윤학수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성일환 신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정예장교들을 양성하여, 6.25 전란을 극복하고 공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며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 총동창회는 모교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공군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등 공군사관학교의 69년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아직도 ‘청렴결백(清廉潔白)’부터 ‘은위겸비(恩威兼備)’까지 공사십훈을 외우던 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군사관학교 동문입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과 동기생, 후배 장교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도 튼튼한 안보의 주역으로 굳건하게 공군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내년이면 공군 창군 70주년이자, 사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과 저를 비롯한 현역들이 공군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 왔다면, 이제 미래는 사관생도를 비롯한 젊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70년을 이끌며 미래의 전장에서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첨단 전력을 구축하고, 이상적인 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의 노력과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동창회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이임하시는 윤학수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안하심과 성일환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올해로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어느덧 개교 6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무대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수련에 매진하는 후배생도들의 땀과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그사이 우리의 터전은 청주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날갯짓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일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우주군을 선도하는 정예장교 양성의 산실로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또한 전 세계로 힘찬 나래를 펼치고, F-35,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기 도입과 함께 현대전장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교의 성장과 찬란한 역사, 오늘날 우리 공군의 성취는 동문 여러분의 값진 희생과 뜨거운 열정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관학교에서는 항공우주특화교육, 프로젝트 기반교육, 다각적인 인성교육, 국방개혁 2.0에 부합한 생활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리 생도들이 항공우주전문성과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과 올바른 전장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양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공군의 현재 위상과 미래 가능성의 척도입니다. 사관학교 전 교



황성진
공군사관학교장



직원은 사관생도들이 선배들이 쌓아온 위대한 전통과 얼을 되새겨 공군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거목이 우뚝 설수 있는 것은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군사관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동문들의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배 사관생도들이 항상 명예롭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국가의 부름에 헌신과 용기로 답하는 참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공군사관학교장 중장 황성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공군의 새로운 모습



윤용현
25기, 국민대학교 교수



[차례]

- 1. 들어가는 말
- 2. 국방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
- 3. 미래공군력 구축방안
-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 급변하는 국방환경

- 영국의 전략가 리델하트¹ B.H. Liddell Hart(1895~1970), 영국의 군사전략가, 전쟁사 연구가는 “전쟁은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 존재한다.”고 했다. 시대에 따라 무기체계가 달라지고 전쟁양상이 달라질뿐 아니라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걸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와 “아직도”가 공존한다.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의 물결 뿐 만 아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한미연합훈련의 변화, 전시작전권 환수,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2.0이 추진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에 적절한 국방 개혁 2.0 및 국방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 국가 안보가 국민복지이고, 국가 경제이며, 민생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가안보는 국방력 건설에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튼튼한 국방력 없이 국가 안보는 있을 수 없으며 살아남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군의 싸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전력 건설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 과학기술의 발달로 군의 무기체계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공군의 무기체계와 공군력의 미래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¹ B.H. Liddell Hart(1895~1970), 영국의 군사전략가, 전쟁사 연구가

□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항공기 시대

- 우리공군의 새로운 모습은 5세대 전투기와 무인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꿈의 전투기인 F-35A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로 전력을 구사한다면 어떤 공군작전이 가능할까 사뭇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함께 합동 공중작전을 수행할 여타 전투기들과의 조합도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 뿐만 아니라 고고도 무인항공기(Global Hawk)인 정보정찰 감시 자산은 이미 현대 무인항공무기체계의 최고 수준을 논하는 세계 군사전문호사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의 싸우는 방식과 전략에도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 때를 같이하여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숨 가쁘게 변화하는 미래 국방환경을 내다보며 공군력 건설을 통한 우리공군의 미래 모습을 스케치 해 보는 것은 우리 성무인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문제의 인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어느 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 결국 이세돌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점에 놀랍기도 하고, 과연 그러한 게임이 가능할까 의아하기도 하였다. 몇 차례의 공개 대국을 벌인 결과, 드디어 알파고 승리로 게임은 마무리되었다. 결국 알파고의 냉철한 계산능력과 예측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정이 없는 기계의 위력에 우리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음을 공감했을 것이다.
- 만약 인공지능을 지닌 알파고와 같은 전투로봇이 바둑게임이 아닌 전투형태로 인간에게 도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상상한다면 가공할 일이다.

□ 미래에 무엇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다.

- 산업혁명(Industry Revolution)이란 인간욕구(human desire)와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의 공진화(co-evolution)과정을 말한다.² 다시 말하면, 인간욕구충족의 필요성에 과학기술이 응답하는 과정이다.
 -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1,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물질혁명이고,
 -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주도한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 낸 혁명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들이 핵심기술들이었다.
 -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기술, 전자적 기술, 생물학적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공진화 결과로 어떠한 무기체계가 출현할 것인가는 간단치 않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하여 만들어 간다는 것이 미래학의 개념이다. 미래예측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100년의 변화가 10년 만에 이뤄지고,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미래 학자들은 무엇이 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 질문한다고 한다.³
 - 4차 산업혁명시대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치기반기술, 소셜네트워크, 생체인터넷 등의 디지털기술에 서비스 디자인, 3D 프린터와 로봇, 증감·가상현실, 블록체인과 핀테크, 게임화, 플랫폼의 기술들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인간욕구에 응답하며 공진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 이민화,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 (사) 창조경제연구회, 2017.9.13

3 앨빈토플러, 2010년 미국 공영방송 NPR 인터뷰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은 군의 전략과 예상되는 전쟁 양상에 따라 5차원적(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공간에서 미래 무기체계의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국방환경 및 전쟁 양상의 변화

□ 국방환경의 변화

-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군사적 위협 감소에 따른 남북 간의 군축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 종전선언에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감소 및 주한 미군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는 우리 공군이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과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지상작전권, 해상 작전권, 공중작전권 등 모든 주요 작전 권한을 행사해 오다 지상작전권은 전환되었으나 한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작전권과 항공 작전권한을 미군이 아직도 행사하고 있다.
 - 당시 우리 군은 총 72만 병력 가운데 66만을 육군의 보병 중심으로 편성했었다. 이렇게 고착된 우리 군의 파행적 육군병력 위주의 전력증강은 현대전의 가장 핵심전력인 공군력발전에 유리벽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작전통제권과 항공 작전권이 전환되고 주한미군의 감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에서 오는 전력공백을 드디어 우리 공군력 증강으로 메우는 더 없는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비가 필요하다.
 -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가장 위협 요소가

- 컸던 북한의 도발이 감소한 반면 새로운 위협요소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주변 4대강국의 영향력 확대와 영토 및 자원 분쟁에 따른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 주변국의 군사동향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군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한반도 주변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공영해 중심의 국방영역은 더욱 광역화될 것이다.
 -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가 변한 것은 아니다. 위협의 대상이 새롭게 부상으로 국방영역은 더 광역화될 것이다.
 - 국방이란 국경인접지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군사력 패러다임은 변화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가 군사대국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방위개념은 보다 광역화될 수밖에 없다.
 - 그 동안 북한과 극한 대치상황일 때는 지상군위주의 전력 증강에 집중해 왔다면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해 영해영공 방위 중심의 군사력 증강이 예상되므로 해·공군위주의 전력 증강과 군사적 균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군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유무인 혼성부대구조가 불가피하다.
 - 군 병력 자원 감소와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유지 대책도 매우 시급한 상태다. 현재 우리 군 병력 규모는 61만 여명 수준이다.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출산율 저하와 병력자원 감소, 그리고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2023년이면 50만 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대폭 감소하는 병력 규모에 맞춰 실질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병력감축 계획과 인명중시 개념에 따른 무인 전쟁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 軍에서 긴급소요로 무인 정찰기 및 전투기 획득을 요구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전략적 활용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다.
 - 유일한 대안은 병력절감형 전력구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 때 우리군의 선택은 무인무기 체계 개발 및 배치가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즉, 병력 절감형

유·무인 혼성부대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무인 혼성부대 구조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추진되는 병력감축뿐 아니라 현역자원 부족현상 등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병력이 줄더라도 무인무기체계를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방안이 제시 될 것이다.

□ 전쟁양상의 변화

- 미래전의 양상은 비선형 전투, 비대칭전략, 스마트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구축이다. 이를 전장공간 측면, 전투수단 측면, 전투형태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본다.
- 전장 공간 측면에서는 전장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주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다차원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며, 첨단 정보매체가 등장하면서 정보공간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정보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전투수단 측면에서는 피아 표적의 실시간 탐지·식별로 주야간 및 전천후 작전이 수행될 것이며, 위험도가 높거나 인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전투상황에서 무인체계의 활용이 증대되고, 첨단 지휘통제 체계를 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의사판단 및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비살상 무기체계를 통한 적 전력의 운용을 마비시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전투형태 측면에서는 다양한 작전요소들을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NCOE : Network Centric Operations Environment)으로 변화할 것이며, ‘다차원 동시·통합전투’를 통해 개별 전력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정밀 파괴·살상에 의한 최소파괴 및 효과 위주의 전쟁양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군사·비군사적 제반 수단을 활용하여 적의 전쟁 의지에 타격을 주어 승리하려는 전쟁양상을 띠 것으로 보고 있다.
- 분쟁 초기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공군력과 해군력에 의한 주변국의 도발 및 우리의 대응이 예상되며, 초기 공중우세확보가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장거리 전력투사가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및 공중급유기 등이 중심이 되는 원거리 항공작전 위주로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 국방핵심기술변화⁴

- 지휘통제·통신 분야
 - 지휘통제체계는 전장인식의 지능화, 다차원 전장정보 가시화, 지휘결심 지능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전술통신체계는 지상계층 무선링크 기반 백본망 능력과 공중계층 무선링크 기반의 유·무인기 전력 간 유통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계층 무선링크의 대용량·생존성·휴대이동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사이버전은 사이버 침투·파괴, 사이버 탐지·추론·대응, 사이버 침입 감내, 사이버 버전 시험검증 관련기술들의 고도화 추세에 있다.
- 감시·정찰 분야
 - 레이더는 소형·다기능·다목적·지능형·초장거리 레이더로 발전하고, 항공기 탑재를 위한 형상적응 배열 안테나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 위성용 SAR 탑재장비는 소형화·저가격화 되고, 항공기용은 요동과 비직선 비행궤도 보상능력을 보유하며, 유도무기용은 근전방 영상의 초고속 획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전자광학체계는 식별·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초분광 영상장비 및 적응 광학기 등을 확보하며, 우주용으로 초경량 SiC광학계, 이중 적외선 검출기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전자전체계는 소형·경량화되고, 원거리 다중위협 정밀 탐지·재밍하는 방향으로

⁴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발전하고 있다.

• 항공플랫폼분야

- 고정익전투기는 전투생존성 및 임무효과도 강화를 위해, 고기동 비행제어, 고성능 영상정보 획득, 저피탐·대전자전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소요대수에는 란체스터 법칙⁵ 동일성능의 전투기 5대와 3대가 공중전을 벌인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2대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수적우세의 제곱인 4대가 살아남는 이론을 적용한다.
- 회전익기는 지능형 함상운용 장치, 저소음·고속·고기동용 로터, 고수명·저소음의 동력전달장치, 자율비행 조종장치 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 무인항공기는 소형·경량화 신개념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무인 통합작전, 고도화된 무인자율 비행제어, 저피탐·대전자전 능력 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 전투기 F-35A나 수송기 C-130가 공중 드론부대 사령관으로 변신한다. 바로 공중 드론부대의 지휘 및 통제 임무를 겸하게 될 것이다.



F-35A와 6대의 무인전투기



C-130 수송기에서 투하되는 드론

- 위성체계는 항재밍 통신, 암호화 능력을 강화하고, 전기저항제트추력, 위성용 CMG·반구형 공진 자이로스코프·추진제 공급제어 밸브, 태양전지 관련기술을

⁵ 동일성능의 전투기 5대와 3대가 공중전을 벌인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2대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수적우세의 제곱인 4대가 살아남는 이론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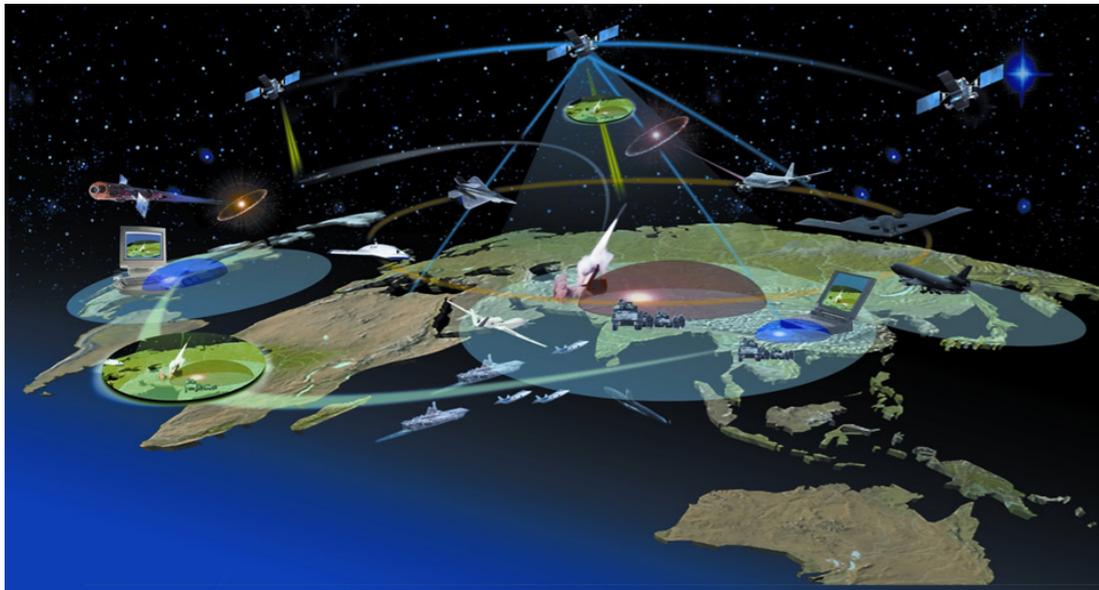
• 방호 분야

- 대공유도무기는 전자파 방해책, 스텔스 및 다표적 동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계·탑재운용 및 조기경보체계와의 연동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 화생방체계는 조기 탐지·식별·경보능력을 확보하고, C4I체계와 연동함으로써 화생방통합전장정보 관리체계로 발전하며, 제독체계, 화생방보호 체계 및 진단체계를 지능형개인전투체계로 통합하는 추세이다.
- 기타 분야
 - 공중·지상 M&S 통합 운용, 융·복합체계 및 신개념 무기체계의 효과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나 초소형 무인비행체와 같은 유·무인 통합 무기체계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3. 미래 공군력 구축방안

□ 전장을 주도하는 5차원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5차원 전쟁수행능력을 구축한다.
 -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 우주전, 그리고 사이버 전의 전장공간을 주도하는 공군력을 건설한다.
 - 사이버 침투·파괴, 사이버 탐지·추론·대응, 사이버 침입을 감내하는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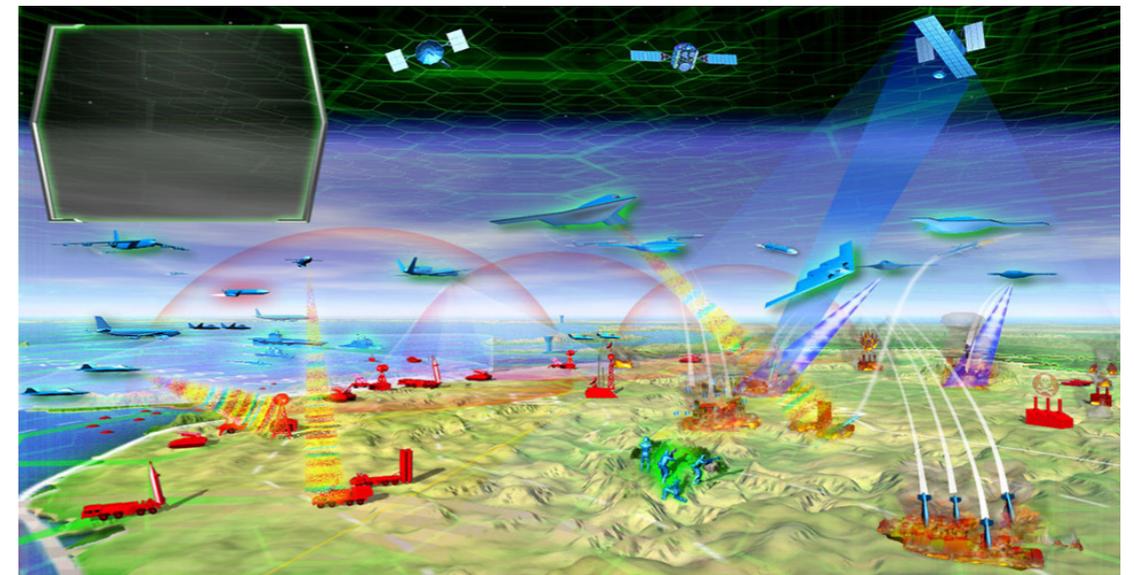
5차원 전쟁을 주도하는 미래공군

□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system of systems체계를 구비한다.

- 정보전(정찰감시, 조기경보), 실시간 전쟁 수행을 통해 전장을 주도한다.
 - 다양한 작전요소들을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

경(NCOE : Network Centric Operations Environment)을 구축하여 ‘다차원 동시·통합전투’를 통해 개별 전력의 능력을 극대화 정밀 파괴·살상에 의한 최소 파괴 및 효과 위주의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한다.

- 항공기 탑재용 소형·다기능·다목적·지능형·초장거리 형상적응 배열 레이더로 전천후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한다.
- 대공유도무기는 전자파 방해책, 스텔스 및 다표적 동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기경보체계와 연동하여 운용한다.
- 소형·경량화되고, 원거리 다중위협 정밀 탐지·재밍하는 전자전 체계를 구축한다.
- 군사·비군사적 제반 수단을 활용하여 적의 전쟁 의지에 타격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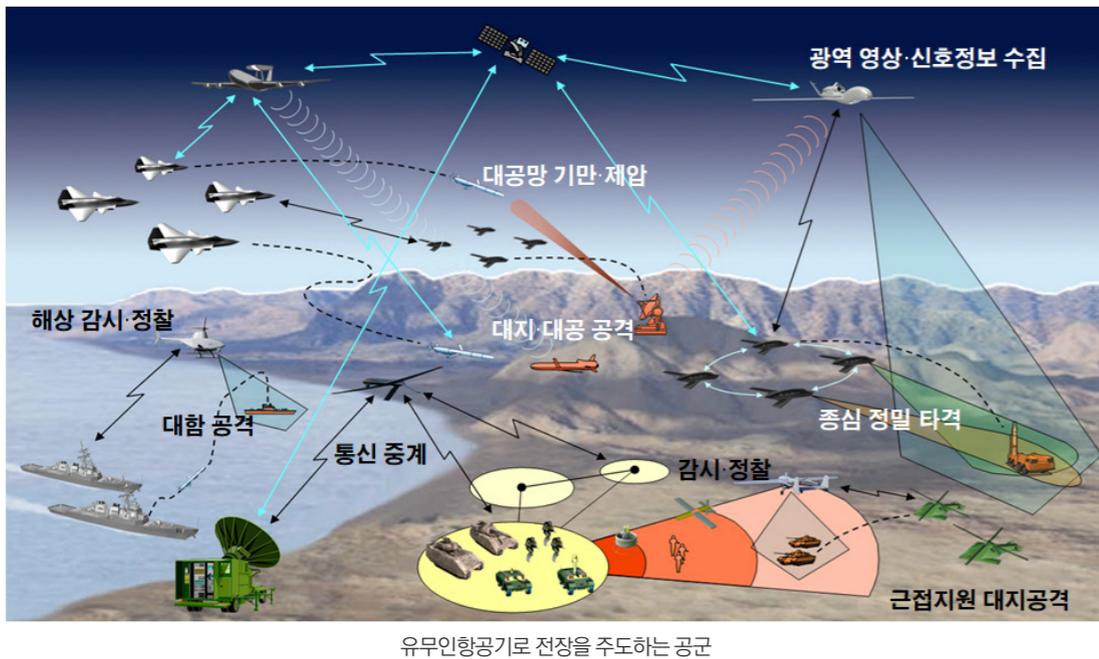


다차원 동시·통합전투력을 발휘하는 공군

□ 유·무인항공기 통합운영으로 전장을 주도한다.

- 무인 정찰기 및 무인전투기 획득을 요구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전략적 활용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전쟁 양상을 바꾼다.

- 고정익전투기는 전투생존성 및 임무효과도 강화를 위해, 고기동 비행제어, 고성능 영상정보 획득, 저피탐대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유인고정익 전투기를 구비하고, 소요대수는 랜체스터법칙을 적용하되 무인항공기를 통합운영하는 개념하에서 소요대수를 산출한다.
- 소형·경량화 신개념 무인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무인 통합 작전 및 고도화된 무인자율 비행제어, 저피탐대전자전 능력을 구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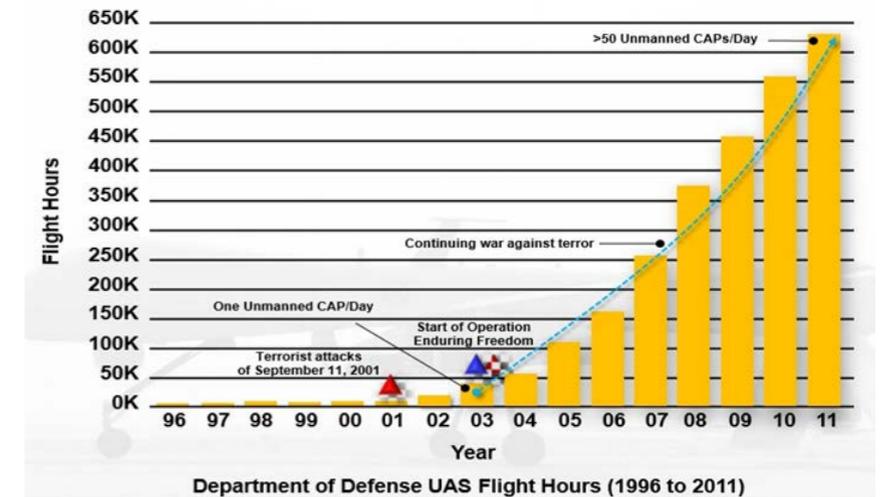
4. 맺는 말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군발전의 절호의 기회이다.

-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같은 전투로봇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첨단 무기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미래 무기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가 보다 미래

무기체계로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는 시대가 왔다.

- 이제 5차원 전쟁 수행을 위한 항공우주력을 증강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를 구상하고 새로운 미래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공군의 몫이다.
- 국방핵심기술을 통한 공군 주도의 항공우주무기체계 구축으로 공군의 새 모습을 그려야 한다.
 - 이를 국방 개혁 2.0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유인 전투기의 전력을 보호하고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적극 활용하는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유인전투기는 생존성이 높은 고성능 5·6세대 전투기급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와 복합전투체계를 이를 무인항공기의 활용전술이 필요하다.
 - 아울러 지상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영할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운영요원의 양성이 시급하다
 - 미군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미 2003년부터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도 “전투로봇과 군집드론(Warbots and Swarm Drones)”을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스텔스 유·무인 통합기/무인 정찰기/무인공격기를 ‘23년 까지 42,000대 무인항공기 전용기지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Stealthy cloud shadow attack drones(CH-5)*

□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교리를 통해 공군력 증강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 남북경제교류협력,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 미군 변화에 따른 전력공백을 공군 및 해군력 증강으로 충당하는 논리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국방영역의 확대,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 및 해군력 중심의 전력 증강을 위한 작전 교리를 수립해야 한다.
 - 기존의 3축체계인 감시타격체계(kill Chain: 정찰위성 및 항공정찰 감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선제타격 및 핵심지역 초토화)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 육군의 드론봇(Drone+Robot)부대 창설을 합참 및 국방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육군은 이미 유·무인 하이브리드 전장을 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다차원 초지능전(우주+공중+지상)을 수행하고, 유·무인 기동부대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다차원기동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다량다종의 군집드론 등의 입체 전력으로 적 작전체계 마비를 도모하고 있다
- 드론봇을 게임체인저로 전쟁수행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전장 생태계를 선도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회원기고

기념 소회

- ▶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_ 주창성
- ▶ 임관 50주년을 회고하며 _ 임정빈
- ▶ 성무대를 떠나며 _ 박세은
- ▶ 가입교 메추리 유정 _ 송기준
- ▶ 성무인 가을축제 축사 _ 윤학수

자랑스러운 공군·성무인

- ▶ F-35A 태극마크 달았다 _ 이문호
- ▶ 힘이 닿는 그날까지 _ 류홍규

역사·인물 탐방

- ▶ 연암 박지원을 기리며 _ 이희용
- ▶ 징비록을 말한다 _ 김동기

여행기

- ▶ 희망을 두고 온 나의 겨울여행 _ 박기호
- ▶ 제주도 여행의 여운 _ 백승웅

현역 코너

- ▶ 부부 비행대장 _ 김동우
- ▶ 방공통제인이 가야할 길 _ 유명미

성무인 단상

- ▶ 서라벌에서 온 편지 _ 이종학
- ▶ 내 삶의 보람과 자부심인 장식품 _ 정용진
- ▶ 백령도 공군부대장 시절 _ 김국창
- ▶ 죽음의 미래, 현충원을 생각한다 _ 이은봉

창작(시)

- ▶ 달마중 _ 구춘수
- ▶ 보라매 기상 _ 백문현
- ▶ 하늘을 날며 _ 강임구
- ▶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_ 이규석

우정기고

- ▶ 잃어버린 별 헤는 밤 _ 신향인
- ▶ 근대기 남성복에 나타난 군복의 영향요인 _ 한순자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주창성
16기, 동기회장

존경하는 황성진 교장님, 지휘관 참모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학교를 떠난 지 50년 만에 연어가 대양을 누비다 태어난 강줄기를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 공군인의 영원한 고향 공군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와서 사관생도 여러분들을 보니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의 싱그러움과 그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젊음 그리고 하늘을 찌를듯한 기개가 이 교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지금 생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동안 조국 영공 수호의 최전방에서 때로는 하늘에서 적을 감시하고 침투하는 적을 격파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기지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하면서 평생을 군인으로, 공군인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므로 모두 퇴역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

여러분은 졸업 후 길게는 40년 가까이 공군과 국방 분야에서 국가방위의 역군으로 일하

게 될 것 입니다. 그 길은 안이하거나 쾌적한 길은 아니지만 분명코 명예로운 길 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길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 하는 길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예나 지금이나 군인의 위상은 높고 군인의 명예는 존중 받는 것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공군 입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적과 대적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불덩어리 로켓폭탄 잔등에 올라타고 소나기처럼 퍼붓는 미사일 포화 사이를 누비는 광인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명예심으로 자랑스럽게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다 걸어 온 선배들 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험자의 변이 있겠지만 오늘 이 귀중한 기회를 빌어 감히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 합니다.

자랑스러운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꽃은 피면 시들고 생명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오늘 갖고 있던 것은 내일 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깨에 달리게 될 계급장은 소위가 됐던 장군이 됐던 국가에서 주는 공인인증 마크

입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공인인증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한이 다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 안 될 일을 한다면 큰 후회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일에는 나를 위하는 일과 남을 위하는 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졸장부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국가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존경 받는 대장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눈치 보느라고, 조심 하느라고, 당장 편 하려고 존경 받는 대장부의 길을 외면한다면 그보다 더 큰 후회는 없을 것 입니다. 생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명예를 중히 여기는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

우리는 군인 입니다. 군인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생관 입니다. 나는 어느 경우에 목숨을 내 놓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 해 두는 것이 사생관 입니다. 사생관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결정적 순간이 왔

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선배 고 임택순 대위를 아십니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사관학교 1기로 졸업한 임택순 중위는 1953년 3월 6일 열한번째 전투 출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351 고지 전투에서 F-51기로 근접지원 임무를 수행 중 적에 피격되자 적의 보급창으로 돌진하여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애기와 함께 장렬히 산화한 위국헌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사 전날 일기에 “생사 유명 부족론, 남아중용주대공” “삶과 죽음이 명예 달렸으니 논할 필요가 없다. 사나이 조용히 하늘을 향해 나아 가리라” 라고 기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군인을 기리기 위해 그의 동상을 이곳 모교에 세워놓고 수시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습니까? 사생관을 확립 하십시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생관을 확립 하십시오.

친애하는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

옛날 한 성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명예와 돈,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면 둘 다 잃는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물

론 명예로운 군인 입니다. 국방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적을 물리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면 족 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명예와 권력,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명예는 빼고 권력과 부만을 지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탄 이차는 거기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탄 이차는 명예로운 군인이라는 단일 목적지로 가는 차입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군인이 된다는 간단명료한 한 주인을 섬길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0년 만에 이 교정에 다시 돌아온 우리들을 군 최고의 의전 행사로 맞아주신 교장님 이하 지휘관 참모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손자 세대인 사랑스러운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의 앞날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후회 없는 삶”, “확실한 사생관을 바탕으로 한 거침없는 삶” 그리고 “명예로운 군인이라는 한 주인만 섬기는 참 군인의 삶”이 장대하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관 50주년을 회고하며...



임정빈
16기, 50주년 행사위원장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지 50년이 지났다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 실감하며 감회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평시에는 지난 세월의 의미를 일일이 되짚지 못하는데, 임관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의미가 남다름을 실감하며 16기 임관 50주년 행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공군사관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총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임을 늘 자랑스럽

게 생각하지만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에 54년 전 입교하여 4년간 이어진 생도생활입니다.

우리의 사관생도 생활은 1964년 2월 17일 꽤나 추웠던 날, 대방동 캠퍼스에 가입교하며 시작되어 1968년 2월 22일 임관하기까지 수많은 교육훈련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단련되고 소양을 갖춘 초급 정규사관이 되었으며 많은 은사 선배님들의 열정과 지도편달이 있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입교 당시에는 1954년 제정된 ‘무용(武勇)’

이라는 교훈이 1966년 ‘지덕용(智德勇)’으로 바뀌고 임관 후 1970년 한글화 정책에 따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지성과 덕성,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지닌 공군장교가 되어 목숨을 바쳐 조국과 영공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한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체질화하기 위하여 공사십훈과 명예구호를 매일 목청껏 외쳐 공사인으로서의 명예와 군사훈련 그리고 체력단련 중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매년 5월에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에서 출발하여 관악산을 돌파하는 훈련 중 사랑하는 동기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육사와 해사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생도 수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 자기를 희생했던 대표선수 생도들과 목이 터져라 외친 응원으로 연패했던 3사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도생활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가? 를 한 대학교수와 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어느 날, S대학교 K교수라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대며 후배라고 하는데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얼굴의 윤곽은 확실히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공사에서 가르치는 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과의 정교수였는데 어떻게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나 이었습니다. K교수의 답은 “저는 1학년 1학기를 끝으로 공사에서 퇴교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며 공군사관학교에서 6개월간 배우고 체득한 불굴의 의지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으며 공사생활 6개월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분야의 권위자이며 2009년도에 명예졸업자가 되었습니다.

꽃내기 초급 장교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임관 당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함께 시작된 현역 생활은 설렘과 두려움이 혼재된 비행훈련과 각 분야의 특기 교육을 받으며 이제 우리도 곧 전투에 투입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영공방위 최일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투 임무 완수를 위하여 알아야 할 지식들이 너무 많았지만 선배님

들의 열성어린 교육훈련으로 선배님들의 틈에 끼어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월남전이 한창이었고 육군과 해병대가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많은 전과와 함께 피도 흘렸지만 공군은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록 참전은 못하였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쉴 새 없는 도발로 매일 긴장 속에 살며 전투대기와 반복되는 훈련으로 영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은 6.25사변시 경비행기 몇 대와 2천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로 무장한 북괴공군과 수많은 희생을 하며 싸워야만 했던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선배님들과 우리 모두 한 시대의 주역이 되어 굳건히 영공을 지켰고 우리 사명 완수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에 늘 기억되는 것은 대선배님 K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계2차 대전 시 독일은 막강한 공군력으로 영국본토를 주야로 무차별 폭격하였지만 영국 공군의 파일럿들은 전세의 불리함과 최악의 여건에서 필사의 투혼을 발휘하여 독일 공군을 격퇴하였으며 당시 전쟁을 지휘한 처칠 수상은 ‘역사를 통틀어서 이토록 적은 수의 사람들(영국 공군 파일럿)에게 이토록 많

은 사람들(영국 국민)이 신세를 진적이 없다’고 칭송하였다. 공사인은 이런 신념과 각오로 공군 생활을 하여야 하며 이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

영일 없이 긴 세월을 지내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도 싸우면 이기는 강한 공군과 깨끗한 공군을 건설하는데 각 분야에서 일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군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를 이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흔적들은 아직도 공군의 많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선사역사 선환여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생각하고 우환이 생기기 전에 대비하라.” 순자의 대전략편에 나오는 말대로 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비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공군력 건설에 한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

쉬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했던 길, 현대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공군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일조하며 내일에 대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우리들의 임무를 끝내고 이상없이 후배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의 대학의 동기생들은 한 날 한 시에 한 문으로 들어와 한 문으로 나오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은 4년이라는 긴 여정을 한술밥을 먹으며 조국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하늘을 책임진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군의 각 분야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빛났던 긴 세월을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살다가 한 문으로 소위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엔 수많은 희로애락과 파노라마가 펼쳐졌어도 결국 우리 동기생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월 16일을 정기 동기생 모임일로 정하고 많은 동기생들이 모여 54년 전과 같은 생각으로 교류하며 취미에 따라 등산, 바둑, 골프, 테니스 동호회 모임을 갖고 동기생애를

다지고 있으며 지난날의 이야기꽃을 한없이 피웁니다.

하루는 J 동기생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독백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고 사회의 지인들도 많지만 사관학교 동기생만큼 한결 같이 진실하고 사삼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동기생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다.”

5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결눈질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와 우리의 일터였던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동기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하여 임무수행 중 장렬히 상화한 동기생들과 전역 후 운명을 달리한 동기생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준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50년 후배 66기가 임관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생도생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도수가 증가한 것은 공군의 규모가 커지고 임무의 막중함을 뜻하는 것이며, 학술 교육과 각종 훈련의 종류와 방법도 군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졌고 이와 함께 생도들의 사고의 틀도 매우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신입 생도들의 학술 성적은 매년 3군사관학교 중 가장 우수하며 입시 경쟁율도 가장 높다고 하니 선배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공군의 임무영역은 우주까지 확대되는데 따른 준비와 더욱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완벽히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구비,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지휘관리 능력을 공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인들이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소셜 미디어가 범람하고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공군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승화시키는 리더십은 조직력의 핵심이며 첨단 기술도 인간과 만나야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트러커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는 미국 군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공군사관학교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공군에서 꽃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출발은 ‘나는 누구이며,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와

‘접증하는 공군의 사명과 임무완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명약관화한 것은 시대가 변하였어도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선배 공사인들이 닦아온 터전위에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로운 후배들이 대를 이어 더욱 정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하고 외부의 어떠한 도전도 역지할 수 있는 힘이 공군에 있고 이 막중한 임무를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뀌며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명예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름다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신념의 공사인이 되기를 다시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무대를 떠나며



소위 박세은
66기

모든 것이 서툴기만 했던 66기 예비생도들이 생도 생활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멋진 장교로 탈바꿈한 2018년 3월 8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4년간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 함께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모자를 던지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생도생활 4년 중 가장 기뻐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이라 말할 것이다. 조금 더 생도생활을 즐겁게 했었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었다면 졸업식 날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었을까. 생도대에 발을 들이고 처음 들은 말이 ‘메추

리! 꼭 졸업해라! 난 드디어 떠난다.’ 였다. 그 당시 졸업하는 기수였던 62기 선배님들의 말씀이었다. 막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던 내 입장에서 졸업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그 당시에는 졸업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만들어준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어떠한 목표도 없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만 정작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를 스스로 깨닫기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69기 생도들의 생활지도 대대장 생도 지원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는 많은 후배 생도들이 4년 중 가장 기뻐던 날이 언제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졸업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생도 생활을 하길 바란다.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이는 해방이라는 기쁨을 누리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선배님들의 걱정 어린 조언이었을 것이다. 나는 덧붙여서 후배들에게 졸업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생도생활 4년은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이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스스로에게 자신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내가 사관학교의 명성에 흠을 남기지 않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이 공군의 주역이 되어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들도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항상 강조했듯 당당하고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무대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기, 선후배들이 없었다면 4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4년간 나를 키워준 학교에 감사하다. 4년 동안 학교가 나에게 공군 장교로서 요구한 많은 일들이 가끔 힘겹기도 했지만 600여명의 생도들을 키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남는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생도들을 위해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준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아래에서 희생해야 한다. 내 능력이 공군에 쓸모 있을 때까지, 공군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의무를 다할 것이다. ✎

가입교 메추리 유정



송기준
25기

하늘은 높아 보이지만 열린 안개가 잠시 추위를 주춤하게 하던 겨울 어느 아침 저마다 푸른 꿈을 안고 선택을 받아 모여 든다.

각양각색의 더벅머리와 알록달록한 복장으로 가방을 옆에 차거나 어깨에 메고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정문 공터에 이른 아침부터 하나 둘 모여 든다.

인사 관련자가 합격증을 확인하고 인원을 추스른 뒤에, 긴 칼을 찬 멋진 제복의 메추리 대대장 생도의 인솔 하에 흐트러진 대오를 이루어 제법 긴장된 마음을 스스로 달래면서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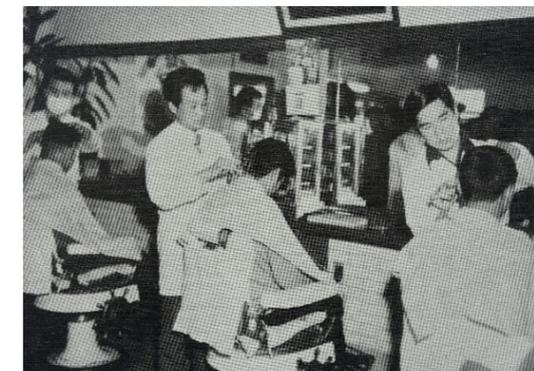
망의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진군을 시작한다.
도로 양옆에 늘어선 많은 선배들의 도열과 환영 박수 그리고 환성 소리에 잠시 우쭐댄다. 우뚝 솟아 하늘과 우주를 향하여 나갈 것 같은 성무탑을 우리러보며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훈육관의 호명에 의하여 편대를 가르고 내무반에 대기시키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민간인의 허물을 벗겨버리고자 이발소에 집어넣고 머리털을 바리칸으로 무차별 밀어 제껴버린다. 더부룩하게 혹은 여자 삼단 머리처럼 기른 머리가 흰 가운을 스쳐지나 낙화유수처럼 바닥



에 툭툭 떨어져 수북이 쌓인다. 거울에 맺혀진 허물을 벗는 순간들, 출가하는 비구니의 마음처럼 우리의 한쪽 가슴을 아리하게 도려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저마다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알 수 없는 미묘함에 젖는다. 어찌 그 순간을 호랑나비가 허물을 벗는 화려한 ‘탈피 환희’라고 아니할 수 있으리오!

배정된 내무반에 들어가니 침대에 늘어놓은 개인 지급품들, ‘와! 이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들춰보며 ‘이것이 팬티! 런닝구, 잠옷, 전투복, 이것은 따뜻한 내복인데! 아니 생도도 내복이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도 가져 본다. 어린마음에 그렇게 신어보고 싶었던 워커, ‘야! 멋있구나. 드디어 나도 워커 한번 신어 보는구나!’ 어릴 적 군대 간 삼촌이 집에 왔을 때 발 두개가 들어가고도 남았던 큰 워커를 질질 끌고 다니며 팬스



레 자랑하며 우쭐대었던 그 워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사하게 반짝 거렸던 워커의 코빼기는 낮은 포복 덕분에 새 워커가 지급되었던 일 년인가 얼마이던가? 기억도 없을 때까지 완전히 까져 아무리 구두약을 짓이겨 쳐도 반짝이질 않지만 그 워커 덕분에 모두들 굉장한 슈샤인 보이의 직업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기술을 습득하고야 만다.

바늘, 실, 구두약, 양말 등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윗면에 ‘사 25 00’이라고 칼로 파서 주기를 하였던 솔표 옷술, 그리고 노트, 칫솔, 치약. 뭐 여하튼 많이 주니 고맙고 흐뭇하구나!

‘어! 전투복과 전투모가 크구나. 몸과 발이 맞추어 줘야지 뭐!’ 대부분 전투복의 허리 사이즈는 대략 3인치-5인치가 커 핵대로 둘러메고 남은 허리춤을 겹쳐서 감싸야 한다. 큰 모자를 폭 눌러 쓰고 서로를 쳐다보며 허술한 인

민군 같은 모습에 계면적은 웃음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물품이 침대 한 칸에 유유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를 생도 생활 내내 모질게 괴롭히고 모두의 눈물과 땀이 절어든 그 이름 각개 뺨스. 누런 밀가루 부대로 만든 것 같은 입기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뺨스 대응으로도 못 입는 오로지 추운 겨울 옥상에서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별 쓸모없을 것 같은 무명천으로 만들어진 이 뺨스가 피나는 개인의 역사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민간인 혹은 갓 고3의 애송이 때를 외모에서부터 벗어버리고 푸른 마음을 더욱더 다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군인이 된다. 모두들 군복 차림으로 3병동과 5병동에 편대별로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 시간 부, “너희들을 이제부터 일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될 때까지 ‘메추리’라고 부른다.



어느 누가 부르면 하나 ‘네. ○○○ 메추리’하고 관등 성명을 무조건 크게 대어야 한다. 그리고 메추리니까 언제든지 뛰어서 다녀야하고 직각 식사를 하여야 한다.”

드디어 메추리 선언을 언도 받는다. 메추리가 꿩 새끼라고 하던데 장차 보라매가 되어 창공을 누비겠지. 여하튼 지금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쏘냐! ‘그까짓거 뭐 하면 되겠지’라는 자신감은 메추리 선언서에서 얻게 된 3개의 멍에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 많던 물건에 모두 자기의 이름을 써 붙여야 한다. 주기라고 하는데 종류도 많았으나 어찌하든 ‘혼잡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의 소지를 명백히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없는 재주 있는 재주를 다하고 심지어 티셔츠, 뺨스에도 수를 놓는다. 꼼꼼히 잘 놓는 메추리는 칭찬도 받지만 원래 천성적인 덜렁이들과 기술이 없는 메추리는 치밀한 장인(匠人) 같은 전우들을 부러워한다. ‘형, 학, 현’과 같은 글자 수놓기가 제일 어렵고 손도 많이 간다. 대신 직



선으로 긋는 ‘ㄱ, ㄴ, ㄷ, ㅌ, ㅍ’ 등의 글자가 수놓기에 편하고 간단하다.

첫 날 오후 연병장에 모여 가벼운 경례 동작부터 기본연습을 시작하고, 오후 5시 반이 되어 석식을 하기위하여 편대별 대오를 이루어 식당으로 행진한다. 점심도 그러하였지만 수백 명의 밥을 한꺼번에 해야 하니 일반 밥솥으로 어렵이 없어 스팀으로 밥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팀으로 짓는 밥은 찰기도 없고 흐물흐물하며 냄새도 소여물 유사하게 나곤하여 상당수의 메추리들은 점심과 저녁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날 3번째 끼니부터는 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송두리째 깨어버린다. 두 끼나 배에 들어간 것이 별로 없기에 밤사이 내내 울려 퍼진 “꾸루룩!” 소리는 설 잠을 자게 만든다. 그날 아침 이후로 이들을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 식탐꾼으로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뺨’자를 넣은 별명을 가지게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훈련을 받는 모든 장정이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실제 배도 고프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생각된다.

입영하여 맞이한 첫날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아득하지만 어찌 되었

든 육신은 누런빛이 감도는 광목을 사이로 누워있다. 달빛에 아스라이 신림동 골짜기의 먼산자락이 실루엣을 드러내고, 남아도는 창창한 빛은 나무반 창문을 뚜렷이 비추는데 2층 침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내무지도 생도의 얼굴과 신발 소리가 적막을 대신하고 있다.

‘조국과 생도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일장 연설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의 말이 아련해지면서 우리는 아침 기상나팔 소리를 바로 듣게 된다.

‘아니 이게 웬 놈의 난리란 말이나? 이 아침부터!’ 어제까지 부드럽고 자상하게 안내하고 일러 주던 그 분들이 드디어 야생의 본성을 드러낸다. 나팔 소리와 동시에 문짝을 걷어차고 때리며 시끌벅적하게 허둥대는 메추리를 내몬다.

“선착순 점호! 10등 앞에 들지 못하는 메추리는 연병장을 한 바퀴 돌아온다!”

“집합! 이분 전, 일본 전, 삼십초 전 일본 전... 10초전, 9초 반 전, 8초 반의반전!”

‘그놈의 시계는 제멋대로 시계인가 보다!’ 혼비백산이 되어 신발과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메추리들은 우르르 연병장 사열대 밑으로 뛰쳐나간다. 앞서지는 놈, 계단에 나뒹구는 놈도 생긴다. 몇 번의 선착순과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수십 번 한 뒤에야 모두 모여 인원을 점

검한다.

“차려-엇, 열중- 쉬엇!”을 반복하는 메추리 대대장 생도의 구령이 아련히 들려온다. 길고 호소력 있는 산조식의 구령이 처음 듣는 군대 생도의 구령이라 친근감이 들기도 한다. 인원 점검 후에 시작되는 각자 고향을 향하여 돌아 서서 부모님께 묵념하는 시간에는 흐느껴 우는 메추리도 있고 대부분 눈가가 잔잔히 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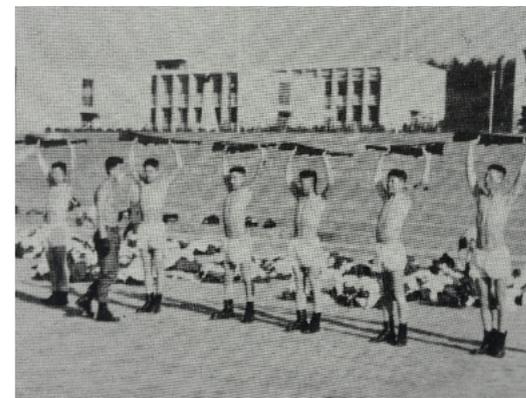
자! 이제 완전한 군인이 되려면 강인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각보행, 제식훈련, 총검술, 각개 훈련, 분대, 소대 전술...고난도 훈련까지 연일 쏟아져 나오는 훈련들, 그러나 정규 군사 훈련은 우리에게 그다지 힘이 들지는 않고 한편으론 즐겁고 재미까지 있어 할 만하였으나 추위와 배고픔, 졸림, 선착순과 기합, 그리고 운동 시합 패배의 후유증 등이 더할 나위없는 고통을 가져온다.

선착순 잘하는 메추리가 어느 집단이든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미기까지 하였으나, 그렇다고 선착순 일등을 하였다고 그냥 편하게 세워 놓았던 것은 아니고 무슨 트집을 잡아 푸시 업을 시키고 옆드려뺨쳐도 시킨다. 겨울철 얼어붙은 맨땅을 장갑도 없

이 짚고 옆드려 있으니 얼마나 손이 시릴까! 차라리 꼴찌를 유지하면서 수십 번이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돌아오는 게 나았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세월아 세월아’하던 메추리도 있다. 매번 등수 안에 못 들어 여러 번 선착순을 다시 돌던 그 메추리, 이번에는 요령을 짚싸게 펼치는데! 선착순 끝을 세어 보고는 다음 기회를 노려 아예 뒤로 쳐졌다가 선착순이 다시 되돌려지면 그때서야 스포트를 하여 등수 안에 들던 통뻥맨! 그런데 선착순이 그 이후로 반복되지 않고 끝났다는데 그를 맥 빠지게 한다.

어느 무시무시하게 추운 날, 매서운 한파가 찬바람과 함께 한반도를 몰아쳐 노출된 것은 뽕뽕 얼어붙게 만드는 일명 대륙성 고기압이 강하게 내습하던 날이었다. 내복 한 벌로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메추리들을 오돌 오돌 떨리게 만든다. 따스한 321강당 혹은 5병동 학과장에서 이론교육을 할 만하지만 무슨 심사인지 아침 일 교시부터 연병장 수업을 그대로 진행시킨다.

덜덜 떨며 제식 훈련을 받고 있는 메추리 집단을 바라보는 생도대 대대장, 편대장 그들은 메추리의 털을 더 자라게 만들 욕심을 가진 보



당시 실제 사진) 기온 -15도, 바람 북서풍 20KTS (체감온도 -25도)

라매들이다. 지도 생도와 메추리 등 모든 훈련 참가자들에게 명한다.

“메추리들은 전원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구보를 실시한다.”

이날은 메추리 무리 모두 긴장을 하여 추운 지도 모르고 무거운 M-1 소총을 들고 뚫다. 맨손은 마비가 된다. 발에 상처를 입거나 몸이 아픈 메추리는 구보에 열의를 시켰으나 연병장 계단 밑에서 M-1소총을 들고 벌을 서야만 한다. 이 추운 날씨에 차라리 구보를 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살을 에는 바람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간다. 지도 생도들도 옷을 벗고 같이 구보를 한다.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저 앞사람 발꿈치만 쳐다 보고 구령에 맞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연병장 수십 바퀴를 돌며 한 시간여

구보 후 다시 옷을 입고 잠시 휴식을 취하니 추위가 가고 몸에 열기가 생긴다. 역시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던가! 그날 감기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고 추위에 대한 대담함도 가지게 된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육체노동을 하다보면 열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꾸루룩” 소리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준다. 바로 그 때쯤 어김없이 바람에 뭉쳐 짓쳐들어오는 라면 냄새! 정문 바로 옆에 덩그러니 라면을 제조하는 농심 공장이 들어서 냄새를 만들어 성무대로 퍼 넘기고 있다. 인간의 한계점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어쩐지! 거기에서 생도 식당의 밥 짓는 냄새는 텅 빈 뱃속과 코의 후각을 휘저어 놓는다. 고된 육체적 한계는 극복을 할 수 있어도 후각을 자극하는 그 고문은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하리라. 어찌 그렇게 한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한지... 드디어 오전 4시간이 끝나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다.

편대별 3열 종대로 팔을 90도로 올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행군을 하여 식당 입구 옆에 도착한다. 식당입장을 위하여 대기할 후에 직각보행과 직각으로 팔을 휘두르며 일 편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여 자기 식탁 앞에서 서 있다. 나머지 편대 메추리들은 차례가 되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일 편대 첫 번 주자가 입장을 할 바로 그 시점부터 식당 안에서는 유명한 기생가가 울려 나오기 시작한다. 이 음악이 몇 박자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박자에 맞추어 제자리 걸음이나 행진을 하면서 입장을 하게 되면, 한 소절 쯤 흐른 뒤에는 걷는 템포와 박자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한편으론 음산함까지 느꼈던 그 음악, 그 이름 하여 프라우드맨, 서부 활극에 나오는 정의의 사자가 악당들을 징벌할 때에 쏟아져 나오는 음악이다. 제목이 무엇인지 기생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식당만 들어가면 흘러나오던 이 음악. '생도들은 이런 음악만 듣고 사는가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며 대부분의 메추리들은 그저 흘러나오는 곡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처음 음악을 듣던 순간부터 잊을 수

도 잊혀지지도 않는 무의식의 문을 넘어 영혼에 물들여진 나의 음악, 나의 선율이 되어 버린다!

식사 시간은 제일 반갑고 기다리게 되는 시간중 하나이다. 식사 배식 메추리가 되면 마음이 든든하고 신이 난다. 내 밥은 꼭꼭 눌러서 푸고 밥통에 여분의 밥을 남겨 놓는다. 재빨리 먹고 나서 남겨진 밥을 나의 밥그릇에 다시 가득 담으리라. 하지만 이게 왜 날벼락이란 말인가.

“메추리 전원 일어 셋! 식탁을 시계 방향으로 4좌석 이동한다, 이동!”

또한 밥을 남겨 놓고 푸면 그 즉시 제재가 따른다. 식사 시간은 전쟁 그 자체다.

된장 국물에 찌든 냅킨을 목에 두르고, 이름 하여 직각 식사를 하는데, 처음 얼마간은 손이 떨려 제대로 팔을 올리기도 거북하고, 직각이 안되면 식사를 중단 시키고 연습을 시키며, 끊임없는 감시·감독과 지적으로 마음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식탐을 부리는 장면이 목격되면 일으켜 세워 “배부른 돼지 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를 열 번 반복시키고 밥알을 흘리거나 반찬을 낭비하는 장면이 발견되면 “밥 한 알은 농부의 피와 땀이다” 라든지 가지각색의 기묘한 구호와 말귀를 만들어

밥 먹다 말고 일어서서 크게 외쳐야하는 어찌 보면 창피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정신과 비위를 증진 시키는 훈련을 시킨다.

토요일 점심에 나오는 라면은 불어 터져도 맛이 있고, 토요일 저녁은 생도들의 외출이 있어 식사가 남는 경우가 많아 메추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시간이 있어 기다려지는 날, 기상 시간이 한 시간 늦어 모처럼 늦잠까지 잘 수 있는 날, 생도 생활 내내 토요일은 우리에게 퍽이나 정답고 행복한 날이 된다.

일요일은 종교 행사 이후, 오후에는 편대별 구기 시합이 있다.

열심히 응원하고 뛰었던만 결과는 패배, 패배의 결과는 참혹함 그대로이다.

“군인이 작전상 후퇴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라는 이유로 가시덤불을 기어 다니고 난타라고 표현해야 될 피비린내의 일요일이 된다.

그래도 기다려지던 일요일, 게임에 이기면 ‘삼립빵’이란 푸짐한 상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생도 회관의 빵 맛에 길들여지고 콜라 한 병의 달콤함을 잊지 못한다.

어느 휘영청 달 밝은 날 소등 후 느닷없는 옥상 집합!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사적으로 후다닥 뛰어 올라간다. 밝은 달의 음기를 흡입하고 간단한 집합 소동을 벌인 후 “앞으로 3초 이내에 모두 침대에 들어가 취침자세를 취하라!”는 지시와 함께 모두가 우르르 내무반으로 몰려 들어가 간단히 옷을 입고 저마다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발에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얼른 손으로 잡아 보니 “빠시락” 거리는 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때 그 맛! 모두들 그 이후로 빵맛을 내면 속에 깊이깊이 새겨 놓고 스스로 포로가 되어버린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육체의 고달픔은 없어지지만 다른 것과 싸워야 한다. 321강당!

땀 젖은 메추리 냄새로 가득 차 버린 강당에는 강의가 무르익으면서 이에 비례하여 메추리의 눈꺼풀도 내려온다. 천근만근이 된 눈꺼풀의 무게를 느껴보긴 처음이다. 힘겨운 훈련을 받는 상황에서 졸지 않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리라. 정신으로만 견디라는 상관들의 말 자체의 모순성을 느끼던 321강당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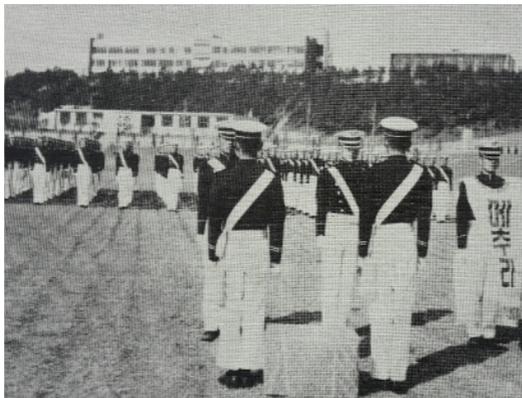
훈련이 끝나기 하루 전날 칠혹 같은 어두운 밤, 선배들의 감쪽같은 속임수에 골탕을 잔뜩 먹은 후 식당으로 원인 모르게 끌려간다. 그런



데 끌려간 그곳에는 산더미 같이 떡이 쌓여 있다. 모두들 마음속에 환희를 부른다. ‘떡이란 것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날, 배가 몸을 주체할 수 없으리만큼 가득 불러 올랐을 때 드디어 야밤의 광대 행사에 들어간다.

많이 먹어 배탈이 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포화 상태의 뱃속도 아무 탈 없이 하룻밤이 지난다.

그름이 지나고 초승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 드디어 척신을 하여 나온 예복을 입어보게 된다. 선배들의 도움으로 노란 수술과 벨트를 손으로 꿰매어 달고 흰 바지와 하얀 모자 그리고 하얀 백구두를 신어 본다. 멋있다! 그래 잘 생긴 메추리 스마트하다. 대한민국의 간성이구나! 오늘은 내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만장하신 부모, 형제,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행진을



하고 군인이 되었음을, 늠름한 조국을 지키는 사나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다!

신고와 입교식이 끝나고 각자 부모님을 찾아 당당히 당신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사나이가 되었음을 신고할 때 어느새 모든 이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져 있다. 이날의 자랑스러움과 대견스러워하심을 그리고 개인적인 감격을 어찌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리오!

모두들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시련과 과정을 잘 견디어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강철 같은 군인이 되어 인간으로서 견디어 낼 수 있는 한계와 역량도 넓혔으며, 어떠한 고난도 능히 뛰어 넘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게 된다.

메추리 모두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지는 한 달, 달력상으로는 28일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 달이었지만, 한 조각의 연철이 능숙한 대장장이의 손마디에서 버려져 어떠한 제품도 만들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한 강철이 된다.

군사관학교(현 보라매공원)에서 초입 과정을 통과하였고, 제 2의 새로운 관문에 도전하게 된다. 

공군사관학교 제 25기 가입교 인원 중 10명이 탈락하고, 훈련을 잘 받은 민간인이 마침내 메추리가 된다. 그들은 대방동에 소재하는 공

1973년 2월 28일

성무인 가을축제 축사



윤학수
25기, 총동창회장

우리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생도 여러분,

오늘 낯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인들의 가을축제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선후배 동창회원님들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 관계관들과 내빈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25기 윤학수 예 비역 중장입니다.

삼라만상이 울긋불긋 제 멋을 마음껏 뽐내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성무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곳 성무대에서 선배와 후배들이

60여 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하나가 되는 홈커밍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일 만 성무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행사를 색다른 모습의 뜻깊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학교장 황성진 장군과 부교장 이강희 장군 이하 지휘관 참모와 생도 여러분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생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 준 오늘이 홈커밍 행사가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고, 공사인으로서의 추억을 공유하며, 나아가 선.후배 동문 간에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이는 가슴 뿌듯한 한 마당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및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공사 총동창회의 일 년 사업 중 가장 큰 행사인 이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행사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작년까지는 사관학교 성무제와 연계하여 볼거리도 풍성하고, 생도들과 어울리기도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성무제가 봄철에 개최되는 관계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난제는 우리 공군의 자랑 Black Eagles의 에어쇼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할 텐데 저는 우리끼리 즐기기 위해 상당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더구나 저고도 비행이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후배 조종사들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에어쇼를 갖는다는 것에 나름 심각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게다가 요즘에는 소음공해 문제를 들어 지역 주민들과 언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관계자들과 심층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이 에어쇼는 취소하고, 우리 선배들과 생도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색다른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억울해하지 말라고 에어쇼가 불가능한 날씨를 주셔서 그나마 위안을 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행사를 만들기 위해 사관학교 관계관들과 생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작년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관학교 군악대와 생도들의 공연도 즐기고, 비행기 Simulator도 타보고 사관학교의 새로운 시설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비행기)까지 관람하는 동시에, 청남대에서 열리고 있는 국화 전시회를 통해 이 가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교장 황성진 장군과 지휘관 참모,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배 생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66기, 67기, 68기, 69기 사관생도 여러분!

나는 오래 전부터 내게 만약 후배들 앞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배들이 평생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갈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내 생애 최초로 공군사관학교 선배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1800년대 중반을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교육자 William Clark가 일본 홋카이도 대학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면서 “Boy, Be Ambitious!”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일본 사회에 정신적으로 큰 힘을 부여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당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 정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우수한 엘리트들의 집합체인 우리 공사 생도들에게 같은 형태의 문장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Cadets, Be the Best!”
“생도들이여, 최고가 되어라!”

나는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66, 67, 68, 69기 생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짧은 문장을 늘 가슴에 품고, 자주 반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생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프로펠러 정찰기 몇 대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에 미국보다 먼저 공군을 독립시키신 초창기 선배님들

의 혜안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와 전술.전기로 무장한 첨단 전력의 막강한 공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실로 눈부신 발전이고 경이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발전은 바로 여기 단상에 계신 여러분의 선배들께서 이룬 업적이기에, 이번에는 우리 후배 생도들이 선배님들께 뜨거운 존경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생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잘 아다시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내.외적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력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 국가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힘과 수단이 우리 공군 뿐이기에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국가 방위의 비중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군 전체가 최고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우수한 공중 지휘관의 양성」 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나는 감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설립 목적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의 목표라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그리고 우리 공군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보다 훨씬 큰 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도들이 명심할 것은 사관학교에서의 교육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길잡이일 뿐, 여러분 개인의 능력은 오히려 졸업 후 여러분 스스로 개발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나라에서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을 갖고 끝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공군의 미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교의 교훈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교훈 앞에 「평생을」 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가슴에 아로새기고 살아 갈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생을 배우고 익혀서” 조국의 방위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공군,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공군이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생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40년을 공군인으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선배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었던 아쉬움을 여러분 후배들이 기필코 이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슴 깊이 이 문장을 새겨 주십시오.

“생도들이여, 최고가 되어라!”
“Cadets, Be the Best!”

감사합니다. 

Smart & Dependable Partner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에너지

첨단 디지털 방산기술로 대한민국과 함께! 멀리!
한화시스템



Radar

Electro Optics

C4I



Naval CMS

Avionics

Space

LIG넥스원, 볼륨을 높여라

1976년 설립된 LIG넥스원은 육·해·공군에서 운용되는 최첨단 국산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세계 수준의 R&D 역량과 40여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F-35A 태극마크 달았다



이문호
17기

한국 도입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1호기

우리나라가 7조3천억 원여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입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태극기 마크를 달고 오는 3월 28일 출고 행사를 가졌다.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금년 내 6대가 인수되어 공군에서 선발한 조종사가 미국의 Luke 기지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내년 초에 국내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4년 후인 2021년 계획된 40대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F-35A 출고는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최첨단 항전장비로 무장된 전투기로 우리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 될 것이다. 특히, F-35A 스텔스기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 하에서 향후 40여년 이상 조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주변국위협에도 대비 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레이더의 피 탐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의 전

쟁지휘부, 핵시설, 탄도미사일 등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적기를 먼저 보고, 먼저 발사하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은 동북아의 제공권확보를 위해 현재 스텔스 전투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강국 부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42대의 F-35A를 구매하여 이중 1대가 이미 배치되어 조종사 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중 9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F-35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해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첫 스텔스 전투기 J-20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으며 산둥 반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지난 1월 9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J-20은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최신 항법설비, 초음속 순항 속도 등에서 중국 공군의 현재 주력 기종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해 중국 서부내륙에서 진행된 홍젠 군사훈련에선 J-10, J-11, Su-20을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10대 0

의 완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탁월한 제공권 확보... Kill-Chain 핵심 전력

어느 때 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F-35A는 대표적인 다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는 스텔스기능 뿐만 아니라 최첨단 항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첨단 다중의 스펙트럼 센서 들을 통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하였고, 전장 내의 모든 무기체계 간 네트워크 중심작전으로 지휘통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 들을 통해 정보가 융합되어 조종사가 전장(戰場)정보를 한 눈에 인식함으로써 탁월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F-35의 표준 내부 무장은 25mm기관총, AIM-120암람, 공대공 미사일2기, 지휘소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GBU31 JDAM 유도탄(2000파운드)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2200km 이며 최대속도 마하 1.6 이다.

이와 같이 F-35A는 적의 전략목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적에게 심

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어 가공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 할 수 없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 마다 미 공군의 스텔스기에 의존해왔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독도, 이어도 등 국지적 충돌 위협이 큰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차기전투기사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본 사업은 우리 공군이 40여년 사용한 노후 항공기 도태 전력을 보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 군이 제기한 스텔스 기능을 충족할 경쟁 기종이 없어 가격 경쟁구도를 위해 2차레나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간의 경쟁 구도가 이뤄 졌고, 방사청은 종합 평가를 하기도 전에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 F-15SE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인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를 가격이 싸

다는 이유로 단일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종 선정에 소요군인 공군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사청과 재정경제부의 주장인 성능 보다는 값이 싸다는 경제 논리만 있었다. 전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들에 의해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가 선정된 꼴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의 강한 문제 제기와 이를 크게 이슈화하여 여론을 주도한 언론인, 그리고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요 군이 제기했던 스텔스기 요구 성능을 충족한 F-35A를 60대에서 40대로 축소하여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전력화 시기는 더욱 늦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현 안보상황 과 향후 전개될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스텔스기인 F-35A 선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비용 대 효과를 도외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체도 없는 F-15SE가 선정하였다면, 전력화가 가능했는지 의문이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스텔스기를 확보한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 대응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과거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10 \$ 수준이었던 1969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당시 최신예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 F-4D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군의 베트남전 3차 파병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 군원 1억불 중 64%인 6400만 불을 들여 도입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욱 놀라운 결정이었다. 당시 북한공군은 우리 공군보다 양적, 질적 면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빈번하게 공중도발을 자행하고 있었으나 팬텀기 도입이후 북한의 공중도발은 일체 없었다. 1974년에는 국민들의 방위성금으로 F-4D를 추가 구매하여 41년간 영공수호의 소임을 다하고 지난 2010년 퇴역 한바 있다. 우리 경제관료들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군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힘을 보태준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무기체계 선정에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를 운영할 소요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기대하며,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요 군과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당당하게 주장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또한,

국방부는 공군에서 노후 되어 도태된 전투기를 보충하기 위해 제기했던 20대의 스텔스기를 조속히 도입하길 기대한다.

북한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위안을 주는 역사적인 F-35A기 출고행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참석자 격도 낮추고, 국내 취재진 참석도 취소했다니 유감이다. 군에서 실시하는 연합 및 합동훈련, 무기체계 개발 및 증강, 무력시위 등은 적의 도발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과시해야 한다. 또한, 안보 문제만은 여도 야도, 언론도 선진국처럼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면서 통일을 여는 첩경이다. ☑

힘이 달는 그날까지



류홍규
25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지도 어언 40년이 넘었다.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전역을 1년 앞두고 있을 때 쯤, 어느 후배가 내게 물었던 말이 기억난다.

“선배님은 전역하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는 그때 큰 고민 없이 답했다.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중후반을 지배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게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 본다. 2008년 전역을

앞두고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름 동안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는데, 내가 절단 장애인들의 멘토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다. 군인 신분으로 내심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승낙했다.

그렇게 ‘2008 히말라야 희망원정대’ 36명의 단장 직분을 맡았고, 우리는 네팔로 향했다. 평소에 운동을 자주 했던 터라 기본 체력은 자신 있었지만 목표는 해발 6,846m 나야캥가봉으로 쉽지 않았다.



2008 히말라야 희망 원정대



캄보디아 의료 봉사

사전에 청계산에서 서너 차례 사전 훈련도 하였지만 고산증은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걱정이 들었고, 30명이 넘는 대원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한다는 책임감도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이 기우였던 것인지, 베이스캠프를 지나 해발 4,900m의 캠프1 까지 3/4의 인원이 등반에 성공했다. 10년만의 폭설로 정상에는 오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멘토로서 절단 장애인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힘든 산행에서의 동료의식이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도와주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봉사활동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들의 산행은 2008년 4월 KBS ‘산’ 프

로에 방영되었고,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다. 내 배낭 뒤에 공군과 공사 깃발을 나부끼었다면 더욱 큰 홍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히말라야 등반 이후 전역 3개월 전부터 OFF하여 자원봉사단체 ‘사랑의 밥차’의 팀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장애인과 어려우신 분들 곁에서 따뜻한 밥 한끼를 해드리며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민간인이 되고 나서 밥차 봉사가 없는 시간에도 무언가 더 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찾았고, 그해 10월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센터의 시각장애인 보조 활동, 제기동 노숙자 소망의 집 식사 봉사, 봉천동 나눔의 집 봉사 등 네 곳에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봉사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한해 봉사시간이 1,000시간을 넘겼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200일 이상을 봉사한 셈이다. 나의 비행시간이 3,730시간인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어느덧 봉사시간이 7,322시간이 넘어서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군데를 봉사하다보니 나름 튼튼했다고 자부했던 내 몸도 조금은 지쳐갔다. 이리다간 나중에 병원 갈 여유도 없을 것 같아 두 곳으로 줄였다. 봉사 5년차였다. 줄인 만큼 집중적으로 두 곳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봉사시간에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3년 전에는 사랑의 밥차팀과 분당 서울대 병원이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는데 조그마한 체육관에서 병원가기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모셨다. 36도에 육박하는 실내온도 속에서 일주일 동안 땀범벅인 채로 고생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실로암 봉사는 대략 8시에 집을 나와 저녁 6시쯤 돌아간다.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나름 회사 잘 다니는 회사원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론 돈을 벌기는커녕 용돈 아껴서 기부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하는 등 돈 씹씹이가 크다.

봉사 시작한지 3년이 지나서는 사랑의 밥차 대표로 2~3년간 전국을 누비고 다녔고, 이제

시각장애인 어르신들과는 10년 넘게 출퇴근을 시켜드리며 나름 재롱을 떨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를 준비해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드리면 박장대소하며 웃어주신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웃음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꼭두새벽부터 막차가 끊길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봉사를 여러 해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3년에 걸쳐 통신강의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땀다.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여기서 SNS에 나온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학위에는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밥 잘 사주는 밥사, 또 그 위에는 항상 고마워할 줄 아는 감사가 있으며 가장 위의 학위가 봉사란다. 그래서 감히 이런 제안을 해본다. 1년에 하루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 한번 봉사해 보시라고... 봉사 후에 집을 향할 때 무언가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고, 또 머리와 가슴속에는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뿌듯함에 행복의 엔돌핀이 마구마구 생기리라 믿는다. 봉사 강추!!! 혹시나 굶은 일 못하는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걱정마시라. 직접 봉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의 기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동안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 복지관 최우수 봉사자상, 구청장 최우수 봉사자상 등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현역 때 한 번 받았기에 사양하고 다른 봉사자분들께 그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내게 무엇보다 영광이었던 것은 바로 2016년 자랑스런 공사인 상을 수상한 것이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질 하고 다녔지만, 한해 지나고 보니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조용히 봉사만 하고 있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봉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봉사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에 주변 지인들과도 이런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다.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한마디 더하자면... 우리 여친(나는 아내를 이렇게 부른다)도 호스피스 봉사 수 년차다.

부창부수란 말이 딱 어울리는 부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다.

이제 60 중반을 넘어서니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 당신은 언제까지 봉사활동을 하겠소? 나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힘이 닿는 그날까지~”
그러다 보면 수 년 내에 봉사시간이 1만 시간을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틈틈이 건강도 잘 챙겨야겠다. 잊을 뻔 했는데, 나는 봉사 갈 때 매번 ‘BLACK EAGLES’ 모자를 쓰고 간다.

나로 하여금 하늘을 꿈꾸게 만든 공군사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공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다.

누군가 모자를 보고 물어오면 언제든지 또렷하게 이야기한다. 나는 공군 전투조종사 이었기에 이 모자와 함께 한다고.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다들 골프 치러 가고 노느라 바쁜데, 예비역 장성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나고? 오히려 내가 되묻는다.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아침도 여전히 발걸음이 가볍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기에... 연암 박지원을 기리며



이희용
22기

「청나라 황제에게 영조의 부고(1776년)를 전하러 북경에 갔다가 돌아가던 조선 사신 일행이 산해관 부근의 어느 마을에 묵던 밤, 공금 천냥을 잃어버려 인근이 발각 뒤집혔다.

일행은 지방 관리에게 사건을 알리고 지방 관리는 계통을 밟아 북경에 보고하게 된 바 건륭황제는 그 즉시 해당지역의 관부(官府)로 하여금 천냥을 물어주도록 하명하고 형제국가의 손님 일행에게 낭패를 끼친 그 지역 관리들을 모조리 파직해버렸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 색출을 위해 수없는 사람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너댓명의 목이 날아가

기도 하였다.」

1780년 건륭황제 칠순 축하연에 참석차 북경으로 가던 사신 일행이 바로 그 산해관 지역에 도달했을 때 청나라 지방 관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기록한 내용이다.

야만족으로서 대륙의 주인이 된 청나라 조정이 당시 조선 조정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조선 조정은 옛 형제국 명나라를 아직도 숭상하고 있으며, 자기네 청인들은 문명인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이 오히려 조선 조

정에 대한 우대의 태도로 나타난 것이다.

기실, 열하일기 서문에서 박지원은 청조를 은근히 비하하는 내용을 남겨 놓았다. 요약하면,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승인한 형제국가이다. 그런데 왜 당당히 명의 연호 승정(崇禎)을 쓰지 못하고 후(後) 삼(三) 경(庚) 혈(子) 이라고 하는가? 천하가 다 청의 연호를 쓰고 있으되 조선은 그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감히 명나라의 연호를 쓸 수는 없는 연고로다.”

다시 말해 청나라의 연호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명의 연호인 승정을 대놓고 쓸 수가 없어서 명이 망한지 육갑으로 3경자, 즉 30여년이 지났다는 어중간한 연호를 쓰고 있는 조선 조정을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첫머리에서 비판하고는 그 서문 말미에 당당히 승정 백오십육년(崇禎百五十六年) [계묘(癸卯)]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지원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라기보다는 문명의 근원이 청에 있을 수 없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시대적 자기 위상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고대 우리민족의 영토가 적어도 요동반도와 만주지역까지였다.’고

중국의 여러 역사문헌의 글귀를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사군이 조선반도가 아닌 요동과 만주에 있었음을 한서지리지(漢書地理誌)의 내용을 근거로 증명하고 있다. 천하통일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건륭황제의 귀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소리였으나 박지원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역사지식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반박을 못하였을 것이다. 박지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지적 바탕을 갖춘 민족주의자였던 셈이다.

열하일기를 자칫 여행일기로 간주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박지원은 기행문체를 빌려 오늘날의 평론, 소설, 시, 수필의 형식을 다 구사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천문, 지리, 철학, 역사, 과학, 기술, 종교, 미술, 음악, 연극, 언어, 의학 등 거의 모든 학문을 망라하여 기술하였다.

그가 취급한 분야는 결코 세속적인 박물학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았다. 문장 또한 쓸데없이 현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진솔하다.

그는 생전에 후학들에게 수시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고 한다.

“요새 사람들은 무조건 옛글을 흉내내어 어렵고 난삽하게 쓰는 습관이 있다. 이는 잘못이다. 글이란 자기 자신의 언어로 문장의 입체적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읽기에 쉬워야하고 자

연스러워야 한다.”

열하일기가 평이한 문장이면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으로 이루어져있는 바, 오늘날 중국의 대학 교재로도 쓰일 만큼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박지원은 당시 조선이 겪고 있는 봉건 양반 사회의 부패현상과 고루한 학풍을 타파하고 유학자들의 비굴한 사대주의와 악덕 풍조를 비판하는 글을 열하일기의 곳곳에 남겨 놓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은 맹목적이고 굴종적으로 존화양이(尊華攘夷)만을 외치고 있는데,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에 유익한 것이 라면 비록 오랑캐일지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그는 가난한 조선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자기가 견문한 청나라의 선진적 문화와 시설, 과학이론을 빠짐없이 상세한 필치로 기록해 놓았으니 열하일기의 가치는 그것만으로도 만대의 칭송을 받을만큼 충분하다.

박지원은 철저한 실용주의자로서 관상, 점, 풍수 등을 믿지 않았고 무신론자로서 천주교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천

주교도들의 목을 치거나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인 효와 충의 정신을 끝까지 설득하여 솔한 천주교도들로 하여금 신과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은 결코 고루하고 경직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사고부터 바뀌어야한다는 글을 많이 쓰는 등 개혁적 성향이 더 농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와 같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사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박지원이 죽은 지(1908년) 100년 만에 조선이라는 500년 왕조가 무너진다. 조선의 지도층이 당파적 이익과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다가 병들어 말기적 증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박지원의 사상과 철학이 빛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우리가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오늘날의 무대에 다시 올려놓고 지도층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대내적, 대외적 가치 때문이다.

첫째, 박지원은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는 민(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두철미한 민본위 사상가로서 백성을 도외시한 당파적 대립과 투쟁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둘째, 박지원의 세상을 보는 눈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된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사상에 의한 소모적 대립을 피하고 각자의 특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상호간 동시에 이익을 취하는 합리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지원의 국제 관계론이다.

21세기를 맞은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를 일별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과 인류가 지향해 왔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국

가와 지구촌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이 죽은 지 200여년, 그의 혼이 되살아나 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일조해 주기를 기대해보며 위관장교 시절 처음 접했던 열하일기를 다시 읽는다. 박지원의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이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 ✕



징비록을 말한다



김동기
21기

징비록은 임진왜란 6년 7개월 중 만 5년을 정무 군무 겸직의 전시수장(영의정)과 4도 도체찰사직을 맡아 전쟁을 치러낸 서애 류성룡이 썼고, 국보 제 132호로 지정된 책이다. 지난 날의 잘못을 징계해서 후일의 어려움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은 잘못은 잘못된대로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대로 과장이나 거짓 없이 당시를 치절하게 기록한데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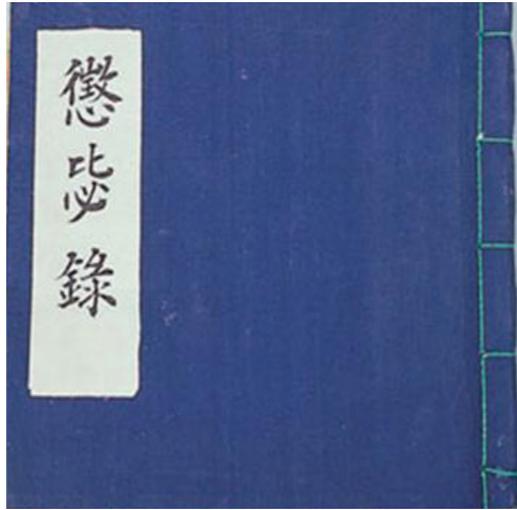
선조 25년(1592년) 4월 13일,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지 두 달 만에 조선의 삼도인 한양 개

성 평양을 무인지경으로 점령한다. 한 나라의 수도가 점령당하는데 채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전투다운 전투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조선군은 전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왜군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점령이고 그저 주둔하기만 하면 지배 지역이다. 그들이 한양으로 밀고올 때 우리측 최후의 방어선은 문경새재였지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주었고 명장이라고 큰소리 치던 신립은 전투를 만나절도 못하고 죽는다. 그야말로 조선은 속수무책이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난국을 극복할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다

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순신과 군사 기무를 총괄하고 있는 류성룡의 존재였다.

의주까지 쫓겨 간 선조는 여차하면 명나라로 갈 건지 함경도 골짜기로 도망갈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 한다. 도승지 이항복 등은 명나라 행을 주장했고 윤두수 등은 함경도행을 주장할 때 류성룡만이 분연히 일어나 “두 방안 모두 불가합니다. 임금께서 우리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신다면 그때부터 조선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경도로 깊이 들어갈시는 중간에 적병이 차단한다면 후방과 격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 적병이 북으로 침범해 온다면 그때의 위태로움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동북의 여러 고을은 아직 예전같이 건재한 바 지방의 충의지사들이 며칠 안으로 별떼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하고 전의를 고취 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고 모두의 마음을 다잡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참으로 천우신조의 일이 일어난다. 평양을 점령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이가 이후 6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평양성에 틀어박혀 조선왕을 지척에 두고도 일체 공격을 않는다. 류성룡의 표현을 빌리면 “적이 들어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성안에 자취를 감추고 순안 영



유 같은 평양 지척에 있는 고을조차 침범하지 않았다. 이로써 민심이 차차 안정되고 흩어진 군사도 점차 수습하고 명나라 군사도 맞아들여 마침내는 나라도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하늘의 도우심이다” 고 했다. 반면 강원도 함경도 쪽으로 진출한 왜장 가토 기요마사는 함흥 회령을 휩쓸고 이곳에 피난중인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생포한다. 류성룡의 함경도 도피 불가론이라는 혜안이 빛을 내는 대목이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여송의 명나라 군사 4만 5천명이 참전한다. 그러나 빈털터리 조선은 이들을 먹여댈 군량 걱정이 태산이다. 기록에 의하면 명군 한 명당 하루 양식 지급량은 반드시 3되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계

산해 보면 한 달 지급량은 9천석이고 일 년 군량은 무려 48만 6천석이다. 당시의 평상시 조선조 일 년 세입이 60만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 군량의 조달 임무를 어쩔 수 없이 류성룡이 맡는다. 류성룡은 곡식 총 동원령을 내리고 각 고을을 돌면서 그러저럭 백석, 천석씩 모아보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비참한 판국이라 더 이상은 언감생심이다. 이여송은 군량이 모자라 돌아가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빈번 해졌다. 징비록 곳곳에 “아, 곡식 1만석만 있다면”, “적게나마 수천석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오늘의 근심은 군사가 없는데 있지 않고 식량이 없는데 있다”며 군량 조달의 비애를 토해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여송을 부추겨 왜를 공격토록 하여 왜를 하루빨리 쫓아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인데 명군은 도무지 싸움에 나서지를 않는다.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애써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바다에서 이순신은 큰 싸움만 열한 번을 싸워 모두 대승을 거두는데 육지에서의 명군은 열다섯 번을 싸워 열세 번을 대패한다. 한 번의 확실한 승리와 한 번의 아리송한 승리, 그것이 기고만장 명군의 7년 전쟁의 전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 조선 조정은 고니시 유키나가이의 반간계에 넘어가 이순신을 하옥 시킨다. 그리고 정유재란은 그 다음달 2월 21일에 일어난다. 이 반간계라는 것이 어린 아이가 들어도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유치한 정보였다. 그 내용은 일본에 돌아간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으로 다시 온다는 것이고 그때 수군을 동원해서 그를 사로잡으라는 거였다. 조정은 엄청난 기밀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령한다. 이순신이 그것이 거짓 정보임을 모를 리 없었고 거짓 정보에 농간 당할 리 없었다. 그러자 가토는 보란듯이 조선에 도착했고, 이순신은 군사 기밀을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하옥되어 고문당하고 참형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류성룡은 있는 힘을 다해 이순신을 위하여 선조를 설득해 보지만 선조는 더욱 격노하기만 한다. 그래도 그가 물러나지 않자 그를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지방 외직으로 내보내고 이순신의 죄를 다스리게 한다. 대간들은 선조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순신을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하기 시작한다. 류성룡이 나가있는 마당에 이순신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호남의 관문 남원이 왜군에 함락당하고 이순신을 대신해 수군을 지휘하게 된 원균이 대패하는 사단이 일어난다. 보다 못한 판중추부사 정탁이 죽음을 무

릅쓰고 고한다. “이순신은 명장입니다. 죽어서는 아니됩니다. 군사 기밀의 이롭고 해로움은 조정 먼 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나서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뒷날에 공을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라고 했다. 위기를 느낀 조정에서는 하릴없이 이순신에게 고문을 가한 후 사형을 감하고 관직을 삭탈한 채 군에 편입하도록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극적인 만남은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아닐까 한다. 아무도 이순신을 주목하지 않을 때 류성룡은 그를 발탁 했다. 늦깎이 무관으로 급제하여 함경도 변방을 하위 무관으로 전전하다 말단직 정음현감으로 온 것이 그의 나이 44세 때였다. 그런 이순신을 천거해서 정 3품 당상관 전라 좌수사로 만들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의 일이다. 류성룡이 징비록에 “내가 그를 차례를 몇 개나 뛰어넘어 전라 좌수사로 추천하여 임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승진을 의심하기도 했다” 고 적고 있다. 그리고 또 “적군은 본디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북으로 쳐들어오려고 했으나 이순신의 수군에 의해 적군의 한쪽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비록 평양을 점령하기는 하였으나 형세가 외로

워져 감히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고 적고 있다. 감히 말하건데 류성룡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은 이순신을 발탁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정유재란이 나던 해 12월 12일에서 이듬해 1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울산 전투가 벌어진다. 이때의 명나라 대장은 양호라는 장수였다. 전투에 동원된 군사가 왜군은 1만여명, 명군 4만여명에 조선군 1만여명이었는데 결과는 어이없게도 명군의 대패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를 놓고 명의 감찰어사 정응태의 탄핵을 받아 양호가 파면되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선조는 의리를 지켜 양호를 무조건 변호해야 한다고 류성룡을 압박한다. 그러나 류성룡은 우리가 낄 일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대한다. 그러자 대북파의 실세인 이이첨을 비롯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류성룡을 거세게 탄핵하는 일이 벌어진다. 왕도 견디지 못하고 얼마 후에는 류성룡을 파직시키는데 이날이 1598년 11월 18일이다. 그리고 이날은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이기도 하다. 일치라면 기묘한 일치이고 운명이라면 기이한 운명이다.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난다. 다음날, 류성룡은 짐을 싸들고 미련없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에 내려간 류성룡

은 임금이 몇 번이나 불렀지만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화공을 보내어 초상화 그리기를 요청했지만 그 또한 거절했다. 이후 9년을 더 살면서 징비록을 비롯하여 진사록, 군문등록, 근폭집 등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징비록을 읽고 울분을 토하며 눈물을 삼키지 않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를 전혀 읽으려 하지 않았고 어쩌다 읽었어도 감동이 없었다. 그리고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들먹이며 이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 떠들었다. 왜란이 끝난 지 불과 30년 만에 정묘호란(1627년)이 일어났고, 그 후 9년 만에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나 얼마 안가서는 아예 망해버리는 치욕을 당한다.

류성룡을 다시 생각한다.

전쟁을 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안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고 식자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식자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은 국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나 자기 패거리에 집착해서 국가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보위 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공직자들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공직자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역사는 자기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절대 지켜주지 않을뿐더러 자비롭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모든 식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징비록을 일독할 것을 간곡히 권장해 본다. ❖

‘희망’을 두고 온 나의 겨울여행



박기호
25기

나는 매년 겨울이 되면 아내와 함께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일정으로 태국에 골프여행을 간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시간상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랜 직장생활에서 벗어난 지금은 부담없이 떠날 수 있어 참 좋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느끼는 것이지만, 야외 운동인 골프는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즐기기에 적합한편은 아니다.

때문에 프로선수들은 물론, 많은 아마추어 골프마니아들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떠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해 비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한때는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시선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나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낸 후, 노후의 삶에 재미와 유택함을 주기위해 겨울 골프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나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태국에 와서 한 달 이상 장기체류하는 사람

들은 대부분 70대 중·후반이며 80을 넘긴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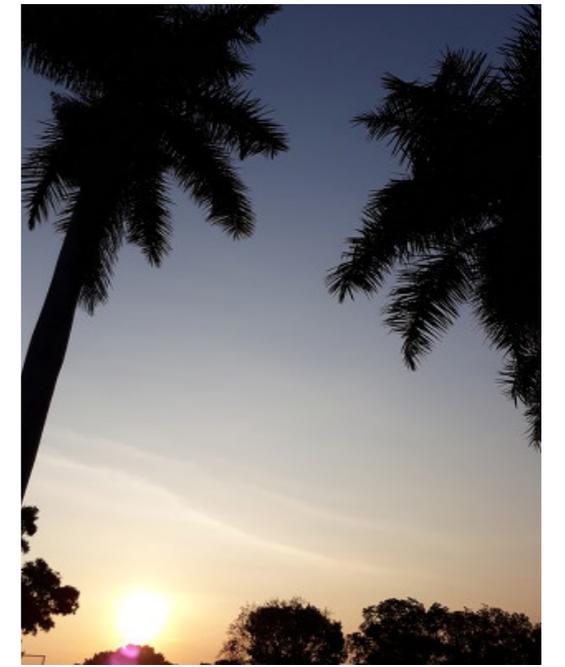
최고령자이신 어떤 분은 자신의 청춘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에서 헌신하고, 해군 최고위직까지 오른 후 전역하신 88세의 예비역이다. 8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매일 18홀 라운드를 거뜬히 해낼 뿐 아니라 쉽지 않은 레이아웃임에도 80대타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신다.

그만큼 스스로 건강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그 외에도 전직 대기업회장이나 군 출신들이 많고, 그들 모두가 젊었을 때는 각자의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된 후 부터는 어느 광고의 카피인 ‘열심히 일 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들이 누리는 노후의 행복을 누가 감히 비난



카오야이 국립공원 야생코끼리



골프장의 일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찾는 골프장은 태국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km정도 떨어져있는 팍충이란 도시부근에 ‘서울-시암골프장’이란 곳이다.

이곳은 방콕보다 북동쪽에 있으면서 해발고도도 약간 높아 날씨가 매우 좋은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카오야이 국립공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하루 정도 관광차 공원을 둘러보면 야생 코끼리나 원숭이, 열대 밀림 등을 구경할 수 있어 좋다.

골프장에서 팍총 시내가 내려다보이고 주변으로는 높은 산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태국에서도 공기 좋고 기온도 적당해서 지내기가 참 좋은 곳이다.

아침 티샷을 할 때쯤이면 볼 수 있는 주변의 여명(黎明)으로 붉어진 구름... 그리고 곧 야자수 사이로 솟아오르는 유난히 크고 붉은 태양...이 모든 것이 장관(黎明)이다.

골프장 주변으로는 사탕수수밭이 둘러싸고 있고 저녁이면 사탕수수밭으로 넘어가는 일몰도 매일 저녁 놓치기 아쉬울 만큼 정말 아름답다.

골프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은 망고나 야자, 파파야 같은 열대 나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과일을 달고 있는 나무들도 많은데 특히나 최고급 목재인 마호가니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붉은 열매가 특이하게 하늘로 치솟은 모습만 보고 우리끼리 우스개로 비아그라 나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최고급 장식장이나 악기제작에 사용되는 마호가니 나무였던 것이다.

아! 나의 무지(無知)함이란~.

그뿐만 아니라 골프장 주변에 갖가지 열대

꽃들이 계절상 겨울임에도 번갈아 가며 피고 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곳은 옛날 마소 냉전 시절 동남아 진출을 막고자 미군이 태국에 주둔할 때 미군휴양지 겸 골프장으로 조성되었던 곳인데, 냉전 종식 후 미군이 철수하면서 방치되었다가 18홀로 증설하면서 한국인이 임대해 골프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곳곳에 그때의 흔적(장군들의 승마에 이용되었던 마굿간, 유럽풍으로 지어진 허물어져 가는 그늘집, 약간 높은 지대에 지어진 멋진 클럽하우스 등)이 남아있다.



마호가니나무



태국야시장

그뿐만 아니라 구(種) 카트도로 주변으로 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미국 종(種) 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

골프장 레이아웃은 지금껏 다녀본 여느 골프장 못지않게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Rear tee 기준으로 아웃코스 3,080야드, 인코스 3,247야드 총 6,327야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앞에 키가 큰 나무가 있거나 그린 자체가 말안장처럼 되어 있어서 높이 띄워 정확하게 공을 세우지 않으면 공이 그린을 벗어나서 보기나 더블보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등, 각 홀마다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곳곳에 정교하게 배치해 두어서 어느 한 홀도 마음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홀마다 긴장과 정확한 샷이 요구된다.

페어웨이 상태는 우리나라 골프장처럼 좋은

상태는 아니다.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러프로 들어가면 공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러프가 우거졌지만 장타자라고 유리하지도 않고 단타자라고 불리하지도 않은 정도이다. 어떤 곳은 페어웨이 폭이 채 20야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곳도 있어 비록 단타자라고 해도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지킬 능력만 있으면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상태이다.

다만 대부분의 그린은 장타자나 단타자나 모두에게 지극히 어렵다.

만약 내리막 퍼팅을 남겨 뒀다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자칫 3 퍼트 내지 심하면 4 퍼트까지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빠른 그린이다.

한 달 이상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원한 오전에 18홀 라운드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는 골프텔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때로는 걸어서 약40~5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팍총시로 시내구경을 가기도 하면서 오후시간을 보낸다.

간혹 일행들끼리 저녁에 시내로 나가 세계 3대 수프중 하나인 유명한 '뽕양퐁'이나 태국 야채를 이용한 샐러드도 먹고 마트에 들러 생필품이나 열대 과일을 구입하면서 하루를



일행과 함께 '똥양궁' 회식



세계 3대 수프중 하나인 '똥양궁'

보내기도 한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만큼 물가가 저렴해 그에 따르는 경비는 많이 들지않는 편이다.

이곳에 체류하면 참으로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 일면식(一面識)도 없던 사람들이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마주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보니 비록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금방 친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연배(年輩)도 대부분 은퇴 후의 고령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금방 친구가 된다. 또 귀국 날짜가 제 각각인 탓에 매일 저녁 골프텔 현관에서는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내년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모

습이 볼 만하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어느덧 나도 먼저 떠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 후 그들 대부분은 또다시 내년의 일정을 예약한다. 또한 그곳에서 한 두달 맡게는 석 달의 겨울을 지낸 후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귀국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해 놓고 간다.

짐작컨대 70대 후반, 80대를 접어든 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일'을 기약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그들은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두고 가는 것이다.

골프에서 나는 인생을 배운다. 골프가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듯이, 나 역시 골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티샷이 잘못되어 공이 안 좋은 장소에 떨어졌을 때! 다음 샷은 웬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들어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나 또 다시 공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 후에야 '처음부터 안전하게 레이업 할 걸...'하며 후회하곤 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애초에 유혹을 떨쳐버리고 안전하게 레이업을 했더라면 한타만 잃고 말았을텐데, 유혹을 견디지 못해 2~3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 환상적인 티샷으로 페어웨이에 잘 안착이 되면 버디는 따는 당상(堂上)이라며 들떠서 친 두 번째 샷이 뒷땅을 치고! 애꿎은 클럽으로 페어웨이를 두드리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이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서 겪어온 수많은 실수들과 어쩔 그리 똑같은지! 수십 년을 골프란 운동을 해오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아니 이제는 고쳐질 수도 없는 동작이 계속 나오는 이 운동이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할 때마다 좋아지고 타수가 줄어든다면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아마 더 이상은 골프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되고, 어떤 때는 정상적

인 샷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상적인 샷이 나오는 바로 그 매력이 골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나만의 이유로 생활에서 자유로워진 나는 이제 겨울이면 훌훌 털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떠난다.

낮에는 필드에서 무리하지 않게 골프를 즐기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 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내와 마시는 커피 한잔...!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아들내미가 노트북에 담아 준 미드를 보기도하고, 혹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는 재미 또한 좋다.

그곳에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직(前職)을 잊어라!'

'죽을 때는 동전 한 닢 못 갖고 간다!'는 것.

70-80대의 사람들... 희망보다는 현실에 안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같은 60대는 아직 청춘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 나는 또 다시 '희망'을 두고 온 내년을 기다린다. ☒

제주도 여행의 여운



백승웅
10기

금년 겨울은 유난스럽게 날씨가 춥고 번덕을 부렸다. 정초에 따뜻한 곳을 찾아 쉬고 싶은 생각에 여행지를 물색하던 중 외국보다 가까우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가진 제주도를 선택 했다. 제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략 제주 시, 서귀포시, 한라산, 중문단지, 성산포 일출봉, 삼굴부리(산에 생긴 구멍이란 제주 방언), 모슬포 송악산, 우도, 향몽 유적지, 4.3 사태 관련, 5.16도로를 따라 발전해온 현장들인데 이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민군복합항만과 해군기지를 돌아보고 싶었다. 마침 맞는 일정이 생긴 우리 부부는 제주 항공편과 서귀포 호텔, 렌터

카를 예약하는 등 2박 3일간의 여행 준비를 하였다.

첫날 14일 김포를 출발하여 정오 즈음 제주 공항에 도착 하고보니 서울은 기온이 영하 5-7도의 차가운 날씨였는데, 제주는 영상을 유지하여 봄날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렌터카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약해 둔 차를 몰고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나는 눈이 조금씩 덮인 해안 도

로를 조심스럽고도 자유롭게 달렸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면서 피로를 풀고, 해변 올레길로 이동하여 산책을 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여행을 생각하는 한편 짧은 여행 동안의 계획을 구상해보기도 했다.

오후 늦게 도착한 서귀포 군인 호텔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우리부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흑돼지고기 요리로 오랜만에 입맛 돌아나는 저녁 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니 잠시 제주에서의 먼 옛날 일이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1년, 생도 4학년 여름 방학 때의 일이었다. 산악 반 활동으로 10기, 11기 7명의 대원은 한라산 등반 계획을 세우고, 학교로부터 숙식과 교통을 지원받아 5일간의 등반여행을 가게 되었다. 오산비행장에서 수송기 C-46편을 타고 당시 제주 공군비행장까지 이동하여, 제주시에서 관음사를 지나 그곳에서 야영으로 1박 후 이튿날 아침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들이 많아 산 계곡에는 물이 없었고, 우거진 처녀림들 사이로 험난한 숲속 길을 헤치면서 약 4-5시간 여에 걸쳐 강행군한 결과 한라산정(1,950m)을 정복했다. 신비에 쌓인 백록담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증막 같은 7월 무더위로 땀투성이가

된 일행은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천상의 호수에 함께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며 감격했던 즐거운 추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일행은 다시 정상에서 남쪽 서귀포를 향해 2-3시간 동안을 하산하여 산 아래 시골 마을 민박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재래식 1-2미터 아래 돼지가 인분을 포함한 사료들을 먹고 성장하여 식용육으로 공급 된다는데,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고기가 특히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났는데 흑 요즘 제주 토종 돼지고기의 원조가 아닌가 싶다.

20대 청년들의 불굴의 의지와 강철 같던 체력으로 도전했던 한라산 등반을 회고 할 때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하는데, 4반세기를 지나 제주에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직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강정 마을 해군 기지를 찾아 나섰다. 중문단지 해안가 관광도로를 따라 서귀포 천지연 폭포를 찾아가는 도중에 주상절리의 절묘한 해안 경관을 돌아보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 주유소에서 민군복합단지를 찾아가는 길을 한번 묻고 나니 어렵지 않게 해군기지 정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위병소에서 미리 부대 전학을 신청

을 했음을 밝히니 장교 1명이 나와서 우리 부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정훈실에 전시된 각종 홍보물들은 부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순신 장군의 대형 인물벽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장군의 위용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 강정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데모가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군기지가 우리나라 남쪽 바다의 보루이자 21세기 청해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친절하고 중위의 안내로 부대 항만 시설을 돌아보니 이 기지야 말로 진정 남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로서 손색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항만에는 각종 함정 20여척과 승객 3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5만 톤급 크루즈 대형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또한 자료들을 통해 알게 된 기지 전대, 기동 전단, 잠수함 전대의 위용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해군기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어도가 제주도로부터 서남방 93마일 해상에 기상 관측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바다 중간 해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긴급 상황 발생을 가정했을 때 전투함 기준으로

목포 기지로부터 그곳 수역까지 도달하는데 8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제주 기지에서는 불과 4시간으로 족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제주도의 관광 자원들이 세계에 알려져서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 된다면 수시로 6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 미항을 찾게 되어 무형의 재화들로 인하여 제주도 전체에는 또 다른 부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참고로 기지건설은 2015년에 완공 되었으며 그해 12월 현 해군기지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평시에 철저한 대비태세는 전쟁 방지에 최선이였음을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기지 정문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본 흰 눈에 덮인 아름다운 한라산의 설경과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서귀포시, 그리고 중문 관광 도로에서 기지로 진입하는 4차선 야자수길 정경은 필리핀 수빅 만이나 캐나다 벤쿠버 만에 위치한 항구들 그곳 해군기지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됨을 보고 마음이 흡족 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은 비록 미약 할 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경이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었음을 우리는 근대사에서 알 수 있다. 2차 대전 후 해방 건국 6.25전쟁 과정을 지나오면서

일구어온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의 과정들은 불과 70여년 만에 달성한 쾌거였다. 또한편으로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의 경제 선진국을 만들어 낸 우리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세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취 후에 자만이나 오만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침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뒤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셋째 날 이른 새벽 호텔 베란다에서 바라본 제주 서남쪽 멀리 송학산 너머 바다에 떠오른 가파도와 마라도의 신비로움은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짧은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10시경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공항으로 향하는 중 대정면에 위치한 제주 영어 마을을 돌아보았다. 110여만 평 위에 설립된 한국 국제 학교 지역 시설들에 큰 감명을 받았다. 초, 중, 고 과정 학

생 수천 여명을 포함하여 인구 2만 여명이 상주 할 수 있는 교육지로서 2011년에 설립된 이곳은 국내외인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미국과 한국의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과정과 기숙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우수한 인재들이 이곳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반납하면서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제주도 인구가 66만 명인데 섬 전체 차량이 48만대에 달하며 그중 렌터카 숫자가 무려 22만대로 차량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제주 공항에 이착륙 하는 항공기 또한 포화 상태라고 한다. 여자, 바람, 돌들이 많다고 했던 탐라도의 옛 모습이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성장해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





부부 비행대장



소령 김동우
51기,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비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내가 재미있게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불현듯 홍보를 온 공군사관학교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매료되어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결정하게 되었다. 비행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고 난 이후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며 실제 비행훈련을 받으면서 교관 조종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현재 나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

행대대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행대장 보임을 수행하면서 최상의 전비태세 유지를 위한 제반업무, 작전임무 및 비행훈련 수행의 지휘감독, 연간요구량 충족을 위한 시행 및 감독, 전술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 조종사에 대한 표준화 평가 업무 및 정예화 훈련계획 및 시행, 비행안전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관 조종사로서 최고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종사 역량 강화 및 전술전기 연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역할을 요하는 비행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생활, 특히 육아에 많은 시간을



연애생활을 시작했다.

남들의 시선이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생도시절 CC로서의 연애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때문에 졸업 후 비행훈련이 끝나게 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였고, 내가 CRT교육을 수료한 직후 우리는 2005년 9월 26살의 어린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에게 같은 비행대장 보직을 수행하면서도 육아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 가입교 훈련 전 처음으로 지금의 아내를 보게 되었다. 당시 울산지역과 수원지역이 같은 날 신검을 받게 되어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을 하는 도중 아내를 보게 되었고, 몰래 이름을 알아서 갔던 기억이 난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내와 같은 중대로 배정받게 되었고, 중대동기라는 끈을 통해 친분을 늘려갔다. 1학년 생도시절에는 이성교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초 아내에게 교제를 신청했고, 사관학교 CC라는 쉽지 않은

부부 군인이자 조종사로서의 좋은 점은, 특히나 우리 부부와 같이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서로의 대한 이해가 높고 대화의 소재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조종사이기에 선·후배 동료 조종사가 비행 중 사고로 순직하였을 때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의 크기도 더욱 큰 듯하다. 그중에서도 중등비행교육 당시 사고로 중대 동기생을 잃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힘든 부분들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보면 2010년 2월에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육아에 대한 걱정이 항상 끊이

지 않았다. 아내와 내가 당시 한참 비행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가 3살이 되는 해까지 아이에 대한 육아는 온전히 경주에 계신 부모님의 몫이었다. 근무가 없는 주말에 나는 충주·청주에서 경주까지, 아내는 김해에서 경주까지 도로 위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만나면 너무 반가워 서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매번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다시 기지로 복귀하는 그 길이 참 마음 아프곤 했다.

아내가 교관으로 승급 후 사관학교 여 훈육관의 기회를 얻어 청주로 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2년의 짧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당시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업무와 육아에 너무 지쳐있던 아내는 내가 2016년 미(美)해대원 석사교육을 받을 때 1년간의 육아휴직을 받아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아내는 다시 비행대대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음을 아는 나로서는 가족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우리 가족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

으며 처가 부모님께서 김해 관사에 같이 계시며 육아를 도와주시고 계신 상황이다. 서로 비행대장이라는 보직을 하며 바쁜 업무와 비상대기에 가족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은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만나 애뜻한 가족의 정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낸지 현재 13년째가 되고 있지만 결혼생활 중 단 3년만을 아이와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군인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모자란 시간에 최대한 서로에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부부 비행대장으로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나보다 많은 부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해주는 아내 이인선 소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항상 시간에 쫓겨 살지만 나에게 많은 부분 선택의 기회를 주는 아내가 있어 나는 행복한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듯하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방공통제인이 가야할 길



소령 유영미
50기,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003년 12월, 방공통제 특기를 받고 처음으로 접한 단어는 ‘Theater’라는 단어이다. ‘Theater’는 작전실 입구에 있던 TACC¹의 첫 글자다. ‘이 안에 극장이라도 있나?, 역시 미군들과 일하는 곳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작전실로 들어섰던 기억이 난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MCRC²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 무기통제사를 비롯하여 공중감시수, 식별수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2년간의 비행 훈련 뒤에 방공통제 특기를 받은지라 관제용어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작전, 훈련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MCRC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지인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전투기를 통제하며 느꼈던 희열 덕분이었는

1 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항공통제본부, 현재는 KAOC으로 명칭 변경, Korea Air and Aerospace Operations Center, 항공우주작전본부

2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

지 비번일 때는 등산, 수영, 조깅 등을 하며 지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답답한 작전실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만 작전 통제할 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을 하면서는 전술적, 작전적 단위의 훈련을 시행했다면 이곳에 와서는 전구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제서야 처음 극장으로 오해했던 ‘Theater’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방어제공훈련이나 합동방공훈련, 영공침범대응훈련, 불시방공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 등 수 많은 임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1년 넘게 이런 임무들을 도맡아 하며 비밀열람실을 끊임없이 다녔다.

그렇게 한반도 전구에서 어떤 작전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갈 무렵 대위로 진급하게 되었다. 작전을 알면서도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방대 입학에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통제부장님은 MCRC 경험이 너무 짧다며 국방대 입학만 류하셨다. 2번이나 부장님 방문을 두드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삼고초려라고 했던가? 3번째 부장님을 찾아갔을 때야 비로소 겨우 허락을 받았다. 야간 근무 후 잠을 참아가며 3번

째 찾아 온 모습에 졌다는 부장님의 표정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나는 국방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2년의 시간동안 국제 정세와 국내 안보 환경, 정치사상 등 안전보장의 다양한 학문과 사상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와 가족, 군만이 전부였던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군 생활에 임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국방대학교 졸업 무렵 인사담당장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대 창설을 해야 하는데 유대위가 갈 수 있겠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길로 전대 창설준비대의 일원이 되었다. 부대 이동부터 건물 신축, 이전, 예규 작성 및 교육 동영상 제작 등 끝도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배우는 계획 업무에 재미를 더해갈 수 있었던 건 당시 부서장 덕분이었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보고 자료에 태그지 붙이는 방법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반송하시며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다. 그 덕분에 MCRC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참모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내가 있었던 부대는 이동형 레이더 전개 작전을 총괄하던 부대였는데, 전대 창설 이후 실

전적인 훈련 시행과 작전계획 작성, 교육 자료 제작 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겨울에 이동형 레이더 전개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전술토의를 통해 실제 전개 작전을 위한 부족한 부분 등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창설부대는 일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한번은 첫 번째 창설기념일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며 축하 회식 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전대장님과 과장님이 나를 끌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 너무 마음이 앞선 열혈 대위였다.

창설전대에서 최초검열과 지휘검열을 마친 후에는 작전사령부로 전속을 가게 되었고 연습훈련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7공군과 연합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합작전계획, 연합연습, 위게임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접한 만큼 모든 업무가 신기하기만 하였다. 창설부대 전대장님이 방공통제특기를 받은 사람은 꼭 한 번 작전사령부에서 일해봐야 한다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는 연합연습을 위해 위게임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연습체

계에서는 위게임을 게이머 각자가 시행할 뿐 SODO³의 임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SODO 한 분께 교육을 부탁드렸고, ‘대위가 중령을 오라 가라 한다’고 하셨지만 웃으며 교육해주시고 연습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주셨다. 그 뒤부터는 이 부분이 절차가 되어 연습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용기 내어 청하길 잘한 것 같다.

그러다 새로운 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어 또 한 번 창설 업무를 위해 전속을 가게 되었다. 계획과에서 부대 운영 업무를 맡아 부대 임무, 기능과 편제 조정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새 건물을 뛰어다니며 건물에 난 크랙을 확인하고 연병장의 자란 풀을 정리하기도 하였지만 모두가 새롭고 재미난 일들이었다.

이곳에서도 일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회의 방식을 깨보기도 했다. 회의 장소에 명패를 없애고 직급 우선이 아니라 업무 실무자를 앞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 당시 사령관님의 배려로 부대원들의 장점을 끌어내는 ‘칭찬합시다’ 코너를 월간참모회의 때마다 운영하게

³ Senior Operations Duty Officer, 선임작전통제관

되었고, 묵묵히 일하는 보석 같은 인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당시 칭찬을 받았던 후배가 부산까지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었는데 기분이 꽤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1년을 창설 부대에서 지내다, 이제는 특기 분야에서 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공통제기 전력화가 한창이었고, 공중에서 항공전역을 누비며 항공전력을 통제하고 싶다는 숨겨왔던 꿈을 꺼내 놓았다. 당시 사격 대회 출전으로 시험 일자를 맞출 수 없어 별도로 감독관 책상 앞에서 영어시험을 보며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합격 점수를 받았고, 전속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항공통제기에 탑승해서 비행하기까지는 수많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중근무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항공생리훈련, 생환 훈련을 이수해야 했고, 공중항공통제체계로의 체계전환교육과 실제 작전자격을 부여하는 작전가능교육과 평가가 이어졌다. '12년 봄에 시작한 훈련과 교육은 겨울이 돼서야 끝을 고했다. 비행을 하며 항공기를 통제하는 것이 바램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의 목소리와 행위 하나하나가 작전의 성공과 완결로 직결됨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무기통제사로 자격을 획득한 후 전자지원식

별장교, 공중감시연동통제장교, 무기배정장교, 임무지휘관이 되기까지 계속되는 훈련과 교육이 이어졌다. 상위 자격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공중감시연동통제장교 평가 때는 고배를 2번이나 마셔 남 몰래 울기도 했다. 당시 틀렸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던 평가관에게 감사했고 나도 것처럼 업무에 정통 해야겠다 다짐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2년 동안 최종 자격까지 획득한 후 나 역시 평가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번 비행에서는 불합격을 주더라도 다음 평가에는 합격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비행 내내 후배 장교 뒤에 서서 오류가 있었던 행위 입력 절차들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표준화를 위해 용어집을 작성하고 교육과 평가 교범 등을 검토, 개정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실 정책과를 거쳐 MCRC에서 선임무기배정장교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부대 전체에서 선임통제사 바로 다음 직책인 만큼 책임의 막중함이 느껴지는 직책이었다. '필드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직책인데, 여성임을 고려해서 한 부사관이 '필드의 여왕'으로 수정해서 불러주기도 했다. 매 순간순간 비행안전과 작전통제를 모두 감안해서 작전실 제 장병들에게 세부 절차를

지시하고 각 팀의 팀장들과 협조하여 작전을 완결시키는 역할이기에 '필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참으로 어울렸다.

또 MCRC의 임무는 평가, 판단하고 협조한 후 작전을 지시하는 과정이 잘나에 이뤄지고, 한 절차라도 어긋나면 작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잘나의 예술'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간근무 시에는 평가와 훈련에 집중했는데, 요격관제대회 전대 1등과 개인부분 1등을 모두 석권하기도 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팀워크 훈련에 집중하고 선수로 출전한 선수와 교관이 힘든것도 참아가며 밤을 꼬박 새운 덕분이었다. 그리고 '내 귀에 SD'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던 통제대장의 씬 없고 끝없는 교육 덕분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발가락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작전을 할 때보다 더 마음을 써주는 동료들 덕분에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감동이 넘쳐 눈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전시통제절차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통제대 장교들을 교육하며 보람을 느낄 무렵 또 다시 전속 명령이 하달되었다. 마음을 주고받았던 동지들에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

⁴ Senior Director, 선임통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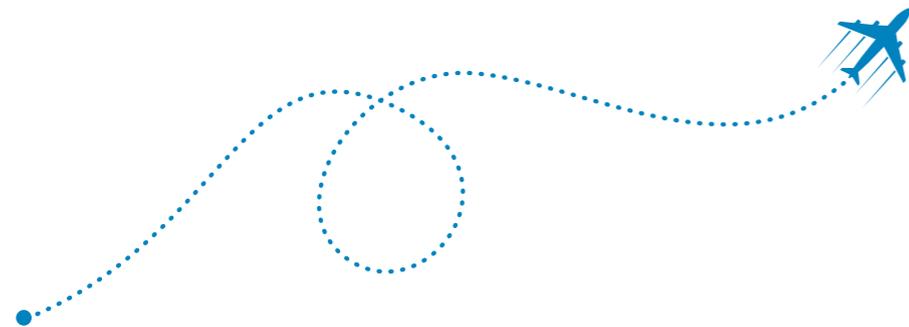
안하고 고맙다는 편지를 읽었던 마지막 시간,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던 후배가 떠오른다.

그리고 현재는 공군본부에서 항공통제전력화담당으로 지휘통제, 감시자산 등의 전력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체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직책을 수행한 후 이 자리에 온 만큼 각 전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의 자산으로는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제한이 되는 부분을 발굴하는데 매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내 손으로 검토한 전력이 미래의 작전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갖추어야 무기체계의 능력은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현재는 공간적 차원에서 공중과 지상만을 감안한다면 미래에는 네트워크 영역과 우주 영역이 강조될 것이고, 대북(對北) 위협과 더불어 주변국 위협은 지속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확장되는 위협 공간에 적합한 통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 해본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무인화 추세를 고려하여 유무인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고려,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증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통제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 체계를 다룰 방공통제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24시간 무중단 운영, 취약시간대 체계 운영, 감시 공백을 위한 이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공통제인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노출되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생체 리듬을 역행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요즘이다. 무기 체계보다 먼저, 이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24시간 동안 무결한 ‘찰나의 예술’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고민들로 잠을 설치다가도 주변 동료들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컬링 경기 때처럼 ‘영미~’라고 부르면 웃으며 다시 일하게 된다. 내 작은 생각과 고민들이 응원 해주는 여러 특기 동료들과 함께할 때 하나의 정책이 되고 현실이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는 고민 밖으로 걸어 나가야겠다. 이것이 방공통제인이 가야할 길인가하며 조심스레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



〈서라벌에서 온 편지 ⑧〉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이중학
3기, 충남대 특임교수

박형, 짐통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동안 안녕하셨소?

나는 윤자중 장군이 7월 12일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서재에서 한 동안 멍하니 흘러가는 구름만 쳐다보았소.

그래서 지난날의 개인적인 추억을 소개해보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I. 윤자중 장군에 대한 회고

14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윤자중(尹子重

, 1929~2017) 예비역 대장이 2017년 7월 12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으며, 향년 89세라 했다. 그는 1951년 공군사관학교 1기로 임관했고,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사관학교장... 1979년 공군사관학교 출신 첫 공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윤 장군은 1952년 12월 F-51D 무스탕 전투기로 첫 출격을 시작해 6·25전쟁 당시 총 80회 출



격을 했다.

윤 장군을 처음 만난 것은 1971년 공군사관 학교 교장(少將)으로 재직시 필자는 공군대학교 교수부 3처장(중령)으로 있었는데, 『공군사관 학교 20년사』의 제작 필요성을 건의함으로 시작되었다. 윤 장군은 내 건의를 수용하여 처음에는 예산도 없이 시작하여 다음 교장인 이희근 소장에 의해 1974년 7월에 『20년사』가 발간되었다.(『星武』 제43호, pp.109~111.참조)

그 후 전연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국방대학원 교수로 재직시 1985년 8월 서독의 슈투트가르트에서 국제군사사학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Military History)의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했기에 대방동에서 택시를 탈 겸 오랜만에 윤 장군을 만날 생각을 했다. 윤 장군은 퇴직하여 보라매회 회장으로 대방동의 공군본부 앞 보라매회관으로 찾아갔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 일어나면서 “지금 서독의 국제세미나에 참석차 김포공항에 택시로 가려고 합니다.” 하니 4성() 장군이었던 분이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여 김포공항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나는 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귀국할 때 맛있는 서독의 포도주 한 병을 선물로 드렸고, 그 후 2014년 11월 20일

백범기념관에서 ‘공군본부·공군역사재단’ 주최의 세미나 때 반갑게 만났다. 세미나에서 나는 「초기 공군사와 625전쟁」을 발표했는데,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윤 장군과 손을 꼭 잡고 찍었다. 그리고 제자·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 그동안 발표했던 글을 편집하여 2016년 11월에 발간한 『동북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를 보내드렸더니 잘 받았다는 전화가 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연이 될 줄이야...

II. 김인기 장군에 대한 추억

제17대 공군 참모총장 김인기(1933~2013) 대장은 1984년 6월 5일에 취임하여 1987년 4월 5일에 퇴역하였다. 나와는 생도시절에 같은 내무반에서 2년간이나 함께 생활했고, 또한 국방대학원의 제자이기도 했다.

1985년 7월 공군대학의 고급지휘·참모과정(CSC)의 「전략론」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방동 공군



본부의 김인기 참모총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8월 19일~24일까지 서독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국제군사사학회의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 말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총장 부관이 국방대학원 연구실로 찾아와서 참모총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봉투를 주었다. 열어보니 편지와 뺏뺏한 10만원권 수표 15매가 들어있었다. 부관이 말하기를 “총장님이 서독 학술회의에 참가하는데 여비로 보태 쓰시라고 했습니다.”고 말했는데, 동봉한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150만원이면 독일 왕복 항공비를 제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클라우제비츠가 평생 연구하여 남긴 군사총서 1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서독 군사사학회의 총무인 모 대령에게 문의하니 도저히 구할 수 없다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여행은 호주머니가 두툼해서 이탈리아 유적답사를 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유적답사는 로마시내와 바티칸, 나폴리, 폼페이 그리고 카프리 섬 등을 답사했는데, 이번에는 폼페이(Pompeii)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폼페이는 이태리 남쪽 해안지방에 번영했던 도시이며, 경치가 아름다워 로마 부호들의 별

장이이기도 했다. 그런데 B.C.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번영과 영광을 자랑하던 폼페이의 찬란한 대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에 매몰되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1900여년이 지난 1860년 무렵부터 조직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유적은 돌로 포장된 도로, 신전(神殿), 원형극장과 민가, 모자이크, 토기와 화려한 가구 등이 발굴되어 고대의 미술공예와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나는 관람객이 아무도 없는 화석으로 변한 한 보초병을 바라보면서 로마제국이 1,000여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린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보초병은 화산의 폭발로 죽음의 재가 쌓이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도 망칠 수 있었지만, 보초의 임무를 죽음을 감수하고 수행하면서 화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나는 퇴직해서 영국의 역사가 기번(Edward Gibbon, 1737~1794)의 세계적 명저 『로마제국 쇠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776~1788)를 읽음으로써 확실한 근거를 찾았으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서기 2세기에 로마제국은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부분과 인류 가운데 가장 개화된 부분을 포괄하고 있었다.

광대한 적국의 국경지대에는 옛날부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기을 있는 용기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 로마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는 여러 황제의 평화주의에 무게와 위엄을 덧붙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준비에 의해 평화를 유지했다...국체(國體)가 아직 순수했던 시대에 무기의 사용은 시민계급에만 주어졌다. 즉 사랑하는 국토와 보호해야 할 재산을 소유하고, 법률을 유지하는 것이 각자의 이익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시행에는 상당한 책임을 가진 시민 계급에만 주어졌다...

◆ 그들이 최초로 군에 입대할 때는 지극히 정중한 의식(儀式)을 가지고 선서를 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대의 군기(軍旗)를 버리지 않으며,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황제와 제국의 안전을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것을 선서했다...백인대장(百人隊長)은 구타·징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장관(將官)은 사형에 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량한 병사들은 적(敵) 이상으로 자기의 상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군기적 격언(軍紀的格言)이었다.

◆ 그들의 국어(國語)에 있어서 '군대'라는 명사는 '훈련'을 뜻하는 말에서 빌려올 정도였다. 군사훈련은 그들 군기(軍紀)의 중요한 끊임없는 목표였다. 새로운 입대자는 아침·저녁의 구별 없이 맹훈련을 실시했고, 고참

자라 할지라도, 그 연공(年功)이나 지능에도 불구하고 이미 숙련된 기술의 복습은 면제되지 않았다... 로마 군대는 평화로운 때에도 전시훈련에 익숙해 있었다. 이것은 로마군을 적으로 하여 스스로 싸운 경험을 가진 고대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37? ~ 100?)가 한 명언이지만, "로마군에 있어서 유혈(流血)만이 실전장과 훈련장을 구별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기번의 『쇠망사』는 서기 138년 트라야누스 황제로부터 1453년 동로마제국 멸망까지 1,315년 동안의 역사를 약 20년에 걸쳐 71개 장, 150만 단어, 8,000여개의 주석으로 된 고전(古典)이다. 나는 이 책을 1982년 8월 7일 미국 뉴욕의 고서점에서 발굴·구입했는데,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박형, 나는 김인기 장군의 마음을 써준 것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소. 즉 귀국 시 로마 시내에서 유화그림을 구입해 와서 액자에 넣어 선물했고, 그가 퇴직하여 보람회 회장일 때 생활에 여유가 있는 6명의 동기생을 심장섭 장군을 통해 설득하여 한 사람당 10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했고, 또한 경주 풍석재에 묘목을 심어 육성한 매실과 단감을 해마다 보내 주었지요.

박형, 올해 경주의 무더위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섭씨 40도 가까이 올라갔기에 일을 멈추고 시원한 평상(平床)에 누워서 읽고 싶은 책을 읽었는데, 잠시 짐통더위의 생각도 잊어버리게 만든 글, 「조종사의 아내」(김정자)의 한 구절을 소개하지요.

가 되돌아오지 않던 일, 그 가족이 며칠이고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다 끝내 아무 말도 없이 관사를 떠나버리던 일은 같은 여자로서 참기 어려운 슬픔이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오늘날까지 늘 초조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온 듯하다. ❌

결혼 전 많은 친구들은 파일럿과 결혼하는 나를 띄부러워하고 멋있어 했다.

(2017. 8. 14. 달고)

.....

함께 날개를 같이 하며 창공을 지키던 그이의 전우



내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장식품



정용진
18기

지금 나의 서재에는 지난 날 내게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세 종류 장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80여 종류의 올빼미 소품과 120여 종류의 각 나라 기념품, 50여 종류의 비행기 모형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 중 80여 종의 올빼미 소품은 여행목적으로 지구촌을 한 바퀴 돌면서 구매한 것들이다. 많은 동물 중에 내가 특히 올빼미만 수집한 이유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올빼미를 인내와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120종의 기념품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들이고, 비행기 모형 중에는 내가 26년간 조종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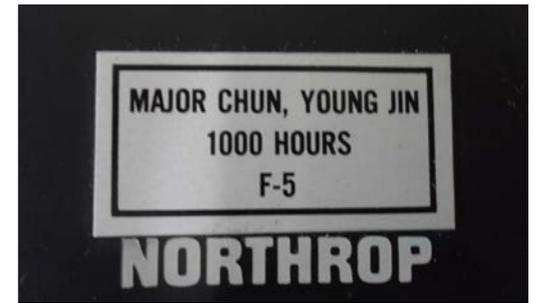
던 'F-5A, F-5E, A600R'에 많은 애착을 느낀다.

나는 1970년부터 1976년 6월까지 F-5A 전투기를 조종했고, 1976년 7월부터 1988년 3월까지 개량형인 F-5E 전투기를 각각 1,000시간 이상 비행했다. 전역 후에는 대한항공에서 1994년 4월부터 2007년 3월 퇴직까지 유럽의 에어버스(Airbus)가 제작한 A600R 여객기를 8,300시간 조종했다.

나의 계급과 이름이 부착된 두 종류의 전투기(F-5A, F-5E) 모형은 미국 제작회사인 노



F-5E 1,000시간 기념 (1982. 4)



F-5A 1,000시간 기념 (1976. 9)

스롭 그루만(Northrop Grumman)로부터 광주와 강릉기지에서 각각 수여받았다. 당시 노스롭 그루만 소속의 미국 직원은 1,000시간을 각각 비행하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비행했던 나와 동료들에게 비행기 모형과 증명서를 직접 전달해 주었다.

전투기의 한 번 비행은 1시간이므로 2,000시간이란 2,000번의 이륙과 2,000번의 착륙을 했다는 말과 같다. 나는 전투기 모형을 볼 때마다 13년 동안 일선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조국의 영공수호를 위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했던 지난날에 자부심을 느낀

다. 또한 모형기와 증명서를 선물로 준 제작사에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동안 소중히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여객기 모형(A600R)과 감사패는 비행시간이 8,000시간 되었을 때인 2006년 5월 대한항공에서 수여받았다. 특히 회사는 나의 비행시간이 총 10,000시간(전투기 비행시간 포함)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비행 10,000시간 기념패'를 선물로 주었고, 나는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당시 나는 국내 비행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전 지역을 비행했는데, 특히 국제 비행은 심야 비행이 잦은데다가 시차 극복까



총 10,000시간 기념패



F-6 1,000시간 인증서

지 겹쳐서 힘든 비행생활을 하였다. 나는 항공기 모형과 감사패를 볼 때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족과 노후준비를 위해 안전비행을 했던 지난날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특히 13년 동안 5,600회 비행에 8,300시간을 비행하면서 소소한 사고 없이 명예스럽게 퇴직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 종류의 비행기 모형은 여러 나라에서 구매한 다른 비행기 모형들과 함께 장식장에 놓여 있다. 나는 해외에서 눈에 띄는 비행기 모형들을 보면 사가지고 왔는데, 특히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소속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tional Air & Space Museum)을 세 차례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 모형들을 구매했다. 당시 내가 본 항공우주박물관은 미국인이 설계·제작하여 20세기 하늘을 누볐던 100여 기

종의 역사적 비행기와 우주왕복선, 항공역사 등을 구경할 수 있는 거대한 전시장이었다. 나는 미국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박물관을 구경할 때마다 많은 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조종사들의 도전(Challenge)정신과 창의성(Creativity)에 감탄하곤 했다. ✉️

- '일선 조종사 이야기' 후일담에서 발췌

백령도 공군부대장 시절



김국창
7기

나의 공군생활 26년 중 20여년을 벽고지(僻高地) 레이더 사이트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위기는 백령도 대대장 시절에 당한 해병대와의 충돌사건으로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찔한 생각이 든다.

1976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중순, 어느 일요일 늦은 밤인 23시 20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관사에서 취침 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받아보니 부대 일직사관의 다급한 목소리다. “지금 해병대 대대장이 헌병대 당직대에 와서

당직 헌병을 구타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다.

나는 후딱 전투복을 걸치고 후문을 통하여 당직대에 급히 달려가보니 술에 만취한 해병 중령이 권총을 허리에 찬 채 당직 헌병을 구타하고 있고 일직장교가 이를 말리고 있다.

한밤중에 도깨비 장난같은 상황을 보며 “대대장님, 이게 무슨 짓이요. 나하고 이야기 합시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끌고 당직대를 나오려는 순간 정문 헌병의 급박한 보고다. 지금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공포를 쏘며 포복으로 정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이다.

‘큰 일 났구나!’ 싶어 “대대장, 이게 어찌 된 일이요?”하고 소리치니 자기 부대원 2명이 2시간 전쯤 공군헌병에게 구타당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부상을 당한데 대한 보복을 위해 자기 부대원들이 분개하여 자진 출동했다는 것이다.

일직사관에게 ‘기동타격대 출동대기’를 지시하며 해병대대장과 함께 정문으로 내려가 보니 수십 명의 해병들이 엎드려 썩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인솔자인 해병 중위가 벌떡 일어나며 술 취한 목소리로 “공군부대장이 보는 앞에서 정문 헌병을 사살하여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소름이 짝 든다. 순간적으로 ‘기동타격대 출동명령’이 떠올랐으나... ‘아니다. 일단 사과하여 저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포복자세로 정문초소를 겨냥하고 있는 해병들 앞으로 나서며 “해병 여러분들이 분개한 이유를 귀 대대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밤 공군측 가해자들을 조사를 하여 엄벌할 것이며 내일 오전에 내가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귀 부대에 찾아가서 해병부대원들 앞에 무릎 꿇고 공개사과를 하겠으니 오늘 밤은 넓은 아량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사과하니 해병대대장이 아직도 술이 덜 깬 목소리로 “당신 내일 9시까지 우리 부대로 와서 전 부

대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는 거야!” 하더니 인솔자에게 부대복귀 지시를 한다. “헤쳐 모여”하니 3열 종대 아홉만, 지휘자 포함 29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부대 CP로 돌아오며 후속처리 문제를 고심하다 보니 이미 ‘승부는 끝난 일’이었다. 아무리 공군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최전방에서 아군을 사살할 목적으로 다수의 무장병력을 출동 시켰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만 하고나면 ‘해·공군본부’ 선에서 처리할 사안 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며 생각하니 단장께 보고하기 전에 일단 해병여단에 통보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다. 여단본부 참모장에게 전화, 어제 밤 상황을 대충 설명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가 상황을 파악한 후 전화를 하겠으니 30분만 보고를 보류해 달라고 한다.

30분 후 참모장의 전화, “내가 지금 공군부대로 가겠으니 나를 만난 후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 10여분을 기다리니 해병대 지프차 두 대가 대대장실 앞에 선다. 참모장이 어젯밤 관계자인 대대장, 인솔 장교 및 주임상사 등을 대동하고 왔다.

대대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어젯밤의 용사(?)들을 무릎 꿇게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해병대에 가서 꿇겠다던 무릎을 저들이 우리 부대에 찾아와 대신 꿇는 역전극이 벌어진 것이다.

참모장인 유대령도 함께 무릎을 꿇으려고 하기에 말렸더니 간절한 부탁이 있다는 것이다. “저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겠으니 상부 보고만은 고려해 달라. 자기 여단장께서 2주후면 소장으로 진급되어 2년간의 백령도 생활을 마치고 해병대 사령부로 가게되어 있는데 상부에 보고된다면 너무나 엄청난 사고이기 때문에 진급은 고사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될 우려가 크다”며 사정을 한다.

내가 이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해도 보안대 등의 보고를 막을 수 없으니 보고를 하되 ‘여단장님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단장께 보고를 드렸다.

보고를 받은 단장께서는 깜짝 놀라며 “기동타격대 출동시키지 않은 것 등 대대장이 조치를 잘하여 큰 사고를 막았다. 여단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병대 관계 등을 고려해 이번 일은 없던걸로 하되 해병 참모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라”하며 전화를 끊으신다. 해병대 참모장 등은 허리 굽혀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돌아갔다.

그 주말에 해병대 장교단에서 친선 운동경기를 하자며 푸짐하게 음식까지 준비해와 공군장교단과의 배구시합과 회식으로 친목을 도모했으며, 양군 하사관단의 상호 방문과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그 후로는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이면 해병 장교와 헌병 2명이 1조로 공군부대 앞 순찰을 했으며 해병여단본부 입구에 위치한 공군관사의 급수지원 문제 등 공군가족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주어 공군과 해병 간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이야기가 백령도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귀신 잡는 해병을 잡는 공군’이라는 유머가 퍼지기도 했으니 완전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었다. ❌

죽음의 미래, 현충원을 생각한다



이은봉
10기

‘많지, 많지 않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어느 시인의 시 중 한 구절이다.

사람이 늙을수록 그리고 죽음에 다가갈수록 많지 않은 것 중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것은 시간인가 보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의 주류인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드높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삶의 미래를 탐구해야 마땅한 일이 거늘, 죽음의 미래를 주제로 논한다는 것은 어쩌면 퇴행(退行)적인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때 안보역군으로 생활해 왔고 이제

는 노인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혁신적 삶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노인들에겐 누구나가 웰-다잉(Well-dying)을 바라는 것도 오늘날 사회의 일반적 추세다. 그래서일까? 내가 이번 현충일의 참배에 참석해서는 현충원이란 곳이 나에게 더 가깝게 다가와 크게 느낌을 주는 것 같다.

현충원은 과거 국군묘지, 국립묘지로 불리우다가 2005년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변경 오

늘에 이르고 있다.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나라의 묘지(The National Cemetery)를 일컫는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만물이 생동하는 실록의 계절이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10기 사관들은 이곳 현충원에 모여 연례행사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참배모임을 갖는다. 그 많은 호국영령들 중에서도 먼저 떠난 동료 20여명의 넋을 기리는 것을 첫째로 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동료로서 인지상정(人之常情)인가 보다. 앞으로 생존해 있는 10기 동료들이 오래오래 함께 인생 후반생(後半生)의 삶을 구가(謳歌)해 나가길 바라고 또 바랄뿐이다.

작고한 동료들이 영면(永眠)해 묻힌 현충원은 풍수지리학상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현충원 뒷산은 서달산(西達山)이라 한다. 비록 낮은 산이지만 한강 남쪽 언덕받이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많은 역사적 전설을 품고 있는 산이다. 서달산 능선 따라 북쪽은 현충원이고, 남쪽은 상도동이다. 연전에 작고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고, 사학의 명문 숭실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흑석동에는 중앙대학교가 있다. 또한 이 산줄기 서쪽 끝자락인 노량진역 근처에는 옛 사육신묘 공원이 위치하고 남쪽 끝에는 조선시대 마을의 수호신

인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라 해서 지금은 장승배기역이 들어서 있다. 따라서 현충원을 둘러싼 외곽 전 지형이 마치 봉황 포란형(봉황이 알을 품고있는 형태)이라 해서 명당으로 불리워왔다. 이처럼 역사, 지리상으로 봐도 명산임에는 틀림없는 곳, 이 서달산에도 봄·여름엔 나무 풀숲, 꽃들이 무성한 곳이어서 낮에는 온갖 산새들이 노닐고 밤에는 부엉이 소쩍새가 울어댄다. 마치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노랫소리처럼, 그곳이 현충원이고 호국의 전당이 다. 그래서 더욱 명당이라 불려진 듯 하다.

아무리 현충원이 명당이라 한들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 납골을 묻거나 충혼당에 봉안하는 일종의 묘지다. 생의 종말을 짓는 종착역이요, 유(有)에서 무(無)로 돌아가는 곳, 죽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호국영령들의 명당인 묘역을 찾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충원과 죽음에 대한 각별한 상념을 갖게 되더라. 이 같은 상상의 세계가 어찌 나 혼자만의 느낌이었겠나? 함께 참석했던 10기생 모든 동료들이 아마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남은 인생의 생존관을 머릿속에 그려 봤으리라.

조선시대 선비였던 송시열 선생은 자연의 섭리를 노래한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기셨다.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조차 절로하리」

푸른 산이 절로 서있고 물도 저절로 흘러 내려가듯 사람도 절로 늙어가는 것임을 읊은 것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청춘이 만리 같은 세상’이라며 마치 영원한 인생일 것처럼 여겼었는데 지나고 보니 마냥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허황된 꿈이었고, 인생은 유한하고도 극히 짧은 것이었음이 현실로 다가와 버렸다. 지금은 서산머리에 걸쳐있는 태양처럼 황혼빛이 내 얼굴을 비추어 준다.

이제 나는 인생 정점에 이르렀고, 다른 말로는 그 끝자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작고한 동료들의 묘비 앞에 묵념하면서 “현충원은 나에게 무엇이든 어떤 곳인가” 자문(自問)하고 자답(自答)하고픈 마음이 우려난 것이다. 이같은 자문과 자답도 내가 아직은 살아있고 상상할 수 있으니 가능한 것 아닌가?

인간 한평생의 주기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 따라서 인간은 본

래 외로운 존재,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닌가 싶다. 철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을 남겼고, 성경에도 ‘당신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잠시 눈에 보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야곱4:14~15)’고 한 그 안개 같은 시간을 살아왔다. 또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너도 죽을 것이다(remember that you must die).’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숙명적인 것이다.

몇 년 전 죽음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온 미국 하버드 의과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저서에서 말한다. 그는 삶의 비극인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인간 모든 사물의 자연스런 질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면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삶에는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거 역사속의 인물인 진시황은 죽지 않기위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삼신산에서 불로

초를 구했었다. 인류는 죽지않기위해 종교를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불교의 윤회(輪廻), 기독교의 부활(復活), 그 모두가 죽음을 이기려는 철학이란 말도 있다. 그건 그런대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영토, 또는 신의 영역이기도하다. 어쨌든 이 세상에 지금껏 살아왔고, 살고 있는 인간들은 생각과 믿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견해도 가지각색이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요 자유문제라 생각한다.

동작동 묘지를 가기위해 그날 아침 지하철을 탔다.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 앉으세요” 라며 자리를 양보한다. 양보해준 젊은 여성이 무척 고마웠다만 노인중의 노인으로 낙인 받은 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 그러나 서운한 생각도 잠시, 아니다, 나도 가까운 장래에 현충원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 이제야말로 인생 마무리 작업 착수에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마음이 가슴에 확 느껴온다. 비록 늦었지만 이 철없는 노인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나는 지금껏 현충원을 찾을 때마다 작고한 동료들이 안장된 곳이야 그들 영혼이 잠든 곳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곧 나의 일, 나의 몫이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서야 현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理解)를 가지려고 노력해 본다. 사람이 죽은 후에 국가 묘역으로 가려면 안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또 안장형태도 여러 가지여서 시신을 그냥 묻는 법, 화장해서 유골로 매장하거나 충혼관에 유골함만을 보관해 놓는 법 그리고 더러는 유골을 산, 강, 바다에 뿌리는 법도 있다. 중국 국가 주석을 지낸 등소평은 죽은 후 화장해서 유골을 강산에 뿌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실제 그의 사후 강에 뿌려졌단다.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군묘역에 시신을 그대로 안장할 수 있었는데도 죽은 다음 화장해서 전쟁당시 전사한 병사들 묘역에 함께 묻게 했다. 현재 월남병사들 묘역에 모셔져 있다. 실로 존경할만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하면 안장조건이 되는 경우인데도 죽은 다음 화장하면 두 번 죽게 하는 거라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사람도 봤다.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니 사후관리도 다를 수 있겠지.

사람은 그 속성상 오래 살고 부유하고 귀하게 살려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불행의 덫에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나 역시 내 인생 젊은 시절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이젠 다 내려놓은 지 오래다. 요즘 간결하게 사는 생활, 즉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운동이 활발하다. 나는 이 운동에 동참해서 불필요한 물건 죄다 버리고 빚이든 작고, 소량만 가지고 사는 법을 실천하니 그리 좋을 수가 없다. 행복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자세에 달린 것,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련만, 장자(莊子)와 같은 초월자가 아닌 한 그런 무욕의 경지에 노닐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니 돈도, 명예도, 출세도 다 젊었을 때 일이지 오늘의 나에게는 해당되지도,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는 비록 노인중의 왕노인 이다만 남은 삶의 생존기간, 후반생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하고 싶은 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즐기며 감상, 경험하며 살으련다.

요즘 세상 형태와 사회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또 현대인은 이기적이지요 실리적이다. 남녀노소 개인의 평준화, 장유유서 사상의 붕괴, 가족의식의 변화 등 이런 현상들은 서구사회의 풍습을 빼닮은 꼴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부모 자식 간, 조상에 대한 섬김 사상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초연하기로 이미 결심한터

라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은 시대, 사회조류에 맞춰 살아야지 어찌하겠나? 사람이 갈 때는 가더라도 앞으로 후반생은 편한 마음으로만 살려고 작정하니 스스로 행복감이 찾아든다.

그래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국가에 많이 봉사했다는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생계걱정은 없고, 상호회에 가입해 놓았으니 배망산천(北邙山川)가는 길, 장례식은 무사통과, 최종 갈 곳은 명당중의 명당인 현충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사후 주책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이 모두가 행복한 노후, 사후대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니 '많지, 많지 않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시(詩)구가 가슴에 더욱 와 닿는다. 따라서 "현충원은 나에게 무엇이든 어떤 곳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다. "현충원은 나에게 영원한 고향이요, 안식처라고" ✕

17만 회원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공군회관 웨딩홀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합니다



높고 웅장한 고품격 예식장(3층 그랜드볼룸)



당신이 가장 명예롭게 빛나는 곳,
고객 감동으로 보답하는 공군회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헌신과 명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군회관은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최상의 고객 감동을 선사합니다.

웨딩(자녀결혼) · 단체행사 · 가족모임 · 동창회 · 송년회 · 각종 소연회

군 현역 예비역 우대
(일반인 예식 가능)



예약문의
02.844.0336

달마중

구춘수
20기

달님을 모셔 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나무 가지보다 높게 올라 서서
어찌면 저런 밝은 표정으로
어디 하나 기운 곳 없이
환한 웃음 등그스름한 얼굴

참 좋은 밤이라
잘 있었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사노
내가 네 생각을 전해 줄 수도 있어
幽人이라야 貞코 吉하리라 ☒

하늘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는
달빛의 풍요로움
풀벌레 우는 작은 마당에도
고루 고루 채워 오는 저 달빛으로



보라매 기상



백문현
25기

하늘 향해 치솟은 은빛날개
우렁찬 폭음소리
숨조차 쉴 수 없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대답하네
저 하늘에 깃발을 휘날리며
겨레의 불침번으로
시간의 강가에서
영원히 눈뜨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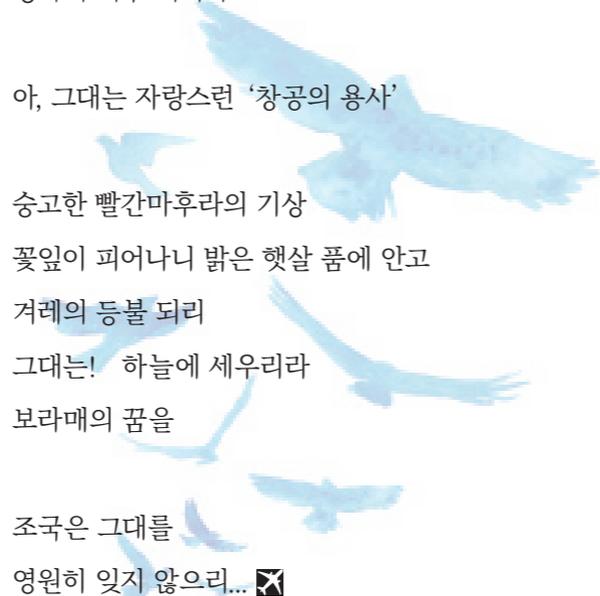
영롱한 무지개 속 빛나는 은익
하늘의 요새되어

조국수호 신이 되고,
평화의 기수 되리라

아, 그대는 자랑스런 '창공의 용사'

송고한 빨간마후라의 기상
꽃잎이 피어나니 밝은 햇살 품에 안고
겨레의 등불 되리
그대는! 하늘에 세우리라
보라매의 꿈을

조국은 그대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 ✕



하늘을 날며



강임구
24기

밝아 오는 동녘 하늘 처마 끝 따라 가면
창천(蒼天)을 불러오는 새벽 닭 기침(起寢) 소리
여명의
하얀 속살에
눈이 부신 아침 해

비바람 헤쳐 가며 달려가는 눈앞에
구름이 빛을 갈아 일구어 낸 햇살 받
새 희망
가득한 하늘
가슴 가득 안는다.

겨레의 아리랑이 하늘가 너울지면
청운의 기상 품은 보라매 날갯짓에
꿈길에
맞닿은 창공
눈동자에 어린다.

호국의 젊은 투혼 맥박 친 폭음 소리
비행운 남은 자리 땀방울 배어 있어
성층권
스치는 은익(銀翼)
푸른 꿈이 영근다. ✕

※ 성층권成層圈: 대류권과 중간권 사이에 있는 대기층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이규석
25기

산은 나에게 늘 그리운 곳이며
영혼의 자유로움과 삶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늘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주는 친구이며
기대이상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찾을 때마다 언제나 그 곳에 있으면서
말없이 반겨주며 모든 걸 비우게 해줌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며
마음의 위로와 여유로움을 주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언제나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산을 찾을 때마다 늘 반겨주면서

시원한 바람과 계절별로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와
아름다운 조망을 선물해주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언제나 그 곳에 묵묵히 서있으면서
늘 새로운 다른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력적인 곳이다.

산은 나에게 험준한 산세와 가파른 오르막길로
위세를 과시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주면서도
열정을 갖고 아름다운 산행으로 겸손하게 도전하면
짜릿한 성취감과 무아경지의 행복을 주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고싶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곳이며
늘 베풀기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무한애정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인생의 고비와 같은 가파른 오르막길과
평범한 일상의 순탄한 길에 이어
끝이 안보이는 인생의 내리막길과 같은
굴곡있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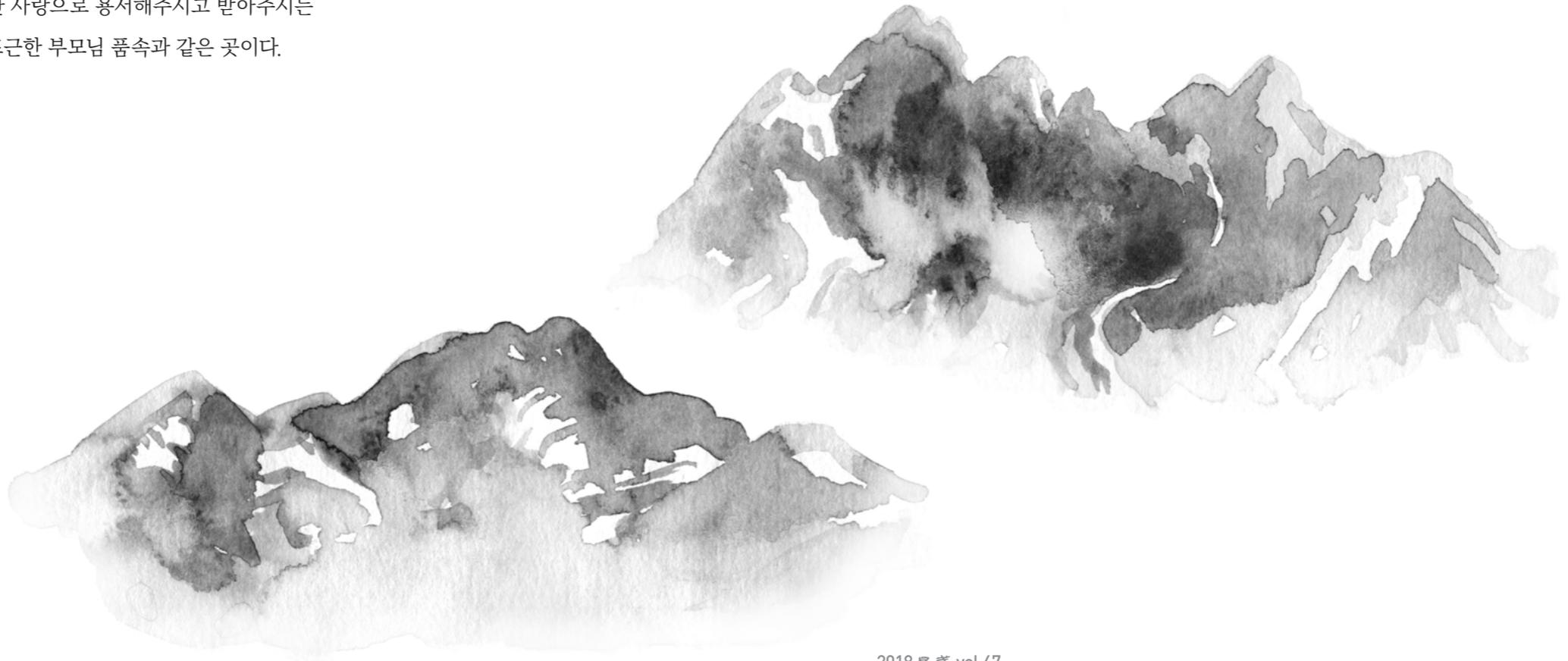
산은 나에게 정상에 잠시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과 같은

권력무상, 인생무상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곳이다.

산은 나에게 모진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인내하고 침묵하며 늘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시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의 할 바를 다하는
언제나 닳고 싶은 그런 곳이다.

산은 나에게 오른 만큼 걸어간 만큼 보여주는 곳이고
정상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흘린 땀의 댓가만큼 충분히 보상해주는 그런 곳이다.

산은 나에게 마치 큰 잘못을 하고 찾아가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고향의 포근한 부모님 품속과 같은 곳이다.



산은 나에게 정상에 오르면 언젠가는 내려 갈 그곳에
돌아 갈 집과 나를 반겨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다시 할 일이 있음으로 인해
더욱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곳이다.

산이란 나에게 언제나 닳고 싶은 그런 곳이고
산이란 나를 반겨주는 늘 그대처럼 그리운 곳이다.
산에 오름은 그리운 그대를 맞이함이요..
산에 내려옴은 그리운 그대를 다시 그리워함이라... ❌

잃어버린 별 헤는 밤



신향인
시인

청보랏빛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나요
잇은 듯 잇은듯하여 바라본 하늘엔
모든 것을 삼켜버린
먹물만이 펼쳐져 있고

모두 헤아려도
손가락이 남는 별
푸른 하늘 은하수를
바닥에 떨어져 가로등이 되었네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엔
먹빛 하늘이 묻어나고

빛바랜 무지개에 별이 떨어진다
이제 무지개색 우산을 접고
눈송이를 받아먹고 싶다

혀끝에서 피어나던 눈꽃송이로
그 하늘에 별들을 달아주고 싶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만들어
너와 내가

별 헤는 밤을
찾아주고 싶다 ✕



근대기 남성복에 나타난 군복의 영향요인



한순자
가천대학교 교수

1. 서론

남성복과 군복은 시대를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남성복식은 복식 본래의 역할에 더해 지위나 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하다. 군복은 형태나 장식에서 계급과 체제를 표현하고, 방호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¹

이는 복식의 기능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장식적이고 심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 남성복의 변천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기는 남성복이 현대식으로 형태가 다듬어진 시기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종교개혁 후 생활신조에 따른 가치의 변화와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자유로운 시민정신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진 시기였다.²

이때 남성복은 궁정 복식, 시민복식, 상업적 복식, 군복, 유니폼 등이 서로의 경계를 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복식은 실용성과 합리성이 중요해졌고 왕부터 지배계층까지 입고 활동하는데 편한 형태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군복은 전통적으로 지배계층의 남자복식에 접근하기 쉬웠으므로 역사적 전통, 정치적 계급, 통제 등의 상징성, 기능성, 장식성을 통합적으로 이용하였다. 현대의 군복 역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호전에 필요한 트렌치코트가 나타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는 국방색이라는 각 지역 자연색과 유사한 군복색이 나타났다.

그 후 월남전과 걸프전에서는 위장복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현재의 첨단 무기와 전술은 그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면서 군복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복에도 영향을 주었다.

남성복과 군복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게 발전하였다. 근대기의 군복은 전쟁의 영역이 넓어지고 무기와 전술이 변화하면서 전쟁에서 새로운 기능이 요구 되었다.

때문에 수단이나 목적에 따라 기능적이고 방어적인 용도가 필요하였다. 군복에서 비롯한 남성복의 형태는 사회적 교류의 외적인 표현 매체로 발전하였고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었으며 규격화와 대량생산을 위한 기성복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근대기 군복의 변화

군복은 실제 무기와 전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활과 칼이 주 무기일 때는 쇠고리를 치밀하게 서로 엮어 만든 사슬 갑옷(mail, chain mail)으로 예리한 끝을 방어하였고 창을 주 무기로 할 때는 철판의 판금갑옷(platearmour)으로 몸 전체를 보호하였다. 무기가 총기로 바뀌면서 총기의 성능이 약하고 사용법도 미숙하던 초기에는 살상에 대한 방어보다 시각적인 과시효과를 위하여 확장 색과 과장된 장신구로 화려한 군복을 구성하였다. 총기가 발달 된 후에는 살상력으로 인해 기병이 사라지고 전차가 개발되었으며 그 화력에 대처해서 맞서서 싸우기보다 게릴라식 공격에 대비하거나 장시간 잠복상태의 참호(트렌치:trench)전을 위하여 트렌치코트(일명 버버리 코트: 제조회사 명칭이 상품명인 됴)가 나타났다. 트렌치는 참호(塹壕)를 뜻하며 참호에서 오랜 시간 견디기 위해 보온과 방수가 필요한 긴 코트가 필요하였고 일반 남성복에 차용되었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지형에서 전투를 하면서 위장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첨단 기기와 무기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복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군복의 소재 및 형태, 장신구 등은 일반 복식에도 차용되고 디자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근대기는 정치체제와 군사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으면서 남성복과 군복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17세기 바로크시대는 남성복이 군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로 군복스타일과 시민복스타일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두드러졌다. 18세기는 유럽 주요 강대국 사이에 무역 경쟁, 군사경쟁의 시대였다. 따라서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체계가 정비되면서 군복의 형태가 국가의 보급체제 기준과 군대 내의 계급에 따라 결정되었다. 기본 군복으로 연대코트, 병사의 소속 부대와 계급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 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군복이 19세기 초까지 장식적으로 변해 갔으나³ 군복의 기능성과 대량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군복의 장식들은 상징적 의미로 남았다. 근대기의 가치체계에 따른 남성의 생활 변화는 남성복을 변화시키고 체계화하여 오늘날 남성복에서 볼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아울러 군복 또한 다양한 전쟁과 무기·전술에 의한 변화와 일반 남성복과 상호 변화를 가져왔다.

1) 17세기 군복

17세기에는 군사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무기가 창과 칼에서 총으로, 전투대형이 밀집대형에서 선형으로, 또한 포병이 야전에서 크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⁴ 17세기 초기에는 30년 전쟁(1618년-1648년)과 영국내전(1642년-1651년)등 다양한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의 발달에 따라 군복이 기능적이고 간편한 형태로 바뀌었다.

17세기 말에는 갑옷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초로 정규 제복이 나타났다. 세기 중반부터 일부 군인들은 통일된 유니폼을 제복으로 착용하였다. 이 시기 군복의 변화 요인은 전술과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전문 직업군이 없었고 전쟁에는 용병을 활용하여 귀족이나 연장자가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전쟁 경험이 많고 지휘 능력이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였고, 사병들도 정해진 군복을 입히고 최고의 보급과 장비를 지급하면서 상비군 체제로 훈련과 군기를 갖추게 하였다. 그 예로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에서 신모범군(New Model Army)을 창설하여 전문성 강화와 철저한 기율, 그리고 종교적 열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키웠다. 새로운 군대는 군복에 대해 더욱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때 군인들이 입은 유니폼이었던 영국군의 진홍색 상의(redcoat)는 19세기말까지 전통적인 영국군의 군복이 되었으

며 오늘날 군복의 통례가 시작되게 하였다.⁵ 같은 시기 근대전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 왕 구스타프(Gustavus II)는 유명한 전술체계 변화로 무기와 군대에 대한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⁶ 그 결과 유럽의 군대와 군복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각국은 군대가 확장되면서 전 시대의 용병체제에서 국민징집제도로 바꾸게 되었고, 이때의 모병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의 제도화 된 군복이 필요하였다. 이는 대규모 군대의 형성과 그들을 모집하고 훈련, 통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에 따르는 견장을 도입하기도 하였고, 군기를 잡고 사기를 북돋우는 수단으로 기능성 보다는 군대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체제의 군복이었다.⁷

국가에서는 관급체제로 국영제조장에서 표준화된 장비와 군복을 지급하였다.

주 무기가 창에서 칼이나 총으로 전환되는 시기였기에 가볍고 몸에 꼭 맞는 옷이 필요하였다. 즉 이 시기의 군대는 총병, 기병 등은 방어 무장 보다는 신속한 사격 동작을 위한 복장을 갖추고, 신에 무기로 총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병사들은 총사로 호칭되었다. 그 예로 '삼총사'는 유명한 세 명의 총사를 뜻한다.

군복의 변화 요인은 섬유 산업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제복의 구성과 선택은 많은

양의 직물을 소비 하게 만들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무기나 장비와 같이 의복도 표준화되어 가면서 민간인의 의복과 외양을 적용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의 복식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 반응이 있었다.

2) 18세기 군복

18세기 군복은 사상 최고로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상징성이 표현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전쟁은 7년 전쟁(1755년-1763년), 미국 독립전쟁(1775년-1783년), 나폴레옹 전쟁(1796년-1815년) 등이 있다.⁸

이 전쟁들은 대부분 왕조간의 전쟁이거나 대외적으로 무역과 식민지 문제로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따라서 군대에 대한 수요는 커졌으나 군대는 전쟁의 명분이 약하였다. 일반 국민은 병역 의무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이성과 자기만족의 가치가 두드러진 반면 국가의 공권력은 약해졌기 때문에 강제 모집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군대는 지원병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장식적이고 화려한 군복이 전시효과로 필요하였다.

전장에서는 무기가 총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총의 화력과 성능이 살상력이 약하여 전쟁은 서로의 군사 규모로 짐작하면서 대치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복은 방어나 보호기능을 요구하기보다 시각적 과장이 효과적 이었다. 즉, 총기의 화력과 숙련정도가 취약하여 화력 자체보다 아군의 숫자가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도록 눈에 잘 띄고 과장 되어 시각적으로 군대 규모가 확장되어 보이게 하여 적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효과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점차 화려하고 장식적인 군복은 행군이나 전투과정에서 앞섶이 거추장스러워지면서 앞섶을 옆으로 접거나 사선으로 정리하고 뒷부분을 줄이면서 대신 트임을 주게 되었다. 무기와 전술이 변화 하면서 군복의 형태는 기능적으로 간소해 졌으나 여전히 원색 군복에 견장, 모자, 수대, 밴드 등의 장식물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군복은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전투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발드릭(baldric), 긴 칼(sword), 깃털 장식 모자, 새시리본(sash ribbon)과 더불어 화려하게 장식된 유니폼으로 자리 잡아 갔다. 특히 발드릭은 17세기 유럽의 남성복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원래 군복에서 검이나 나팔 등을 운반하기 위해 어깨에 걸치는 띠의 형태로 장식과 실

용의 목적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매는 폭넓은 띠로써 복장의 일습을 갖추고자 긴 칼, 깃털로 장식된 모자, 새시리본과 같은 액세서리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18세기 군복은 점차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면서 장식성은 축소되거나 특별한 의미의 상징을 담아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후 이러한 군복은 군인들의 퍼레이드, 사관학교 의례행사에 입는 정장으로 자리 잡았고⁹ 오늘날 권위와 상징성, 전통을 보여주기 위한 유럽 왕실의 국가행사 의례복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 중에서 왕실이 유지되는 경우 왕이나 군주의 의례복식, 군대의 의례복에 잔존하고 있으나 일반복식에서는 사라졌다.

3) 19세기 군복

19세기 군복의 특징은 카키색의 보호색의 도입이었다. 보호색 군복은 제국주의의 결과로 다양한 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것과 총기의 발달로 인한 전투 방법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카키색 군복은 19세기 말 인도 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전쟁은 크림아 전쟁(1853년-1856년), 미국의 남북전쟁(1861년-1865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1870

년-1871년)이 있었다. 이때의 전쟁은 전 세계와 달리 총포의 발달로 게릴라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화려한 군복은 쉽게 적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아군입장에서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군복의 색채와 재료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즉 총기가 발달하여 총신도 작아지고 화력이 좋아지면서 전투복에 보호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동성이 좋은 형태가 요구되었다. 그동안 과장과 경교의 목적이었던 밝고 강한 원색의 군복은 사라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속부대 마다 특징 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점차 코트의 형태가 크게 바뀌면서 활동에 거주장스러운 부분은 잘리고 디자인 선이 간편해지고 색도 어두운 색으로 현대 정장 모닝코트 형태로 변화되어 군복에서 길고 장식적인 코트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발달된 총기의 사용으로 기동성이 필요한 결과였다. 세기 후반에는 사소한 전통의 차이가 남아있을 뿐 유럽의 모든 군복이 비슷하였다. 프랑스 보병은 붉은색 바지를 계속 입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카키색 군복을 입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세기는 근대기를 거치면서 군복에는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화되었으며 장식적이고 화려하던 전세기의 군복은 상징적인 장식으로 군복 일부와 남성복에 남게 되었

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일반 남성복과 군복 간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었으나 군대가 전 문화 되면서 군복의 기능성을 위한 개선으로 일반 남성복과 군복사이에는 차이가 점차 뚜렷해졌다. 세기 초 20여 년 간은 군복이 남녀의 복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테일에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 영국 수병들의 복장이 프랑스에 유입되어 유행하였고, 군복의 영향으로 남성복에서 금색 단추나 브레이드 장식이 유행하였다.¹⁰

2. 근대기 남성복의 변화

17C-19C간의 근대기는 유럽의 절대주의와 중상주의를 거치면서 국가나 왕조 사이의 끊임 없는 영토 전쟁, 신구교간의 종교 전쟁 그리고 시민의식의 변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등 다양한 형태의 격변의 기간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고 복식에서도 나타났다. 남성복은 상의와 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에서 기능성과 간편함이 갖추어진 상의는 코트와 구색을 갖추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셔츠와 조끼가 있다. 이 시기는 남성 상의가 길어지고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남성복 변화의 주체는 주로 상의에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형

태의 상의는 코트(cotte)라는 총칭으로 시작되었다.¹¹바지는 이미 일반적인 남성복의 형태를 갖추었다.

17세기부터는 남성복이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맞는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17세기 중반 즈음 네덜란드의 길고 느슨한 상의는 코트라고 불리며 군인이나 사냥꾼 등 서민과 다양한 계층에서 실용적으로 애용하였고 현대 남성복 재킷의 원형이 되었다.¹² 18세기 전반에는 남성복의 기본 형식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¹³

19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이들 상의는 재킷이라는 명칭으로 차츰 길이·형태 등에 있어 오늘날의 신사복에 접근해 갔다.¹⁴

19세기는 각국의 여러 군복이 남녀 복장의 장식적인 디테일을 위한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한 장식은 금색단추, 각종 엠블럼, 무겁고 정교한 견장까지 갑옷시대부터 비롯되어 20세기까지 계속 되었다.¹⁵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남성복으로 정리되어 예복용·회식용 등으로 턱시도 코트 등이 20세기에 이르러 형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남성복 형식인 여성용 코트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스포츠 참가와 깊이 관계되어 20세기 초부터 점차 보급되어 갔다.

1) 간편화에 의한 기능성

이 시기의 군복은 초기에는 밀착되고 과장된 형태에서 넉넉하고 간편하게 되었고 중간부터는 보행과 말 타기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되었다. 17세기 군복은 간편화의 영향으로 남성복도 활동적인 기능성을 갖게 되었다. 전 시대의 과도하던 장식 요소들이 간소화되고 남성복 상의의 허리부분 예각이 없어지고 길이가 짧아졌다.¹⁶ 군복이 정규 제복으로 통일된 유니폼으로 만들어지면서 남성복도 코트의 허리 예각이 없어지고 소매가 달리면서 넉넉해진 형태에서 세련되고 장식적으로 변화하였다.

18세기의 군복은 제식훈련과 행진 등에서 앞섶이 거주장스러워지면서 사선 처리를 하였고 기병의 라이딩 코트는 말을 탈 때의 말을 덮는 매우 넓었던 부분이 간소해지면서 뒤트임을 하였다. 일반 남성복은 군복의 간편화와 더불어 인체에 밀착된 연미형으로 간편화되었다.¹⁷ 19세기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현지 풍토에 맞는 소재와 색상이 요구되었고 또한 총기의 발달로 기동성과 보호색이 요구 되면서 국방색의 코트 식에서 간편한 상하 분리된 상의로 변화하였다. 남성복도 코트와 재킷으로 분리되어 간편하고 기능성을 충족하였다.

2) 장식화에 따른 상징성

군복에서 장식과 상징성은 피아의 구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17세기 군복의 상징성은 기본적으로 보병, 기병, 총병 등의 병과 표시였으며 모병, 체제 강화 등의 표식으로 계급별 견장, 소재, 색상 등이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로는 청, 홍, 녹, 오렌지 등의 상징 색이 군복에 나타났다. 남성복은 용병들의 군복에서 비롯한 브란덴부르크(브란덴부르크 지역의 넉넉한 코트 형 옷), 크라밋(크로아티아 식 목 장식) 등이 남성복에 나타났다. 브란덴부르크는 넉넉한 형태와 늑골 형 단추 구멍 장식과 커다란 단추가 특징이었고, 크라밋은 일반 남성복에 큰 가로 주머니, 넓은 커프스, 자수, 레이스 등과 더불어 군복과 남성복에 상호 영향을 주었다.

18세기의 군복은 제복에서 비롯한 새로운 계급이나 질서에 대한 구속력과 상징적인 수단으로 장식적이었으며 남성복 또한 시민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장식을 통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복식을 통한 상징은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제복이 입혀졌고 군주들도 예복이나 의전용으로 전통적이며 상징적인 제복을 입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군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적으로 제복만을 입었다.¹⁸ 남성복은 군복의 장식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받아들여 고급 소재 화려한 자수, 고가의 단추를 장식하여 남성복 사상 최상의 화려함을 표현하였고 이는 군복과 남성복의 복합적인 상징으로 현재까지도 유럽왕실의 공식행사에서 의전용으로 다양한 색상의 복식과 훈장이나 엠블럼 등을 장식하여 왕실의 전통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⁹

19세기에는 제국주의로 다양한 전투지역과 총기의 발달로 현지 풍토에 맞는 소재와 색상으로 보호색 군복을 입게 되었다. 군복에는 소속부대, 계급견장, 각종 엠블럼 등 상징적인 장식만 남게 되었고 남성복에는 금색 단추, 브레이드 등이 군복과의 상호영향으로 남았다.

3)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

17세기 군복이 제복 화되면서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였다. 이는 다음 시대의 대량생산, 기성복, 인체 표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군복의 실용성과 활동하기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식이 사라지고 규격이 정해지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였고 대중성을 충족하였다. 18세기 군복의 화려함이 남성복에 영향을 주었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전투 환경이 광범위해

지면서 군복은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합리적 형태가 요구 되었다.

19세기는 총기의 발달로 은둔 형 전투가 이루어지고 군대는 전문화되어 갔으며 전투 환경에 따라 소재와 형태가 다양해진 군복은 표준화를 통하여 대량 생산이 필수적인 군수품목이 되었다. 남성복에서도 기성복과 대량생산이 가능하였고 대중성을 갖게 되었다. 전 시기의 남성복 역시 간편하고 기능적이면서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제복의 영향이 커지면서 남성복은 점차 획일적으로 바뀌었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 현대적인 형태로 바뀌어갔다.²⁰

이상에서와 같이 군복과 남성복은 기능성과 관련하여 간편해지고 군복으로써의 장식들은 다양한 상징성으로 역사와 전통으로 남아있으며 현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도 군복의 표준화 규격화 과정은 현대 남성복의 대량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1>에서는 군복과 남성복간의 영향 요인을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III. 결론

근대기의 군복과 남성복은 상호 영향 속에서

간편해졌으며 군대 체제에 필요한 상징성에 의해 장식화 되었고 대량생산을 위하여 표준화되면서 대중성을 가져왔다. 군복과 남성복은 근대기를 거치면서 상호 영향으로 현대적 남성복의 근간을 만들었다. 근대기는 군사적으로 본격적인 전환기로써 군대는 모병, 체제, 무기에 따른 전술, 그에 따른 훈련과 군기, 군복의 표준화 등이 체계를 잡아갔다. 따라서 군복은 모든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사회는 정치체제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으면서 남성복에도 변화가 필요하였는데 군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로 군복스타일과 시민복스타일에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두드러졌다.

군복이 간편해지면서 남성복도 넉넉하면서도 간편한 형태로 변화 하였다. 근대기 초기의 넉넉하고 편안하던 군복이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수직으로 잘리고 디자인 선이 간편해지고 색도 어두운 색으로 변하면서 남성복도 기능성과 상징성을 표현하게 되었고 점차 현대적으로 발전하였다

군복의 상징성은 군사경쟁 시대의 국력의 표시였으며 국가와 소속부대 마다 특징 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군복에서 발드릭이나 각종 장식은 예복으로 체계화되어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예복은 현재까지 왕실의 **의전용 행사에서 군복과 남성복의 복합적인 상징**의

〈표1〉 군복과 남성복의 상호영향 요인

	기능성(간편화)		상징성(장식화)		대량생산(표준화)	
	군복	남성복	군복	남성복	군복	남성복
17C	명칭 - 캐식(카라크) - 브란덴부르크 - 전 시기의 밀착형에서 길고, 넉넉해짐 정규제복 - 통일된 유니폼 간편화 - 패드, 퍼프 - 슬레시 없앰	명칭 - 더블릿(영) - 푸르프앵 - 쥐스토코르 형태 - 허리 예각이 없 어짐 - 소매 달림 장식 특성 - 넉넉함에서 세련되고 장식적	병과표시 - 보병, 창병 기병, 총병 지역상징 - 브란덴부르크, 크로아티아 체제 강화 - 계급별 견장, 소재, 색상 국가별 - 색상(청, 홍, 녹색)	명칭 - 쥐스토코르, 브란덴부르크 지역상징 - 크라밧, 캐식 장식특성 - 단추장식, 큰 가로 주머니, 넓은 커프스, 자수, 레이스	제복으로 규격화	실용성 활동하기 편함
18C	보병 - 제식, 행진 - 불편함 - 앞섶 사선처리 기병 - 르댕고트의 스킷트 부분이 간소해지고, 뒤트임	명칭 - 르댕코트, 프락 형태 - 연미형, 뒤트임	모병제도 - 지원병 관심을 위한 화려한 군복의 전시 효과 전술 - 총기의 화력약화로 과장을 위한 확장색 장식화 - 견장, 수대, 모자 등 화려함 전승 - 전통, 권위와 상징, 군 행사 의례복	명칭 - 쥐스토코르, 아비 아라 프랑세즈, 프록코트, 르댕고트 형태 - 고급소재, 화려한 자수, 고가의 단추 장식 특성 - 귀족, 유럽왕실 의례복	군대 표식 - 색상, 소재의 규격화, 형태의 표준화	생활환경의 광범위로 다양한 소재와 합리적 형태
19C	제국주의 - 현지 풍토에 맞는 소재, 색상 총기발달 - 기동성 필요함 - 보호색 형태 - 코트식에서 간단한 상하 분리식	명칭 - 코트, 재킷 장식특성 - 기성복으로 표준화	상징적 장식 - 견장, 소속부대, 엠블럼	군복 상징 - 금색 단추, 브레이드 장식특성 - 소재와 디테일	보호색 - 총기 발달로 은둔형 전투. - 군대의 전문화로 대량생산	생활환경, 소재, 형태 등의 다양화 기성복화 - 대량생산

	기능성(간편화)		상징성(장식화)			대량생산(표준화)	
							
	〈그림〉 간편 기능성 - 서양의 복식 문화와 역사, 208.	〈그림〉 간편 기능성 -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300.	〈그림〉 영화 - 아이언 마스크.	〈그림〉 장식성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29.	〈그림〉 표준화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34.	〈그림〉 표준화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35.	
							
	〈그림〉 기능화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cover	〈그림〉 기능화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24.	〈그림〉 상징성 -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25.	〈그림〉 장식성 -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314.	〈그림〉 장식성 - 장식성 The visual dictionary of military uniforms, 22.	〈그림〉 표준화 - 서양의 복식 문화와 역사, 237.	〈그림〉 표준화 - 현대 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213.

로 다양한 색상의 복식과 훈장이나 엠블럼 등을 장식하여 왕실의 전통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군복의 표준화는 모병제와 훈련, 군기와 명령 체계의 필요에 의하여 계급, 소속, 병과 등을 표현하였다. 표준화된 군복은 이전의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전통들이 부대를 식별 하거나 부속품으로 계급을 식별하는 등 사소한 전통의 차이만 남아있다. 군대는 점차 상징적인 마크나 엠블럼 등으로 축소되고 군복은 대량생산을 위하여 규격화, 획일화로 변해 갔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대량 생산된 군복으로 대부분의 병사들이 비슷하게 카키색 군복을 입었다. 군복의 표준화에 의한 기성복 제작은 남성의 기성복과 대량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 남성복인 양복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킷은 근대기 군복과 남성복의 상호 영향으로 정리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근대기의 군복은 전쟁과 무기·전술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남성복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가치체계에 따라서 군복과 상호영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군복은 남성복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남성복에서 볼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본 연구는 근대기 시대적 환경을 배경으로 군복과 남성복간의 관계를 군복의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찾아서 남성복과 연계하여 고찰한 것으로

해석에 다소의 제한점을 갖는다. ❌



(주)자유전설은 기술, 책임,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
공항, 비행시설, 오피스의 전기 통신공사 전문시공업체



고객감동

최고의 품질

철저한 사후관리



(주)자유전설은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기, 통신분야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4차 산업사회의 중추기업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기

제14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윤자중 동문이 2017년 7월 12일 별세했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총 80회 출격해 주요 작전을 수행했으며, 351고지 항공지원작전 등 중요 전투에서 맹활약하며 전쟁승리에 기여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참모총장에 올랐으며 재임당시 전방지역 지상군 작전에 대한 항공지원 및 전술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제8전술통제비행단(현 공군8전투비행단)을 창설하는 등 공군의 전술·작전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5기

5기 동기회(신성회)는 159명이 졸업 및 임관하여 현재 해외 19명, 국내 63명의 동기들이 있다. 매주 목요일 하늘공원, 일산호수, 어린이대공원 등 산책모임과,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찬회, 소수의 인원이지만 2주 1회 바둑모임을 가지며 동기 단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성회 카페와 이메일을 통해 국외 동기들과도 자주 소통하며 생도 때 맺어진 전우애를 변함없이 유지해나가고 있다.



7기

故 공영화 동문의 유가족들이 '제주 보라매 나눔의 집'을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제주 보라매 나눔의 집은 공영화 동문이 2004년 제주시에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 2009년 공 동문의 별세 이후에도 유가족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군도 사랑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매년 3월부터 지역별로 의류, 도서, 가전제품 등 재활용품들을 모아 나눔의 집에 전달하고 있으며, 나눔의 집은 기증품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을 매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10기

15년 전부터 시작된 심철산우회는 주3회 모여 걷기운동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연간 100만원씩 하늘사랑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결과 금년 5월 누적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순직자 유자녀들을 도울 수 있음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 기부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16기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16기 회원 및 가족 180여명은 5월 26일 모교에서 임관 기념행사를 가졌다. 모교 발전기금으로는 1억 4천여만원 (16기 동기회, 강안석, 김희동, 박성국, 박영기, 이상렬, 이재기, 장진수, 정해창, 주창성 각 1,000만원 외 동문 32명 4,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관행사 후에는 충주호 관광 및 청풍리조트에서 축하연을 가졌으며, 다음날은 문경새재 3관문 산책코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17기

이한호 동문이 3월 28일 제26대 공군전우회 및 제7대 공군발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에 동기생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금일봉은 전달하며 공군인의 전우애를 다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4기 지도근무 선배를 모시면서 시작된 지도근무와 메추리의 만남이 4회째 이어지고 있다. 함께 등산을 하면서 훈련 시절, 전우로서 공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추억들을 공유하는 등 이 뜻깊은 만남이 전 기수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20기

김성일 동문이 2017년 9월 8일 제18회 IPC 정기총회에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이하 IPC) 집행위원으로 당선됐다. IPC 집행위원은 IPC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감독하는 자리로서 예산, 재정, 정책, 규정, 규칙, 상임위원회 규정 등 중요 사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다. 김성일 집행위원은 “IPC 집행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택기 동문이 3월 서울 양천구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회장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우리 향군이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양천향군의 역할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2기

이영하 동문이 2017년 11월 1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자랑스러운 예비역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예비역상은 2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예비역 중 국민계도활동이나 봉사활동, 군과 예비역을 위한 자랑스러운 활동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예비역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4기

이재강 동문이 제2대 국방전직교육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전직 컨설팅, 연계/주문식 교육 등의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 취업박람회, 구인처 발굴,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취업 추천 등 다양한 전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강 신임원장은 앞으로 3년간 국방전직교육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25기

윤용현 동문이 5월 1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방문인MBA과정, 국방문인R&D센터 특임교수로 부임했다. 윤용현 교수는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중의 하나인 드론산업의 주역이 될 후학양성을 위한 무인기학과 개설준비와 강의는 물론 한국의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26기

26기 동기회(아람회)는 매 분기 중대별 산책 모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테니스 모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등산 모임, 수시 자전거 모임, 매주 월요일 당구 모임, 매월 골프 모임, 수시 지역별 모임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1번 국도, 8전비/전통사, 동부지구, 서부지구 민항) 등 다양한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동기생간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28기

김도호 동문이 1월 22일 군인공제회 제1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군인공제회 설립 이래 공군 출신 이사장은 처음으로써 김 동문은 취임식에서 ‘혁신경영으로 회원 만족 극대화’를 이뤄야 한다며 3가지를 강조했다. 이는 ▲소중한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제도발전 및 회원복지 증진 기여 ▲시장 변화에 부합된 자산운용과 신성장 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 규모 10조 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진화된 경영관리시스템 발전이다.



38기

현인하 대령이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가 선정하는 '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발간 기관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해마다 외교, 군사,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세계 상위 3% 이내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현 대령은 위치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학술지에 총 16건의 시스템제어 및 무선통신 분야 논문을 기고하는 등 다수의 연구실적을 남겼으며, 공본 정보화기획과장으로서 공군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0기

강선도 중령이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가 선정하는 '2017년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 중령은 영상에서 특정 피사체를 추출하는 기법에 대한 다수 논문 저술과 국제학술대의 발표 외에도 연구실적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을 보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산업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5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 등재에 이어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5기

오형섭 중령이 '2018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오 중령은 3년여 동안 국방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IT신기술정책담당으로 근무하며 국방 ICT 융합정책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개념을 적용한 국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기술개발 등 상용 ICT분야의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에 기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ICT 실무역량 진단 및 평가체계인 'TOPCIT'를 전군에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 및 획득에 공헌했다.



51기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조종사 김상원 소령이 2017년 '탑건(TopGun)'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상원 소령은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탑건이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편조로 대회에 참가한 동료 조종사들의 도움과 대대원들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가족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소령은 대회 상금 300만원 전액을 순직 조종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66기

김하현 소위가 공사 총동창회장상인 성무보라매상을 수상하였다. 김 소위는 "성무보라매상은 사관학교 교육과정동안 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동기들과 훈육요원님들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66기 대표로서 동기생들과 공군 선배님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공군 정예 장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주신 총동창회장님과 저에게 이 상을 허락해 준 동기, 훈육요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랑 66기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 공사 동문회

미주 공사 동문회(회장 심인태, 30기)는 지난 12월 7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대부분이 참전용사인 노병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공군 안보현장 견학담을 나누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등 동문간의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창군 최초 부부 비행대장 탄생



공군 창군 최초의 부부 비행대장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19전투비행단 155대대 김동우 소령(공사51기)과 제5공중기동비행단 258대대 이인선 소령(공사51기) 부부이다.

KF-16 전투기 조종사인 김 소령은 비행시간이 1천540시간으로, 한미 공군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여러 번 참가했다. CN-235 수송기 조종사인 이 소령은 공지합동작전학교 공수작전 교관, 공사 군사작전 교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 소령의 비행시간은 2천250시간이다.

공사51기 동기로서 2005년 부부 조종사가 된 두 사람은 13년의 결혼 기간 중 두 사람이 따로 지내야 했던 기간은 9년이나 된다. 2010년에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 육아는 경북 경주의 이 소령 어머니에게 맡겨야 했다. 지금도 부부와 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주말에만 한자리에 모이는데, 헤어질 때마다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아들 때문에 힘겨웠다.

이 소령은 "부부 조종사로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종사라는 자부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아들에게는 자상하고 모범이 되는 부모가, 비행대장으로서의 후배 조종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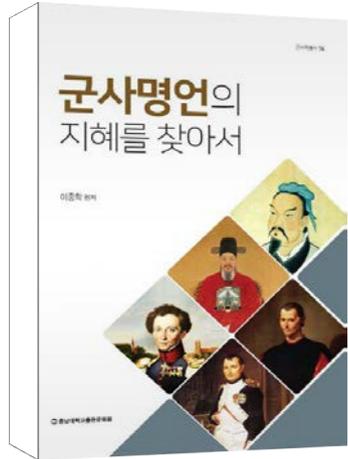


서울 ADEX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9. 10. 15 (화) ~ 20 (일) / 서울공항



군사명언의 지혜를 찾아서

이종학 저 (3기),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서라벌군사연구소장 이종학 동문이 동·서양 역사 속 명장의 군사 명언을 총망라한 신간을 펴냈다.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특임교수이기도한 저자는 평생을 군사학 연구에 바친 영원한 현역이다. 다양한 명장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전장에서의 작전과 전략의 지혜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자질과 판단에 따라 전쟁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고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순신, 나폴레옹, 클라우제비츠 등 명장들의 메시지에서 승리의 지혜를 얻는다.



6.25 전쟁과 정보실패

장호근 저 (17기), 인씨의 창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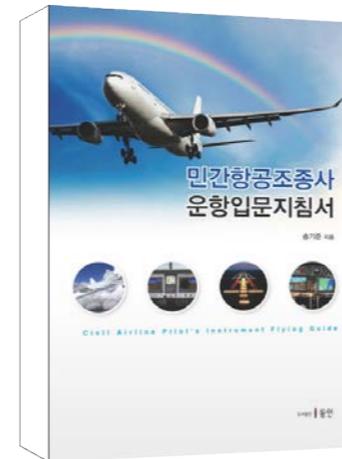
장호근 동문이 6.25 전쟁을 예리하게 분석한 책자를 펴냈다. 30여년을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로 근무하는 동안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국가급 정보자산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직책을 역임한 저자가 국가정보학에 관심을 갖고 정보실패의 개념에서 6·25전쟁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과거 6·25 전쟁에서 범한 정보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일선 조종사 이야기

정용진 저(18기), 가이아의어깨 펴냄

정용진 동문이 조종사 지망생들에게 도움이 될 책자를 발간했다. 저자가 어린 시절 하늘을 나는 F-86 전투기를 보고 조종사를 꿈꿔 공사에 진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조종사들을 위해 쓴 지침서로서 1969년 4월부터 조종간을 잡기 시작해 13년간 전투기를, 전역 후 대한항공 조종사로 13년간 여객기를 조종하며 1만8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비행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민간항공조종사 운항입문지침서

송기준 저 (25기), 동인 펴냄

현재 민항기 기장인 송기준 동문이 조종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비행참고서를 발간했다. 42년간의 비행경험을 집약해낸 책자에는 현재 민간항공사에서는 어떻게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종사가 비행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으며, 기성조종사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비행기법과 유의사항, 조종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법, 그리고 비행용어에 대한 해석들을 곁들였다.



2018년 달라지는 공군 업무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진취적 공군으로 도약
무기체계 전력화, 정예전사 양성 위한 교육·훈련 개선, 장병 복지 향상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에 전념**

공군은 2018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2.0과 함께 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해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공군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군은 완벽한 영공방

위태세 및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해 무기체계의 적기 도입 및 안정적 전력화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F-X사업, 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개량형 패트리엇 등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의 도입과 전력화 준비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수용시설 보강과 지원요소 확보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군은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과환경 변화로 인한 고가치 정밀무기체계, 고고도무인정찰기의 운용제한 및 전력손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군기상단 내 우주기상팀을 신설하여 우주기상 예·경보 업무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맥스언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한국공군의 해외 훈련 및 에어쇼 참가도 연중 시행된다.

공군은 2월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서 실시되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훈련인 ‘코프 노스’에 참가하기 위해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N-235 수송기를 파견하고, 9월에는 미국 알래스카 아이슬스 기지에서 진행될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력이 참가해 연합 작전수행능력을 신장한다. 또한 2월과 10월에는 블랙이글스가 각각 싱가포르와 경남 사천(제3훈련비행단)에서 개최될 예정인 에어쇼에서 화려한 비행기동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제고는 물론 국산항공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방산수출 기여에 나선다.

짜워서 이기는 정예 장병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분야도 개선된다.



먼저,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체계 확립을 위해 비행교육과정¹에서 가속도 훈련 체계가 강화되어 시행된다. 이전까지 새내기 조종사들은 G-Test에서 단 한 번의 평가로 비행자원이 분류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훈련 조종사의 가속도 훈련 간 의식상실(G-LOC)에 대항하는 능력을 지속 향상시키기 위해 ‘중력가속도 내성 증진기법(AGSM²)’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 시행하고, 훈련조종사들의 가속도 최초 훈련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훈련 조종사들의 가속도 내성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환경에서 전술데이터링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2013년 전군 최초로 전술데이터링크 교육 기본과정을 개설하고,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중급과정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는 고급과정을 신설하여 전술데이터링크 전문요원 자체 양성능력을 강화한다.



전투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대상 실질적 복지수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초급간부 숙소 환경 개선, 지진대비 내진설계를 적용한 병사생활관 신축, 여의도 조종사숙소 입주 등 안정적인 주거여건 제공으로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부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통한 군가족 보육서비스 향상 등 장병들이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1 훈련조종사 양성 비행교육과정 : 입문, 기본, 고등, LIFT(전투기 입문과정, Lead-In Fighter Training)/CRT(기종전환 및 작전가능훈련, Combat Readiness Training)로 구성
 2 AGSM(Anti-G Straining Maneuver) : 중력가속도 내성 증진기법



자연에서 갓
따옴



일등 한화의 힘은 혁신입니다.

자체기술로 10년이 걸리는 개발기간을
4년 6개월로 단축해 세상을 놀라게 한 천무!
(주)한화는 도전과 혁신의 힘을 믿습니다.

혁신적인 Defense Solution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주국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합니다.

(주)한화/방산

1st

총동창회 알림

- 정기총회
-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전역자 현황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편집후기/기고안내



정기총회

제25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5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운영할 제26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무 보고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10,034명
- 현재 인원 : 9,151명
- 예비역 인원 : 5,050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기금 인수	1,063,573,639	24차년도
25차년도 적립	33,676,719	평생회비: 20,000,000 이자수입: 13,676,719
적립 총액	1,097,250,358	

25차년도 운영중점

‘동문 상호간 신뢰하고 참여하는 총동창회’

1.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자긍심 고취
2. 공군 및 모교 발전 적극 지원
3. 안보전문 집단 역할 수행
4. 사업 추진의 내실화 및 효과 제고

주요 추진사업 현황

1. 부대 격려 방문

- 가. 상급부대 :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 나. 전방부대 : 제8785방공관제대대, 제536방공포대
- 다. 격려금 전달 및 총동창회 현황소개,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성무인 가을축제 (흙커밍 행사)

- 가. 일시 : '17. 11. 3 (금)
- 나. 예비역 동문·가족 참여 축제
- 다. 주요행사 : 성무의식, 생도 격려품 전달, 청남대 관광 등

3. 총동창회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

- 가. 일시 : '18. 5. 26 (토)
- 나. 참가대상 : 16기 (50주년), 26기(40주년), 36기(30주년), 46기(20주년), 56기(10주년)
동문 및 가족 등 약 1,000여명
-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기별 자체행사
- 라. 모교 발전기금 전달 : 총 1억 7천만원

4. 66기 사관 졸업식 행사 지원

- 가. 총동창회장상 (성무보라매상) 수여 ('18. 3. 5) : 소위 김하현
- 나. 졸업생도 특강 및 졸업선물 증정 ('18. 2. 7)

5.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위로행사

- 가. 일시 및 장소 : '17. 12. 7 (수) / 공군회관
- 나. 참석 : 순조회 회원 / 총동창회 임원 등 50여명

6. 친목 행사

- 가. 등산대회
- 서울대공원 ('18. 4. 25) : 220명 참석
-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 ('17. 11. 15) : 6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대국

7.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 가. 총동창회장 졸업생도(66기) 특강 ('18. 2. 7)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 ('17. 9. 15)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7. 9. 20)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7. 9. 23)
- 마. 현역 후배 간담회 (부대 방문시)
- 바. 기타 간담회 (수시)
- 사. 각 기생임원 대상 총동창회 서신 발송 (수시)

8. 조문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 공지
- SMS 전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를 통한 조문 (175회)

9. 공군·모교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가.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1,000만원)
- 나.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
- 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군 주요 현안 적극 홍보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24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안건 2. 25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안건 3. 25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운영금 현황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25기 찬조	9,000	9,0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7~45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00	800	
광고비	3,000	4,00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4,480	15,580	

회원/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박종현(24기)	100
심인태(30기)	30	정규혁(3기)	20
김재윤(4기)	10	서동열(4기)	10
최홍선(5기)	10	정지수(10기)	10
전공상유공자회	10		

후원

25기생회	사무실 에어컨 기증
-------	------------

회비 납부 안내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적립기금으로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로써 일인 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가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258-770447 예금주 : 이태인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 분담하여 지원하는 당연직 이사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8~25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6~46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6차년도 운영기수는 26기로 이사기수는 18기~46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평생회비 완납기수

1~34기, 59기, 61기, 63기, 65기 완납

25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7.07.01~'18.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35	249	111	138	고상용, 구영희, 권우택, 김광제, 김대중, 김동욱, 김성국, 김세겸, 김완수, 김용하, 김윤섭, 김윤태, 김응구, 김일진, 김종렬, 김지식, 김철곤, 김춘식, 김충은, 류한현, 류 훈, 박동균, 박성욱, 박우선, 박인호, 박종연, 배대익, 변철구, 서진원, 서해림, 송철웅, 신선우, 왕승규, 우정훈, 유명준, 유영규, 윤성한, 윤정배, 이권우, 이대성, 이두원, 이승훈, 이욱형, 이원석, 이재완, 이재학, 이창엽, 임익호, 장상윤, 전계진, 전상희, 전종찬, 전진곤, 정연우, 정영식, 정윤기, 정진원, 정흥권, 조규진, 주원영, 차호선, 최광욱, 최부용, 최재만, 최훈문, 한인환, 허봉근		
36	263	29	234	박동진, 유문근		
37	255	72	183	김상호, 김호덕, 도성찬, 여호금, 오왕욱, 이재만		
38	238	73	165	강봉주, 김경민, 김선하, 김수진, 김종운, 김창호, 김태수, 남기은, 남이훈, 문희찬, 박영철, 서세광, 유재문, 이계재, 이동규, 이영수, 이채석, 임병문, 장영배, 전민호, 조희상, 홍동욱		
39	223	16	207	전인석		
41	241	8	233			
43	271	26	245			
45	220	21	199	이형섭		
47	201	5	116	송교수		
49	200	3	197			
51	203	2	201			
53	211	3	208			
55	186	2	184			
57	157	155	2			
60	148	1	147			
64	160	50	110			
합	현재인원 : 9,225		납부인원 : 4,361		미납인원 : 4,864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12.7.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현황

(2017. 6. 30 이전)

기수	납부자명단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강효석, 강 훈,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김준식, 김환중,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오준영, 온용섭, 유진현, 윤재룡, 이강래, 이건승, 이동규, 이봉우, 이성룡, 이영배, 이장룡, 이재길, 이치원, 임채현, 장기홍, 정상윤, 정상채, 정수성, 정연우, 조영식, 조철희, 차호선, 최병오, 최석인, 태명철, 한수익, 홍순실
36	김남돈, 김보현, 김성균, 김원수,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대광, 박문덕, 박영준, 박종국, 박홍식, 백은성, 오형식, 윤성모, 이강택, 이수복, 이수성, 이준모, 임이철, 전재용, 정상화, 조덕구, 최성천, 최혁준, 황선남
37	감명식, 강동우, 강봉수, 강순부, 고영록, 곽영상, 구관모, 권오창, 기군도, 기노신, 김경의, 김복재, 김시철, 김신곤, 김연규, 김정윤, 김종길, 김종환, 김주영, 김준식, 김호동, 나은일, 박상균, 박성률, 박영민, 박찬덕, 박창식, 박하식, 방광선, 배순욱, 서민오, 서석민, 손해용, 송상윤, 송영근, 신명철, 신현만, 심재호, 오상진, 오승훈, 오재일, 우경준, 윤재훈, 윤택명, 이강희, 이경봉, 이규환, 이동훈, 이두형, 이성희, 이승현, 이용호, 이종호, 이준혁, 이재섭, 임종필, 장경근, 정낙현, 정태성,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최민호, 최윤곤, 최종택, 황 승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기영, 김기준, 김봉주, 김봉희, 김승호, 김완룡, 김일규, 김정태, 김성준, 김용운, 김형오, 노은오, 류시영, 박경환, 박삼영, 박상묵, 박종환, 박창규, 방정열, 성규철, 성상택, 손인호, 송익상, 송환진, 신명섭, 신보현, 심재환, 여호승, 오충현, 우태하, 윤병호, 윤보정, 윤상보, 이기석, 이동기, 이동민, 이동원, 이수만, 이원범, 이정호, 임종표, 장창열, 정위석, 차재훈, 최정현, 최재혁, 홍순표, 홍준표
39	강진구, 권성범, 김순태,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종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문일, 김성민,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서철모, 손정국, 손정환, 이길주, 이도균, 이만우, 이봉세, 이선근,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류진산,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주영진
42	강문중,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김현준, 민경욱,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강현민, 고경덕, 구상모, 김상진, 김용재, 김정수, 김 태, 남보현, 류강원, 박상현, 박수라, 박용석, 성기모, 오동식, 이경영, 이경호, 이성진, 이종원, 이종훈, 정재식, 정창욱, 조진호, 주성규, 최원진, 추교진, 표현상
44	김도현, 김상훈,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선종규,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규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양슬문, 장범산, 최철호
47	김호룡, 신범수, 양경주,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역,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호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중훈, 이창중,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전찬삼,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규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김선태, 이상현, 이수리, 정기웅
50	안성민, 양정환, 최성신
51	김태연, 정진규
52	박인철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5	염지운, 이영철
56	권기호, 이한준
57	강윤호, 강종형, 강주완, 강태훈, 고영재, 구자훈, 금민석, 김남규, 김남수, 김남영, 김대호, 김민석, 김병석, 김상혁, 김상협, 김선경, 김선형, 김성윤, 김성호, 김승현, 김애리, 김완규, 김우익, 김윤태, 김은수, 김의중, 김재동, 김정도, 김정한, 김주영, 김주영, 김준성, 김태성, 김태우, 김태준, 김태형, 김현승, 김형대, 김혜미, 김홍태, 나순권, 나종현, 남상범, 남현수, 노승훈, 노종부, 노홍수, 박 철, 박민호, 박상수, 박성준, 박성필, 박세진, 박세희, 박수민, 박원주, 박유민, 박정혜, 박주한, 박준형, 박찬일, 배영진, 백창훈, 서용근, 서우형, 송민수, 송성욱, 신상춘, 신소영, 신정훈, 신호인, 안병수, 안종찬, 안준용, 안찬식, 양기훈, 양선열, 여명환, 여성현, 연도형, 오연훈, 오원재, 오치목, 오현진, 유승호, 윤동민, 윤재길, 윤지훈, 이 완, 이경열, 이경준, 이기문, 이대원, 이동훈, 이명재, 이민혁, 이상익, 이성훈, 이세리, 이소영, 이승규, 이승준, 이승철, 이영재, 이영철, 이영형, 이용길, 이우영, 이재호, 이정훈, 이준범, 이지민, 이진혁, 이진호, 이철수, 이태호, 이향진, 이호정, 이효원, 이희천, 임지선, 장 관, 장관석, 장동민, 장명환, 장상기, 장태권, 정다정, 정상현, 정영재, 정인식, 정준영, 정해민, 정현철, 조우진, 조우철, 조윤철, 조재범, 조준희, 진해중, 최금록, 최미나, 최선아, 최슬기, 최승욱, 최형일, 추미정, 한재선, 허상영, 허윤철, 홍성인, 홍호균, 황두환, 황만기, 황성원
60	이승우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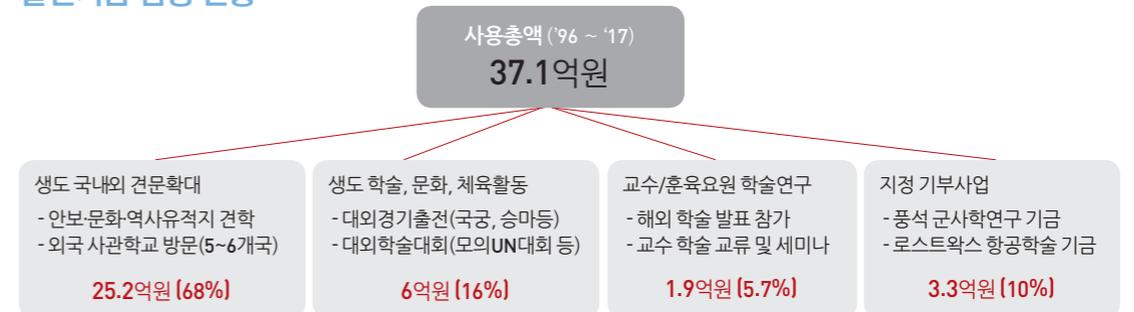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국고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 및 단체	47억원	(주)삼성테크윈 등 82개 단체
동 문	37억원	학교 동문 3,600여명
학부모/후원자	4억원	학부모/후원자 등 430여명
합 계	88억원	총 4,030명 82개 단체

발전기금 집행 현황



※ 기금 원금은 연구 보존, 이자수입(1.89% ~ 4.00%)으로 사업 운영

기부자 예우

- 학교본부 기부자 현황(사진, 기부금액) 유지, 고액출연자 기금출연행사 등
- 연말소득공제 및 학교시설 우선 이용 혜택(야외결혼식장 등)

참여안내

- 무통장입금(예금주 :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국민은행 401-01-0662-701 / 농협 303-01-345036
우체국 300038-01-003768 / 기업은행 293-063303-01-011
- 문의전화 : 043-290-5716~7 / FAX : 043-290-0922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총 자산 88억원 ['18.6.15]

■ 1억원 이상 (15)

삼성테크윈(주)(10억1천)	삼양화학공업(주)(7억3천1백)	(주)부영(6억)
대우중공업(주)(5억)	이종학(공사3,2억6천2백)	한국항공우주산업(주)(2억)
최동환(공사27,1억6천)	공사발전후원회(1억5천9백)	공사학부모모임(1억4천1백)
보잉코리아(1억2천6백)	장지량(9대공참총장,1억5백)	(주)메타바이오메드(1억1백)
한국로스트웍스(주)(1억)	(주)한라이앤씨(1억)	(주)오티씨테크놀로지(1억)

■ 5천만원 이상 (13)

록히드마틴 글로벌인크	(주)블루니어	손영길(육사11)	(주)원일인터내쇼날
51기 동기회	52기 동기회	53기 동기회	55기 동기회
56기 동기회	57기 동기회	58기 동기회	60기 동기회
61기 동기회			

■ 1천만원 이상 (131)

강민수(공사9)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회	(사)공군발전협회	공사총동창회	곽현성(공군가족)
국민은행분점지점	국민카드	국제라이온스협회충북지구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남돈(공군가족)	故김대욱(공사15)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덕훈(공사15)
김도영(공사1)	김무신(공사13)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양수(공사13)	김영권(공사29)	김용찬(공사11)	김용철(공군가족)	김은기(공사22)
김재환(란스튜디오)	김주식(공사15)	김진수(공사31)	김진호(공사27)	김 현(공사14)
김홍래(공사10)	류조형(공사14)	(주)바이텍정보통신	故박덕희(공사12)	박영민(학사53)
박원석(학사2)	박종철(공사23)	박진숙(공사5)	박춘택(공사12)	배양일(공사12)
보라매법당	서동열(공사4)	(주)서로윈	서정욱(학사37)	서진태(공사8)
故석영우(공사14)	소망교회	승진기술(주)	신동열(공사14)	신동윤(공사12)
(주)실리콘화일	안병철(공사13)	안병하(공사13)	안택순(공사14)	엄익준(공사15)
온성철(공사4)	(주)우성플라테크	원불교충북교구	유상신(공사8)	육도석(공사14)
윤대봉(공사8)	이광학(공사11)	이기현(공사13)	이성재(공사25)	이양호(공사8)
이역수(공사14)	이에스더, 장덕복목사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임길순(공사14)	임용환(공군가족)	장덕수(공사13)	정성규(공사14)	故최상욱(공사15)
최성열(공사15)	최용철(공군가족)	최용환(공사15)	故최진형(공사56)	태중민(공사13)

하정호(전경련MIGAMP회장)	한광희(공사9)	한정구(공사14)	한국치공구공업(주)	한길씨앤씨(주)
해인사(대한불교조계종)	故허규열(공사14)	허차동(공사11)	홍재학(공사4)	(재)화암학술연구재단
(주)효광	강안석(공사16)	김두만(학사5)	김용주(공사4)	김용홍(공사26)
박성국(공사16)	박영기(공사16)	이상렬(공사16)	이재기(공사16)	장진수(공사16)
정해창(공사16)	주창성(공사16)	1기 동기회	2기 동기회	3기 동기회
4기 동기회	5기 동기회	6기 동기회	7기 동기회	8기 동기회
9기 동기회	10기 동기회	11기 동기회	12기 동기회	13기 동기회
14기 동기회	16기 동기회	17기 동기회	18기 동기회	19기 동기회
20기 동기회	21기 동기회	22기 동기회	23기 동기회	24기 동기회
25기 동기회	26기 동기회	28기 동기회	30기 동기회	31기 동기회
32기 동기회	33기 동기회	34기 동기회	35기 동기회	36기 동기회
37기 동기회	38기 동기회	40기 동기회	41기 동기회	42기 동기회
43기 동기회	44기 동기회	45기 동기회	46기 동기회	54기 동기회
59기 동기회	62기 동기회	64기 동기회	65기 동기회	

■ 5백만원 이상 (30)

경주전장	故공영화(공사7)	김규태(공군가족)	김락은(공군가족)	김보현(공사36)
김선곤(공군가족)	김인기(공사3)	김재식(공군가족)	박지훈(공군가족)	박찬옥(공군가족)
배양웅(공사15)	신길수(공사15)	안창명(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윤익수(학사37)
이봉운(공사24)	조광제(공사33)	차정열(공사15)	초청노인병원	최부용(공사35)
15기 동기회	212대대비행교수회	27기 동기회	29기 동기회	39기 동기회
47기 동기회	48기 동기회	49기 동기회	50기 동기회	66기 동기회

■ 3백만원 이상 (22)

강남서울안과, 평택서울안과	공사성무교회	국제로타리 3740지구	권혁달(공사9)	김경복(공사3)
김광은(군교수)	김동수(공사32)	김윤기(공사16)	농협(청주물류센터지점)	(주)루시건설링
서명교(공사46)	임상훈(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전승혜(군교수)	정희두(공사45)
(주)제니엘	조미행(공군가족)	조영식(공사35)	주님의교회	한정렬(공사27)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 1백만원 이상 (332)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성철(공사23)	강수준(공사22)
강치행(공사23)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사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27기지용 3편대원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과원향공과 01졸업생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건삼(공사15)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故김낙규(공사1)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동호(공사3)	김두만(학사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부근(공사14)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덕(공사15)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세현(공사50)
김연호(공사34)	김연철(공사32)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규(공사47)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학사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기(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형철(공사28)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남완수(공사39)	(주)다우산업	도성한정식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자(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봉룡(하와이한인회장)	박성국(공사16)	故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걸(공사15)	박종선(공사14)	박종화(공사23)	박주경(공사53)	박준범(공사49)
박창권(공사27)	박흥식(공사34)	배기준(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남철(공사15)	백동기(공사16)	(주)비씨카드	서석민(공사37)	(주)서울고속
(주)선우켄텍	설현주(공사41)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주)세일하이텍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대성(공사17)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균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故신표근(공사18)	심상철(공사26)	심성용(공사46)	심인태(공사30)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양철환(공사29)	엄상영(공사24)	故연양희(공사21)
오윤희(공군가족)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필환(공사23)	온용섭(공사35)	외환카드	위강복(공사33)	(주)원플로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흥(공사21)	유준종(공사33)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상주(공사25)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강희(공사37)	이건완(공사32)	이경란(공군가족)	이경훈(공사30)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호(공사41)
이길영(공사45)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남진(공사24)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식(공사43)	이문호(공사17)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우(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승현(공사37)	이영준(공사18)	이영해(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교(하와이공군전우회)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윤(공사45)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일(공군가족)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숙(공군가족)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규(공사42)
이태식(공사11)	이태윤(공군가족)	이태윤(공사28)	이한호(공사17)	이호용(공사45)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주)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호순(공사24)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상윤(공사36)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계성(하와이공군전우회)
정귀균(공군가족)	정민우(공사47)	정석환(공사31)	정종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조규식(공사17)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학사59)	조환기(공사31)	진광수(공사35)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참사랑병원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광섭(공사15)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법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운(공사22)	최병인(공군가족)	최상곤(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현국(공사33)	최호준(공사22)
故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사77기 동기회	한고희(공사33)
(주)한드	한봉철(공군가족)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룡(공사27)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성진(공사33)	황원동(공사24)	공사44기순직자(6명)	강무송(공사16)
고윤경(공군가족)	공승배(공사39)	권명남(공사16)	김동한(공사42)	김신희(공사16)
김정갑(공사16)	김정욱(공사16)	박종환(공사45)	배정영(공사16)	배충정(공사16)
양길수(공사16)	이병준(하와이한인회)	이선기(공사16)	이성우(공사16)	이은양(공사16)
임도한(공사34)	장영일(공사43)	장정동(공사16)	전창성(공사16)	진일법(공사16)
최동철(공사16)	최명상(공사16)			

전역자 현황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7.07.31	중령	박승원	34	'17.10.31	대령	유준종	33
	중령	김기완	35		대령	김영표	34
	중령	서해림	35		중령	김진성	34
	대령	송태섭	35		중령	강명석	35
	중령	정철종	35		대령	김효준	36
	중령	주원영	35		중령	양경모	36
	중령	이상목	36		중령	정석윤	36
	대령	이영재	36		중령	이복우	37
	중령	장남수	36		소령	이우일	38
	중령	최영배	42		중령	김운수	40
	소령	김현희	43		중령	양재학	45
	중령	고한웅	45		중령	지세현	45
	대위	이재환	55		소령	박민경	51
	'17.08.26	소령	배대열		55	소령	오재영
소령		배대열	55	소령	김동균	54	
'17.08.31	대령	김유현	33	소령	황진하	55	
	중령	공태훈	35	'17.11.30	대령	최재훈	34
	중령	곽호석	35		대령	김용하	35
	중령	조영준	35		중령	조정용	36
	중령	양택권	36		소령	김민호	44
	대령	김주영	37		소령	송선진	44
	중령	이준호	40		준장	김용복	34
	중령	조정호	46		중령	박중석	34
중령	김재철	34	준장		박흥식	34	
'17.09.30	대령	문화동	36	중령	임기억	34	
	소령	이훈태	44	대령	임삼규	34	
	소령	장원구	44	준장	홍승호	34	
	중령	최정일	46	중령	안재찬	35	
	소령	이승민	49	중령	이병욱	35	
	대위	오준현	60	대령	최부용	35	
	'17.10.09	중령	송준혁	42	대령	최훈문	35
	'17.10.29	소장	이병권	33	대령	박문덕	36
'17.10.31	대령	정찬흥	32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7.12.31	대령	안재건	36	'18.01.31	소령	배태호	45
	대령	차승천	36		대령	정연수	33
	중령	임범택	43		준장	한종호	34
	소령	김종호	45		중령	백용주	35
	중령	안해원	45		중령	서창수	35
	소령	손현식	47		중령	윤성원	35
	소령	이선영	53		중령	이승일	35
	소령	강석환	55		대령	최용만	35
	소령	도준호	55		중령	박찬두	36
	소장	심청용	32		대령	유문근	36
	소장	허창희	32		소령	정세환	44
	대령	김동욱	33		중령	전옥천	45
	대령	오두원	33		소령	노기섭	46
	대령	이상문	33		소령	이철환	49
대령	한상균	33	소령	임 건	49		
'18.01.31	준장	강병철	34	'18.02.28	소령	최명렬	49
	중령	김용환	34		소령	황윤지	49
	대령	서종대	34		소령	강동욱	51
	중령	김기동	35		소령	곽정현	51
	중령	김명수	35		소령	권용국	51
	중령	김용한	35		소령	김경호	51
	대령	서종대	35		소령	김광준	51
	중령	김기동	35		소령	김대현	51
	중령	김명수	35		소령	김무성	51
	중령	김용한	35		소령	김성진	51
	중령	이봉우	35		소령	김준섭	51
	중령	정흥권	35		소령	김준수	51
	중령	김추성	36		소령	김진수	51
	중령	이정우	36		소령	문병철	51
대령	주재관	36	소령	박상준	51		
중령	이규환	37	소령	박양규	51		
중령	김성철	45	소령	박준규	51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8.02.28	소령	박형태	51	'18.02.28	소령	최진현	51
	소령	배우석	51		소령	한성우	51
	소령	서동우	51		소령	황인걸	51
	소령	신수범	51		대위	강태윤	61
	소령	심준호	51		대위	김도형	61
	소령	심충보	51		대위	김영훈	61
	소령	안민수	51		대위	박푸름	61
	소령	양진우	51		대위	이규현	61
	소령	윤상수	51	'18.03.16	대령	전용성	33
	소령	윤원상	51	'17.03.31	중령	김재환	35
	소령	이남경	51		중령	이원정	35
	소령	이동규	51		중령	김재홍	36
	소령	이동준	51		중령	김연구	37
	소령	이두환	51		소령	김도엽	43
	소령	이병근	51		소령	류문규	46
	소령	이상혁	51		소령	마준호	46
	소령	이성희	51		중령	방효성	46
	소령	이승복	51		중령	양호석	46
	소령	이영신	51		소령	염승재	55
	소령	이호형	51		중위	김병진	61
	소령	임완주	51		대위	김정원	61
	소령	장기주	51	'18.04.05	소령	최필영	59
	소령	전정호	51	'18.04.06	대위	최경호	60
	소령	전지환	51	'18.04.30	대령	나병엽	33
	소령	정연채	51		준장	김재범	34
	소령	정찬화	51		중령	김성갑	35
	소령	정창후	51		중령	임종수	35
	소령	차인현	51		중령	신성관	36
	소령	천완석	51		대령	이정복	37
	소령	최나형	51		소령	송근호	44
	소령	최민혁	51		중령	곽재원	46
	소령	최영락	51		중령	김승현	46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8.04.30	소령	남성일	36	'18.05.31	중령	손영길	35
	소령	최광흠	51		중령	한만희	36
'18.05.30	준장	차용재	34		중령	장경근	37
'18.05.31	대령	백종찬	33		중령	홍영선	40
	대령	이병재	33		대령	이정환	41
	대령	송만섭	34		소령	박도원	44
	중령	김윤태	35		중령	이민수	46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8년 0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김순경		23기	장창연	김형선	45기	박종서	정명훈
2기	명의창		24기	전복진	하원훈	46기	서정민	
3기	정규혁		25기	최미락	김용전	47기	염인순	송태복
4기	조봉구	유동천	26기	정진기	조희연	48기	송영민	이정원
5기	정재식	정봉수	27기	김용상	최정근	49기	이정영	
6기	이윤우		28기	이상욱	정덕호	50기	장재원	조요진
7기	김석천		29기	이일수	김순노	51기	김시호	최호성
8기	김성환	정우신	30기	우정규	권영창	52기	박준규	추맹철
9기	천왕봉		31기	김진호	이현주	53기	차승주	최영천
10기	서진규	김완수	32기	안상훈	김우근	54기	이창오	
11기	양민호	박용이	33기	최현국	정영철	55기	염지운	
12기	박원규		34기	노승환	이재소	56기	권혁준	정신기
13기	유병각	김진삼	35기	이동규	이봉우	57기	정인식	김혜미
14기	김영오	정성규	36기	문경진	김재영	58기	이종복	조희상
15기	최용환	신길수	37기	심명철	이국진	59기	김성석	노제경
16기	주창성	양길수	38기	최재혁	최정현	60기	이진용	문찬식
17기	송대성	서정윤	39기	진영승	이상규	61기	이건혁	남용운
18기	전영훈	구정희	40기	박형건	류연주	62기	유은상	황인선
19기	정일권	민주동	41기	김종수	이충재	63기	한준우	허지민
20기	안병길	김택기	42기	정현기	김은희	64기	김상래	전재영
21기	황호상	안연진	43기	이성진	김현구	65기	박민석	이재형
22기	오원용	이강현	44기	이상덕	이수훈	66기	김상민	전희진

편집 후기

편집위원회가 발족하던 초기 우리 공사인 모두의 이모저모를 담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동문들의 원고를 기다렸지만 기대만큼 투고율이 높지 않아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려는 반전되었고 3기 선배님부터 금년에 졸업한 66기 동문까지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문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셨다.

시공간을 넘어 우리 동문들의 영혼의 기지(基地)이며, 마음의 고향인 공사총동창회가 '星武'誌를 통해 하나의 구심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하면서 편집인들은 지혜를 모았지만 미흡하고 아쉬운 여운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김영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편집인들의 노력을 꼭 마다 그리고 황간에서 찾아볼 수 있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성무지에 다 담지 못한 동문들의 소식이나 원고는 48권에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인〉

기고 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8호 성무지 원고는 2019.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18. 7. 1

발행인 : 윤학수

편집인 : 김영근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모든 기종에 적용 가능한 자체 보호장비



자체보호 장비가 장착된 기종

- F-16 A/B/C/D and block 60
- F-111 C/G
- A-10
- Tornado GR4(A)
- Chinook CH-47 D/F
- Apache AH-64D
- Cougar AS-532U2
- EH-101
- C-130 H/J
- P-8A
- E737
- EH-101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솔루션

- 상호운용성
- 생존성
- 조종사 상황인식

세계적으로 2,800 대 이상의 군용기에 장착되어 운용중



[주] 파코코리아 인더스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AMOS)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분야의 국내최고 전문기업입니다

항목	현재	10분	1시간	3시간
풍향 (ENE) <td>37</td> <td>50</td> <td>70</td> <td>73</td>	37	50	70	73
풍속 (m/s) <td>1.0</td> <td>1.2</td> <td>0.6</td> <td>0.0</td>	1.0	1.2	0.6	0.0
기압 (hPa) <td>1004.2</td> <td>1004.2</td> <td>1004.2</td> <td>1004.2</td>	1004.2	1004.2	1004.2	1004.2
습도 (%) <td>66</td> <td>66</td> <td>66</td> <td>66</td>	66	66	66	66
강우강도 (mm/h) <td>0.0</td> <td>0.0</td> <td>0.0</td> <td>0.0</td>	0.0	0.0	0.0	0.0
시정 (m) <td>500</td> <td>500</td> <td>500</td> <td>500</td>	500	500	500	500

성공적 항공작전 보장과 재해방지를 위한 필수 장비
방위사업청, 기상청, 산림청, 한수원 등 다양한 수요처에 공급 중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1010호
전화 : 02-2169-2500 팩스 : 02-2169-2549 www.parkor.co.kr



**‘새로운 고객가치로
미래를 선도하는 공항그룹’**
Connecting the World, Inspiring the Future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당신과 대한민국의 날개를 달아 드리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의 하늘길을 열어 갑니다.

* 해 외 : 12개국 95개 노선 (2018년 2월 기준)



풀 스펙트럼 ISR

통찰력 있는 선구자

특수 임무 항공기의 혁신적인 센서에서 전장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Raytheon 기술은 어떠한 플랫폼이나 임무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속도와 신뢰성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합니다.

 Raytheon.com

 [@Raytheon](https://twitter.com/Raytheon)

 [Raytheon](https://www.linkedin.com/company/raytheon)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기술 파트너

BAE Systems는 통합 전자전체계, 항공기 생존장비 그리고 피아식별장비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여 저희 고객이 진화하는 전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파트너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공중, 해상, 지상 및 사이버 공간에서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도록 혁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www.baesystems.com

Copyright © 2018 BAE Systems

BAE SYSTEMS

Mini-MUSIC DIRCM. 다양한 MANPAD 공격에 대해 입증된 방어 능력.



mini-MUSIC™: 모든 치명적인 전장에서 MANPAD 공격에 대한 DIRCM의 우수한 방어 능력

Elbit System의 mini-MUSIC compact DIRCM 시스템은 다양한 MANPAD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형 mini-MUSIC은 신속한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나리오에서도 매우 뛰어난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고, 한국에서도 성능이 입증된 Elbit Systems의 mini-MUSIC DIRCM 시스템은 광범위한 헬리콥터 플랫폼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Elbit Systems™
ISTAR

www.elbitsystems.com



하늘을 장악하다 최강의 전투기 F-15

최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인 F-15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상된 행동반경과 탑재량을 기반으로 최신 F-15는 차원이 다른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공중 우세 역량을 보장합니다.

 **BOEING**